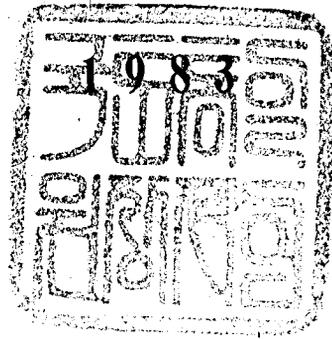


# 北 韓 實 態 (I)



國 土 統 一 院  
統 一 研 修 所



## 北 韓 實 態 (I)

I. 北韓의 政治 .....	3
II. 北韓의 經濟 .....	39
III. 北韓의 社会 · 文化 .....	105
IV. 北韓의 教育 .....	155
V. 北韓의 軍事 · 外交 .....	191

19/6



# I. 北韓의 政治

李 禎 秀

(統一研修所 教授)

## 目 次

1. 序 言 .....	5
2. 北韓共產政權의 出現背景 .....	6
3. 北韓共產政權의 變遷過程 .....	12
4. 權力構造의 特徵 .....	22
5. 金正日體制 構築狀況 .....	29
6. 結 言 .....	32



## 1. 序 言

우리의 國土와 民族이 갈라지면서 북녘에 共產主義體制가 들어선 지도 38年이 경과하고 있다.

그동안 北韓에는 金日成의 빨치산集團이 統治하여 왔고 最近에는 金正日을 내세워 父子世襲體制를 構築하는 등 時代에 逆行하는 現象이 나타났다.

이같이 權力的 中心이 金日成에서 金正日에로 옮겨지는 變化속에서도 그들의 目標은 변함없이 革命一邊倒이며 韓半島 共產化인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中共은 毛澤東死後 好戰的 革命主義보다는 점차 經濟發展에 力點을 둔 實用主義를 표방하고 있으며 蘇聯도 브레즈네프死後, 보다 開放化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西歐 共產黨들도 革命的 手段보다는 議會를 통해서 社會主義를 實現하겠다는 「유로communizm」을 내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蘇聯의 衛星國인 폴란드, 루마니아가 西歐物質文明의 자극을 받아 自由化의 기미를 점차 드러내고 있다. 오늘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金日成의 永久執權化를 위해 世襲體制까지 構築하고 있다.

또한 북녘에서는 金日成 1人體制가 들어선 以後 民族主義勢力과 反對勢力을 彈壓하고 階級政策으로 民族分裂을 조장했고 70年以後에는 住民의 生活樣式과 行動 모두를 金日成 1人에 從屬시킴으로써 極端的 獨裁體制로 몰고 가면서 民族의 異質化를 計劃的으로 자행하였고 또한 人間의 個別性, 創造性을 묵살하는 등 反民族的이고 非人間的 作態를 露骨的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體制는 民族的 次元에서 보면 反民族的이고, 人間的 次元에서도 非人間的 體制라고 단정

하겠다.

그러나 北韓共產集團은 이러한 實相을 隱蔽할 目的으로 한편으로는 社會를 閉鎖化시켜 住民을 統制하여 왔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南美에서 北韓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불러 들여 比較하도록 하고 또 6.25 動亂後 廢墟의 地境과 比較토록 하여 現實에 만족하고 自慰하도록 宣傳手段을 動員하여 住民들의 眼目を 迷惑시키고 있다.

그리고 北韓事情을 모르는 아프리카, 中南美地域의 未開發國家들에게 地上天國인양 宣傳하는가 하면, 比較的 穩健한 東歐共產社會의 實態만을 알고 있는 一部 自由世界 사람들이나 北韓實情에 어두운 一部 國內外 民族成員들에게 손을 펼쳐 그들의 勢力膨脹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 教材에서는 民族의 진정한 統一을 위해 ① 統一의 對象으로서의 北韓共產體制는 어떻게 形成되었으며, ② 金日成 1人獨裁體制는 어떤 方法과 過程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고, ③ 北韓의 權力構造의 特徵, ④ 金正日 登場以後 變化狀況과 南北關係를 中心으로 考察하려 한다.

## 2. 北韓共產政權의 出現背景

### 가. 解放當時의 北韓

1945年 解放當時 北韓에는 共產主義運動이 거의 存在하지 않았고 住民 大多數는 傳統的인 生活樣式과 思考方式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解放感과 함께 民族精神이 드높아 있었다. 한편 平壤을 中心으로 한 西北地方에는 基督教思想이 바탕이 된 西洋文化가 早期에 流

入되었으며, 古堂 曹晩植先生을 중심으로 한 民族主義勢力과 宗教勢力이 절대다수였으며 共產主義者들은 극소수였다. 즉 解放當時의 北韓住民 940萬名中 基督教人口는 370萬名이었다. 또 北韓文獻에 의하면 共產主義者는 4,530名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北韓社會는 傳統的으로나 思想的으로 봐도 자생적으로 共產化될 素地가 稀薄하였다.

그러나 戰後에 蘇聯의 對極東政策에 따라 스탈린은 軍事力으로 北韓을 占領하여 共產化作業을 着手하게 되었다. 즉 蘇聯軍 第25軍司令官 치스차코프大將이 이끄는 소위 解放軍(20~30萬名)이 1945年 8月 8日부터 行動을 開始하여 즉각 咸鏡北道 慶興과 雄基에 進擊하였으며, 8月 12日에는 羅津을, 8月 13日에는 淸津을 占據하였으며, 8月 22日에는 平壤에 進駐하였고, 한편 8月 23日에는 로마넝코少將이 政治·行政要員을 이끌고 元山을 통해서 北韓에 들어왔으며, 8月 25日 平壤에 駐屯軍司令部를 設置하여 8月末까지 北韓全域을 完全히 掌握하게 된다.

蘇聯軍은 8月 26日에 共產化作業에 따라 우선 民族主義勢力이 中心이 된 「平南建國準備委員會」(8月 17日 平壤 종로에 있는 오운선氏 宅에서 결성)와 土着共產主義者인 玄俊嫻 中心의 「朝鮮共產黨 平南地區委員會」를 합쳐 「平南人民政治委員會」를 만들었다. 以後 共產化計劃은 이 機構를 앞세워 執行하게 되는데 이때 委員長은 曹晩植先生이다.

1945年 10月에 이 「平南人民政治委員會」는 「5道行政局」(委員長: 曹晩植)으로 改編되고 다시 1946年 2月에 가서 金日成에 의해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만들게 하여 委員長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후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母胎가 된다.

또 오늘의 勞動黨은 1945年 10月 10日 西北五道 責任者 및 熱誠

者大會에서 結成된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에서 시작된다. 오늘에 와서 北韓에서 創黨紀念日을 10月10日로 하는 것도 여기에 根據한다. 이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이 1945年12月27日 第3次 熱誠者大會에서 「北朝鮮共產黨」으로 名稱을 바꾸면서 최초로 金日成이 責任秘書로 등장한다. 그리고 1946年8월에 金科奉의 「新民黨」과 합쳐서 北朝鮮勞動黨이 되며, 그후 서울에서 월북한 朴憲永의 南勞黨一派와 합쳐서 오늘의 勞動黨이 출현하게 된다.

#### 나. 金日成의 登場과 共產政權形成過程

金日成은 스탈린의 下手人으로 入北하게 되는데, 스탈린은 그 當時 占領地域 共產化와 關聯하여 합당한 下手人을 選擇하는데 몇 가지 基準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첫째, 國內非共產主義者는 물론 土着 共產主義者까지 除外시켰다. 왜냐하면, 土着 共產主義者는 부르조아民族主義에 感染될 可能性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國內政治 基盤이 없고 追從者도 없는 者를 擇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스탈린에 背叛할 餘지가 없는 者를 選擇하는 것이다. 셋째는 蘇聯에서 政治訓練을 받고 크레믈린에 盲目的으로 순종할 철저한 스탈린主義者를 擇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2次大戰後에 登場한 체코의 코트발트, 루마니아의 안나파우게르, 東獨의 피이크, 울브리트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基準에 의해서 선발된 것이다. 이들은 蘇聯市民權을 가지고 스탈린의 側近에서 일하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선발되어 本國에 돌아가 實權을 잡은 사람들이다.

스탈린은 金日成을 어떻게 선정하였는가? 스탈린이 金日成을 선정하는 過程을 보면, 처음에는 外務省과 內務省을 통해서 추천하도록 하여 內務相인 베리아는 金日

成을 추천하였으며, 外務相인 모로토프는 京城(서울)의 마지막 領事인 샤브신에 의하여 선정된 朴憲永을 추천하였다. 이러한 狀況에서 스탈린은 金日成과 朴憲永을 놓고 택일하게 된 것이며, 마침내 스탈린은 金日成을 택하게 된 것이다. 즉 朴憲永은 日帝下에서 民族主義的 經驗을 했기 때문에 共產化가 된 以後에도 民族主義的 立場에서 蘇聯으로부터 이탈할 可能性이 있다는 判斷下에서 脫落시킨 것이다.

이렇게 선발된 金日成이 1945年 8月末頃 北韓의 東北地域으로부터 蘇聯軍과 함께 들어와서, 北韓住民에게 公式的으로 나타난 것은 10月 14日 平壤群衆大會에서이다. 金日成을 傀儡, 金日成政權을 傀儡政權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蘇聯軍과 함께 들어왔다고 해서 “金日成政權”을 “貨車政權”, “軍用보따리”에서 나온 政權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民族主義的인 것과는 아무 關聯이 없다.

여기서 蘇聯軍이 北韓을 占領한 以後 어떻게 共產化를 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체로 共產主義者들은 戰略·戰術上 3段階를 통해서 共產化作業을 한다. 北韓에서도 같은 原則이 適用되고 있다. 第1段階 共產化作業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聯立政府를 꾸미게 한 것이다. 즉 앞에서 言及한 「平南人民政治委員會」를 만드는 過程이 이에 속한다. 원래 이 機構는 自主的 民族主義幹部 16人和 共產黨幹部 16人으로 構成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4 : 18로서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民族主義者로 선정된 金洸鎭, 吳基疇가 共產黨쪽으로 미리 包攝되었던 것으로 들어났다.

이같은 聯立政府 樹立段階는 共產主義의 戰略·戰術에서 보면 人民民主主義革命段階로서 共產主義者들이 同盟을 하는 단계이며, 戰術的 妥協의 段階이다. 北韓의 경우에서 보면 그 당시 共產主義者들이 적 없으므로 共產主義者들만으로 統治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共產主義

者와 非共產主義者와의 聯合이 불가피한 것이다. 여기서 共產主義者들의 間接의 악랄한 면을 볼 수 있다. 또한 共產主義者들이 자주 사용하는 “聯立”, “聯合”, “聯邦”, “合作” 등이 어떤 時期에 사용되는가를 留意하여 볼 必要가 있다.

또 이 聯立政府時期에는 共產主義者들이 共產社會 建設이니 社會主義社會 建設이라는 말보다는 “民族的 獨立”, “民族主義”, “民主社會”, “土地均配”, “勞動階級の 地位向上”, “男女平等” 등 극히 現實的이고 國民 大多數가 共鳴할 수 있는 말 또는 政策을 提示하기 마련이다.

第2段階는 以上에서 共存·聯立하도록 해놓고 어떤 口實을 가지고 非共產主義者들을 제거하여 內容적으로 似而非聯立形式을 띠는 것이다. 예컨대 曹晚植先生에게 모스크바三相會議에서 決定된 信託統治案을 受諾토록 强要하였으나, 曹晚植先生이 끝까지 拒否하니까 제거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金日成集團의 反民族主義的 所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朝鮮民主黨의 黨首를 崔庸健이가 잇도록 하여 실제로 共產主義勢力이 支配하도록 해놓고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 聯立政府形式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겉으로 聯立한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 非共產主義者들은 除去되거나 包攝된 狀態이다. 바로 이것이 似而非聯立段階이다.

마지막으로 第3段階는 “民族統一戰線” 段階이다. 非共產主義政黨內에서 「反動分子, 反人民的 分子」들이 掃蕩되고 이들 政黨들이 共產黨意思의 단순한 傳達機關으로 變身하면서 이때는 廣範圍한 全人民的 團結의 象徴으로서 非共產主義政黨과 共產黨 및 그 傘下團體가 統一戰線으로 結成되고 그 戰線首腦部는 共產黨員과 그 追從者들이 차지한다.

이같은 共產化의 “統一戰線” 形態는 各國에서 多樣하게 불려지고 있다. 즉 헝가리에서는 「民族獨立戰線」, 루마니아에서는 「民族民主戰線」, 東獨과 체코에서는 「國民戰線」등으로 불렸으며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提議에 의하여 4個政黨, 15個 團體를 합하여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委員會」라 불렀다. 여기서 4個 政黨이란 金日成이 責任秘書인 北朝鮮共產黨(45.12.27)과 曹晩植先生이 만든 朝鮮民主黨(45.11.3), 그리고 金科奉의 朝鮮新民黨, 天道教靑友黨을 말한다. 이와 같이 北韓에서의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은 内部的으로 共產化된 政黨, 社會團體로서 形成되었으며 似而非聯立政府의 基礎로써의 役割을 하게 된다. 결국 이 「民戰」은 人民共和國政權 創建에 活用되었다.

우리는 以上에서 蘇聯占領軍의 힘과 共產主義의 戰略·戰術이 北韓地域을 共產化하는데 絶對的 要因이었음을 確認하게 되었다. 그러나 北韓은 蘇聯軍이 占領한 地域中에서 유일한 植民地였다고 하는 事實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른 占領地域은 戰勝國(폴란드, 헝가리, 체코)과 敗戰國(루마니아, 불가리아, 東獨)의 差異는 있었으나 그런대로 獨立國이었으며 戰前부터 統治經驗 및 政黨組織勢力을 保有하고 있었다. 北韓에는 朝鮮朝時代와 日帝植民統治期間을 거치는 過程에서 自主的인 政治經驗이나 政黨組織勢力이 없었으므로 日本의 降伏과 더불어 힘의 空白이 생겼다.

이러한 條件에서 蘇聯軍의 絶對的 支援을 받은 金日成이 比較的 빠른 時日內에 北韓을 共產化할 수 있었다.

### 3. 北韓共產政權의 變遷過程

다음은 스탈린에 의해서 선발되어 北韓에 들어온 金日成이 蘇聯軍의 힘을 업고 權力을 掌握한 以後 오늘의 世襲體制를 構築하기까지 自己中心의 強力한 1人獨裁體制를 形成해온 過程을 時期別로 살펴 보겠다.

가. 第1期(1945~58年); 金日成 1人獨裁形成期

金日成은 이 期間에 社會主義革命을 내걸고, 獨裁政治의 條件을 確保하기 위해서 反對勢力을 肅清하고 또한 社會經濟的 體制改革을 行한다.

우선 金日成의 政治的 肅清을 보면, 自己權力 維持에 障礙가 되거나 威脅이 되는 모든 政敵들의 除去와 自己政策의 失敗에 대한 責任을 全部 다른 사람에게 轉嫁하여 肅清한다.

金日成의 權力爭取를 위한 肅清을 事件別로 보면, 우선 45年 9月末에 土着共產主義者인 玄俊熾이를 除去하고 그 다음에 民族主義者와 右翼陣營勢力의 肅清에 着手한다. 즉 이 當時 北韓社會에서 絶對的인 支持를 받고 있던 古堂 曹晩植先生을 中心으로 한 民族主義者들이 蘇聯에서 決議된 信託統治案을 拒否한다 하여 蘇聯軍으로 하여금 監禁하게 하여 除去했고, 또 知識人, 宗敎人, 地主, 企業家 등 右翼陣營人士들을 反動내지 親日派로 몰아 肅清하였다.

그리고 세번째가 南勞黨派의 肅清이다. 政權樹立(1948年 9月 9日) 當時 南韓에서 월북한 朴憲永, 李承燁, 李康國, 林和 등 南勞黨派는 黨과 權力機關에 自派勢力을 부식하기에 광분하였으나 要職은

金日成一派에게 모두 빼앗겨 버림으로써 불평은 물론 權力爭取의 기회만을 노리는 입장이었다. 또한 金日成의 立場에서도 威脅的 存在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6.25 戰爭이 失敗로 돌아가고 北韓 全地域이 잿더미로 화하자 北韓住民들 중에서 金日成에 대한 反感을 가지는 者가 많아졌다. 金日成은 돌과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다가 南勞黨一派에게 美帝의 雇傭間諜 또는 反黨行爲者로 누명을 씌우고 6.25 戰爭의 失敗에 대한 責任을 그들에게 轉嫁시켜 肅清해 버렸다.

여기서 南勞黨系 및 朴憲永의 肅清을 통해서 6.25 戰爭을 누가 일으켰는가를 알 수 있다. 金日成은 一次 攻擊時 “朴憲永은 우리를 속였다. 朴憲永은 南朝鮮에 20萬黨員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南朝鮮에 黨員이 20萬은 고사하고 1,000名만이라도 있어서 釜山쯤에서 罷業을 하였더라면…… 정세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면서 6.25의 敗北를 朴憲永에게 轉嫁하여 肅清하였다.

네 번째로 蘇聯 및 延安派의 肅清이다. 平素에 이들은 金日成의 政策路線과 個人崇拜에 대한 不滿을 품고 있었다. 즉 이 當時 金日成은 軍事力 強化와 重工業 중심의 經濟政策을 推進하였던 바 消費物資 缺乏과 食糧難으로 住民들의 不平이 높았었다. 이에 延安派(金科奉과 崔昌益)와 親蘇派(朴昌玉)들은 輕工業을 強化하여 農業部門을 發展시킬 것을 원했다. 또 이들은 反스탈린運動의 影響을 받아 金日成個人崇拜에 대해 批判을 가하고 불평을 하던 중 金日成의 東歐訪問을 계기로 陰謀를 벌였다. 그러나 이것이 누설되어 급히 歸國한 金日成이 8月 全員會議(1956.8)를 召集하여 延安派인 金科奉(最高人民委常任委員長), 崔昌益(副首相), 韓斌, 武亨, 朴一禹, 李相朝 등과 蘇聯派 朴昌玉 등을 “중과분자”로 몰아 「國家變亂陰謀」를 꾸

였다는 理由로 肅清해 버렸다.

이렇게 하여 解放後부터 1958年까지 金日成은 己의 肅清을 통해 1人獨裁의 基盤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金日成式 肅清의 對象은 敵對者, 競爭者, 異端者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60年代末에는 自派 및 軍部勢力까지도 1人獨裁의 基盤確立을 위하여 肅清하게 되며 最近에는 「獨裁對象地域」을 만들어 反對者들을 除去하고 있다.

또한 이 時期에 金日成은 制度改革을 통하여 1人獨裁體制의 基礎를 마련하게 된다. 즉 金日成은 1946年2月8日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만들어 “民主改革”이란 名分으로 土地改革(1946.3), 重要産業의 國有化(1946.8), 貨幣改革 등을 단행했다. 예를 들어 土地改革에 대한 그들의 文獻에 의하면 46年初 當時 金日成은 5町步以上の 땅을 가진 사람을 大地主라고 規定하였다. 大地主의 수는 44,000名 정도로 되어 있으며 이들로부터 土地를 빼앗아 貧農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땅을 빼앗긴 大地主들의 抵抗은 다양한 方法으로 나타났음을 그들의 文獻에서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姓을 바꾸어 農民層에 浸透하여 抵抗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行軍을 하면서 저녁에 자기 땅을 찾기 위해 鬪爭하고, 낮에는 일하는 척하고 밤에는 돌아서서 抵抗을 하고, 어떤 사람은 孫子의 손목을 잡고 가서 빼앗긴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죽더라도 너는 저 땅을 찾아야 한다”고 고취하는 者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分配된 땅도 社會主義革命을 내세워 점차 國有化와 協同農場의 所有로 만들기 위해 다시 뺏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처럼 金日成은 政治權力뿐 아니라 社會經濟的 基盤構築을 위해 1954年부터 農村에서 個人農을 完全히 廢止하고 強制로 集團化하였

고 都市에서는 1953년부터 各種 協同組合을 創設하여 個人商工業 및 手工業者들을 義務的으로 加入시켜 商工業의 共有化를 강행하였다. 이러한 社會主義的 改革은 1958년까지 계속된다. 金日成은 1956年末 소위 「黨事業總和報告」에서 北韓 全域에서의 農業의 集團化와 商工業의 社會主義的 改造가 完了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農民들은 모두 소위 “協同農場員”으로 되고 그리고 都市의 中小 商工人과 手工業者는 國營企業所에서 일하는 勞動者내지는 一部 事務員으로 轉落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金日成은 政治·經濟·社會를 獨裁할 수 있도록 改革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住民들을 共產主義人間으로 만드는 作業에 着手한다. 이것을 人間改造作業이라고도 한다. 즉 北韓住民들을 共產主義體制에 適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金日成은 “共產主義教養”(1958)이라는 人間改造의 指針書를 만들어 낸다.

北韓에서는 1958년까지 모든 部門을 金日成의 1人獨裁를 可能하도록 基礎를 마련하고 그들은 이것을 社會主義基礎가 마련된 것으로 主張하고 있다.

#### 나. 第2期(1959~65年); 金日成 1人獨裁確立期

이 段階에서는 金日成 1人獨裁 條件을 만들어 놓고 그 뿌리를 내리는 作業이 展開된다. 대체로 1959년부터 1965년까지이며 이 期間을 金日成 1人獨裁確立期라고 부른다.

金日成은 1人獨裁 確立을 위해서 住民의 成分을 조사하고, 人間改造를 통해서 맹종하는 人間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金日成個人偶像化作業에 本格的으로 着手하게 된다.

즉 1958년부터 60년까지 2年동안에 걸쳐 실시한 소위 中央黨

集中指導事業을 통하여 北韓의 모든 住民들의 成分을 調査하였고 1962年부터 住民登錄事業을 實施하였다. 그리하여 北韓住民을 核心階層(27%, 約 87萬世帶), 動搖階層(22%, 約 70萬世帶), 敵對階層(51%, 約 243萬世帶)으로 區分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動搖階層과 敵對階層들을 反革命的 要素가 있다고 간주하여 獨裁對象으로 取扱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強壓의 統制를 實施했던바 그 方法의 하나로 모든 住民을 代代孫孫 살아오던 故鄉땅으로부터 生面不知의 他鄉으로 強制移住시켰다. 특히 敵對階層에 해당하는 越南者家族, 宗教人家族, 地主, 肅清者家族들에게는 休戰線과 東·西海岸線으로부터 20 km 內陸地方으로, 또 한편 平壤, 開城같은 都市로부터 50 km 밖 地域의 各 村落으로 移住시켰다. 또한 이들은 子女教育, 各種配給, 職場配置에도 철저한 差別待遇를 받는다. 이러한 狀況은 既存의 家族的, 血緣的, 地緣的 人間關係를 破壞하여 金日成 1人獨裁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分散된 北韓住民을 勞動黨의 下位機關인 各種 團體(社勞青, 農勤盟, 職盟, 女盟, 少年團 등)에 義務적으로 加入시켜 組織적으로 共產主義人間으로 改造시켜 나가며 人民班會議, 5戶擔當制 등의 組織을 통해서 相互 批判과 監視를 強化하여 盲從토록 했다.

이와 같이 統制할 수 있는 條件과 裝置를 만들어 놓고 金日成은 北韓의 農民과 勞動者를 그의 편에 끌어들이려고 새로운 誘引方法을 강구하게 된다.

즉 1960年2月 金日成은 江西郡 靑山里에서 黨員들과 農民들을 指導하면서, 農民들을 共產主義的 集團生活과 黨에 無條件 服從하도록 고취하는 指導方法을 만들어 낸다. 이것을 그들은 靑山里指導方法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을 靑山里精神이라고 한다. 北韓의

文獻에 의하면 靑山里指導方法이란 “웃사람이 아랫 사람을 指導하여, 政治事業을 선행시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조직동원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農民에 대한 靑山里方法和 유사한 方法으로 工場勞動者를 對象으로 소위 “大安의 事業體系”라는 것을 만들어 냈다. 즉 金日成은 61年 11월에 大安電氣工場에서 10餘日間 勞動者들과 같이 生活하며 勞動者로 하여금 階級意識과 黨性을 갖도록 하여 黨을 위해 無條件 服從하도록 指導함으로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大安의 事業體系」에 의해서 指導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이와 같은 組織的인 教化와 統制 그리고 黨과 金日成에 맹종하도록 하는 人間改造作業에 따라 金日成의 1人獨裁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金日成偶像化에 관한 問題인데, 共產主義 1人獨裁體制에서 個人偶像化의 代表的 例는 蘇聯의 스탈린과 中共의 毛澤東, 北韓의 金日成을 指摘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 행해지고 있는 金日成에 대한 偶像化運動은 스탈린의 경우보다 비교도 안될 만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즉 金日成을 ‘人民의 太陽’, ‘白頭의 별’로 象徵操作할 뿐만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과 같이 神格 存在로 만들어 北韓住民들로 하여금 盲從케 하고 있다. 例를 들면 金日成은 “白頭山 精氣를 타고나서 天地造化를 다 알며 縮地法을 써서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식으로 神的 存在로 描寫하고 있다.

이와 같이 金日成의 偶像化 놀음은 尊稱에 대한 修飾語가 많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金日成에 관한 記錄을 날조하여 金日成을 神格化시키는 데로 물고 간다.

또한 70年代에 가던 金日成 個人을 넘어 家系를 革命家系로 날조하여 金日成偶像化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金日成의 曾祖父 金膺禹는 1866年 美國의 紗襪號가 大同江邊에 侵入했을 때 擊沈시켰다고 해서 反美運動의 先驅者이며, 그의 父 金亨稷은 1917年 러시아 불세비키革命의 影響을 받아 1919年 3·1運動을 선도했기 때문에 反日運動의 先驅者이고 金日成은 빨치산部隊를 이끌고 北韓땅을 解放시킨 장본인이며, 北韓內部 革命(社會主義革命)은 3大革命을 主導하고 있는 金正日의 功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80年代에 와서는 金正日의 登場과 關聯해서 家族을 끌어내어 偶像化를 하고 있다. 요사이 北韓에서는 金正日의 生母인 金晶淑을 金日成에게 충성을 다한 代表的인 女性으로 만들어 본받도록 하고 있다. 또 81年 8月 17日에 政令으로 양강도 신파군 신파읍을 金晶淑郡, 金晶淑邑으로 바꾸고 신파여자고등중학교와 惠山第2師範大學을 金晶淑高等中學校, 金晶淑師範大學으로 고친 바 있다.

어쨌든 金日成은 이 時期에 組織的 統制로써 服從과 忠誠을 강요하고 偶像化를 통해서 1人獨裁體制를 強化해 나갔다.

#### 다. 第3期(1966~72年); 族閥政治強化期

解放後부터 50年代末까지 制度改革과 大肅清으로 獨裁基盤을 構築한 金日成이 50年代末부터 60年代中盤까지는 強力한 社會統制와 偶像化政策을 強化하여 더욱더 獨裁基盤을 다지더니 60年代中盤부터 70年代初에 이르러서는 族閥政治를 強化한다. 말하자면 絶對君主로서 權力의 頂上에 金日成이 앉아 있고 黨과 政權機關의 核心權力은 모두 그의 一家 親戚이 獨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族閥政治란 原來 모든 權力을 氏族과 門閥에 分配하여 이를 永續케 하기 위한 政治形態를 말하는데 그 代表的인 것은 王朝體制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北韓의 金日成體制가 어

는 정도 前近代的 族閥體制인가 알 수 있다.

또 共產主義政治의 基本은 프롤레타리아트階級の 獨裁에 있고 그 權力은 黨에 의해서 행사되고 있다고 하는 觀點에서 보면 金日成 1人의 族閥體制가 어느 정도 正統路線에서 이탈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極端的 1人獨裁體制가 可能的 것은 本質적으로 共產黨의 獨裁原理가 조창하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共產主義社會의 政治는 黨이 國家의 모든 權力을 掌握하고 있으며 下級組織은 上級組織에 無條件 服從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北韓勞動黨規約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모든 權力을 獨占하고 있는 共產黨은 上級機關과 上級者에 絶對服從할 것을 組織原則에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最高上級者인 黨의 總秘書인 金日成은 철저한 1人獨裁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을 惡用함으로써 異端的 族閥體制와 世襲體制를 낳게 된다.

여기서 金日成의 支持바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金日成의 政治權力이 얼마나 협소한 血緣的 바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즉 族閥에 依存해서 權力을 維持하고 또 아들을 내세워 體制를 維持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金日成의 支持度가 얼마나 微弱한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金日成의 長期間의 統治는 住民의 支持라기 보다는 무서운 獨裁手段(組織的 統制, 社會的 閉鎖化, 獨裁對象區域設置 등)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族閥을 동원하여 1人獨裁體制를 強化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이 時期는 金日成이 對內外的으로 不安定하고 安保의 危機를 느낄 때이다. 즉 對內的으로는 1967年 軍部와 經濟專門家들 사

※ 金日成 族閥現況

姓 名	關 係	職 責
金 正 日	長 男	勞動黨 政治局 常務委 4 位 軍事委 3 位 秘書局 2 位
金 聖 愛	妻	女盟中央委員長
康 良 煜	外從祖父	副主席兼 朝鮮社會民主黨委員長
朴 成 哲	從 妹 夫	副主席兼 勞動黨政治局員
許 鎔	從 妹 夫	副總理兼 外交部長
楊 亨 燮	從 妹 夫	勞動黨中央委員
金 貞 淑	從妹(許鎔의妻)	職總副委員長
金 信 淑	從妹(楊亨燮의妻)	社會科學院副委員長
康 賢 洙	外 從 弟	平南道人民委員長
姜 希 源	外 戚	清津市黨責任秘書
黃 壯 燁	조 카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議長 兼 勞動黨 秘書
金 仲 麟	金英柱 妻家姻戚	勞動黨政治局員兼 對南事業擔當 秘書

이의 政策對立, 69年에는 蘇聯軍事大學出身과 抗日빨치산出身間의 派閥싸움으로 肅清이 있었다. 또 對外的으로는 中·蘇紛爭으로 強大國 틈에 끼어 양다리外交를 할 만큼 不安定한 狀態에 놓여 있었다.

또 하나는 越南戰의 激化로 인해서 金日成이 安保의 威脅을 느꼈다. 金日成은 越南戰의 激化를 “美帝”의 아시아 共產主義體制에 대한 威脅으로 看做하였던 것이다. 金日成은 이 時期에 對內外로 前例없는 體

制不安과 安保威脅을 느꼈던 것과 關聯시켜 보면 族閥을 動員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라. 第4期(1973~現在) : 政權世襲化期

33歲의 젊은 나이로 蘇聯軍의 힘을 업고 北韓땅을 掌握했던 金日成이 1970年 初盤에 이르자 그의 나이가 60代에 접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金日成과 같은 빨치산 世代들도 거의 60代가 넘어감에 따라 後繼者 問題가 서서히 고개를 들게 된다.

이로부터 金正日 後繼問題가 表面化하기 始作하는데, 金日成의 後繼者로서 自己 子息을 택한 理由는 특히 스탈린死後의 蘇聯指導體제의 混亂과 스탈린의 格下運動, 中共에서 毛澤東에 대한 林彪의 謀叛과 같은 事件을 미연에 防止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金日成은 中共과 蘇聯에서 指導者가 죽은 후의 政治的 不安을 指摘하면서 이것은 後繼者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金正日의 選擇은 金日成의 永久執權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데 기인한다.

그래서 金日成은 金正日로 하여금 이른바 73年 2月부터 3大革命小組運動을 主導케 하여 後繼者로서의 基盤을 強化토록 支援하였다.

金正日이 金日成의 後繼者임을 確認할 수 있었던 根據는 1975年 10월에 發刊된 在日朝鮮人總聯合會 「幹部學習提綱」에서이다. 즉 同幹部學習指針書에서 “革命的 偉業은 한 世代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代를 이어 繼承해 나가야 完遂할 수 있는 歷史的 偉業이며, 우리 黨은 親愛하는 金正日同志를 위대한 首領님의 唯一한 繼承者로 우리 黨과 우리 人民의 英明한 指導者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首領님께서 開拓하신 革命偉業을 가장 빛나게 完遂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句

節을 보더라도 金正日이 金日成의 後繼者임을 明白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는 金正日에 관해서 植物人間說, 그리고 死亡說 등이 분분하였으나 1980年 10月 10日부터 13日까지 平壤에서 開催된 勞動黨 6次大會에 金正日이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새로 新設된 黨政治局 常務委員會 序列 4位로 부상하더니 급기야는 秘書局에서 金日成 다음의 第1人者로 지목되어 명실공히 北韓의 第2人者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以後 北韓의 內部는 金正日世襲體制를 如何히 構築하는가에 부심하고 있으며 이것과 關聯해서 소용돌이치고 있다.

#### 4. 權力構造의 特徵

一般的으로 共產國家에서 權力構造의 特徵은 共產黨이 모든 權力을 獨占하고 또한 權力의 源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共產政權이라 해도 그 權力을 누가 行使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예컨대 中共과 北韓을 比較해 보면 中共의 權力構造는 分權的이며 集團指導體制이나 北韓은 中央集權的이며 1人獨裁體制이다. 즉 北韓의 경우는 勞動黨을 優位로 하는 權力體系를 가지고는 있으나 實際로는 金日成 1人의 偶像化와 族閥 그리고 世襲이라고 하는 金日成 1人과 密着되어 權力體制的 性向과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黨을 頂點으로 하는 體制라기보다는 金日成 1人獨裁體制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特徵이 支配理念과 制度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겠다.

## 가. 支配理念

現在 北韓에서는 勞動黨과 政權機關의 모든 路線과 政策은 「主體思想」으로부터 출발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 「主體思想」은 “레닌主義와 마르크스主義를 우리나라 現實에 創造적으로 適用해서 만든 金日成의 思想”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바꿔말하면 金日成은 자기 임의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解釋하여, 自己의 1人獨裁를 合理化하는데 必要한 部分만을 선별적으로 차용하여 「主體思想」이라는 것을 표방했다. 이것은 毛澤東과 카스트로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과 쿠바에 各各 導入할 때 “創造的”이란 말로 權威를 세우고 “마오이즘” 또는 “카스트로이즘”이라고 불렀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金日成의 主體思想도 權力을 잡은 共產主義者가 붙이는 상투적인 標識에 불과하다. 결국 「主體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北韓式 表現이다.

또한 그들은 主體思想을 “金日成이 創始하고 金日成이 意圖하는 革命과 建設을 勝利에로 이끄는 革命的 기치”라고 規定하였다. 이런 점에서 主體思想은 金日成 1人獨裁를 合理化시켜 주는 論理를 粉裝한 것에 불과하다. 現在 金日成은 自己의 主體思想을 信奉해 줄 것을 强要하고 있다. 이것을 그들은 唯一思想體系라고 한다. 즉 唯一思想이란 首領의 主體思想으로 全黨·全軍·全民을 武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같이 金日成의 主體思想으로 武裝시켜 北韓住民을 金日成에 忠誠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唯一思想體系를 세운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들의 人間改造의 目的과 關聯하여 모든 北韓住民을 首領에게 忠誠을 다하는 革命的 共產主義者로 만드는 것을 意味한다.

北韓은 主體思想을 어떤 原理에 根據하고 있다고 하는가? 즉 主體思想은 “사람이 모든 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決定한다는 것과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人民大衆이며 革命과 建設을 推進하는 힘도 人民大衆에게 있다”는 原理에 입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가장 常識的인 文章을 “革命과 建設” 그리고 “人民大衆”이라는 共產主義의 말로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다. 즉 北韓住民들을 革命과 建設에 動員하기 위한 戰術的 表現인 것이다. 또한 여기서 主人은 個人의 自由와 權利와 關聯된 말이 아니라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이란 狀況에서만 意味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말들은 革命的 熱意를 자극하는데 불과하다.

北韓에서 「主體思想」을 이데올로기로서 어떻게 표방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데올로기로서 具體化된 時期는 1967年이다. 그들은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을 위해 思想·政治·軍事·經濟 등 모든 分野에서 「主體思想」을 適用하고 있다. 즉 「思想에서 主體」, 「政治에서 自主」, 「經濟에서 自立」, 「國防에서 自衛」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人民들에게는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을 갖도록 요구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金日成은 「主體思想」을 통해서 北韓住民들로 하여금 「革命과 建設」의 主人으로서 創發性을 發揮하여 積極 參與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主體思想의 生成背景을 보면 主體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55年 12月 28日 “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體를 確立할데 대하여”라는 演說속에서이다. 金日成 立場에서 보면 이 當時는 延安派, 蘇聯派와 權力鬭爭을 벌일 때이며, 1953年 스탈린死後, 스탈린格下運動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었던 만큼, 이러한 危機를 돌파하는 戰術的 武器로서 「主體」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主體라는 것을 앞세워 權力鬭爭의 敵對者를 제거했고 스탈린格下運動의 과급을 방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1961年부터 시작되는 人民經濟 7個年計劃을 成就하기 위해서 지쳐 있는 北韓住民들을 動員하기 위한 大衆動員戰略과 關聯해서 主體思想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主體思想」은 內容보다는 이것이 金日成體制 維持를 위해 어떻게 活用되고 있는가 하는 戰術的 側面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主體思想」이 풍기는 이미지와 活用目的과 動機는 全然 다르며 여기에 主體思想의 虛構性을 指摘할 수 있다.

그리고 「主體思想」은 北韓住民에게 唯一한 思想으로 強要되는 만큼 主體思想을 통해서 北韓住民을 金日成에게 盲從시키는 武器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것은 唯一思想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排他的 根性을 갖게 한다.

結論적으로 말하면 北韓의 「主體思想」은 金日成 1人獨裁를 合理化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北韓式 表現이다.

#### 나. 勞動黨의 機能과 位置

一般的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共產國家에서는 共產黨이 國家機關 및 모든 公共團體에 대해 指導·監督하고 있다. 레닌은 “人民을 效果的으로 支配하고 領導하기 위해서는 단련된 共產主義者가 必要하며 이러한 集團이 黨이다. 만일 黨이 消滅한다면 프롤레타리아獨裁體制는 存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共產黨의 優越的 地位를 認定하였으며, 1936년에 制定된 스탈린 憲法은 “共產黨이 모든 勞動者들의 諸公共團體와 國家機關의 指導者의 核心을 形成하는 勤勞者의 前衛組織”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스탈린도 蘇聯에서는 共產黨 以外에 다른 政黨이 存在치 않으며 共產黨만이 유일하고도 合法的인 政黨이라고 하는 바 共產黨의 位置를 절대적인 것으로 明示

하고 있다.

北韓에서 勞動黨은 朝鮮人民을 위하고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위하여 全力을 다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勞動黨은 金日成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고 있는 만큼 다른 共產國家에서의 黨의 機能과 位置에 비추어 보면 상이점을 發見하게 된다.

즉 6次黨大會(1980.10.10)에서 改正된 黨規約에 의하면 “朝鮮 勞動黨은 오직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主體思想, 革命思想에 의해 指導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6次黨大會 以前の 規約에서는 이렇게 露骨的으로 明示되지는 않았다. 즉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朝鮮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金日成同志의 主體思想”으로 表示하였다. 말하자면 6次黨大會 黨規約에서는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接頭辭를 빼버린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北韓의 勞動黨의 機能은 共產主義보다는 金日成思想을 앞세우고 있으며 黨의 上位에 金日成이가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金日成의 私黨으로 점차 明示되고 있다.

## 다. 憲 法

北韓은 1972年 12月 27日 改正한 憲法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이 憲法을 「社會主義憲法」이라 부른다. 이 憲法의 特徵은 金日成 1人에게 權力을 集中하기 위해 全體主義的 共產獨裁性向을 반영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면 憲法에서 新設된 制度와 機能을 통해서 權力構造의 制度的 特徵을 알아보자.

먼저 國家主席制度의 新設이다. 憲法 89條에 의하면 國家主席은 國家의 首班이며 國家主權을 代表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憲法 第

6章에 열거한 主席의 權限을 보면 主席은 主權의 最高指導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이며, 이를 直接 指導·監督하고 最高執行部인 政務院을 指導·監督할 뿐 아니라 人民軍最高司令官과 國防委員會 委員長職을 兼하며, 法令·政令公布, 條約의 批准, 廢棄, 外國大使의 信任狀 接受, 特赦權行使 등 行政은 물론 立法, 司法 및 軍事에 걸쳐 모든 核心的 權力을 掌握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權力이 金日成에게 주어질 만큼 이 主席制度는 金日成 1人獨裁를 可能케 한 制度的 장치인 것이다.

둘째로 中央人民委員會라는 機構를 設置하였다. 中央人民委員會는 國家 主權의 最高指導機關으로 規定(100條)되어 있다. 그러나 實際 構成員들은 主席 및 副主席을 除外하고는 勞動黨의 黨政治局員 또는 黨秘書들로 構成되어 있다. 즉 黨의 指導·監督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政權機關과 勞動黨이 分離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勞動黨 優位の 一元的 指揮·監督體系에서 運用되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또 主席이 中央人民委員會의 序列 首位가 되어 委員會를 直接 指揮·監督 統制하며 委員의 選출, 소환을 最高人民會議에 提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主席의 補助機關에 不過하다. 바꾸어 말하면 소위 社會主義憲法에서는 金日成 1人을 補助하는 機構가 新設된 것이므로 그만큼 1人獨裁의 機能이 強化된 것임을 말해 준다.

세째로 政務院은 最高主權機關의 行政執行機關인데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가 指導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07條). 그런데 中央人民委員會가 黨의 政治局, 秘書局員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政務院은 黨의 決議事項을 執行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政務院은 勞動黨에 歸屬되어 있다.

이와 같은 制度的 機能과 位置를 통해서 보면 制度的 次元에서는

黨의 指揮·監督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實際 權力은 金日成 1人에 集中되고 있음을 確認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集團指導體制를 바탕으로 한 中共의 權力構造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前近代的 體制인가를 알 수 있다.

#### 라. 最高人民會議

北韓에서 最高人民會議를 人民의 代議機關이라고 한다. 그래서 北韓憲法은 最高人民會議를 “最高主權機關”으로 規定하고 있다(73條). 이것은 蘇聯의 最高소비에트 또는 中共의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同等한 地位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最高人民會議의 地位는 勞動黨의 政策을 合法化시키기 위한 一種의 舉手機的 機關이다. 따라서 政策決定過程에서 勞動黨이 決定한 一方的 政策만을 支持하는 形式的인 參與에 그친다.

또 權限에 있어서도 過去에 비해서 劣化되어졌다. 즉 主要政策決定權과 任免權 등의 權限이 새로 만들어진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에 이양된 점이 바로 그것을 意味한다.

最高人民會議는 形式的인 選舉節次에 의해 選출된 代議員들로 구성된다. 代議員은 人口 3萬名에 1名의 比率로 選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任期는 4年인데 任期中에 代議員이 死亡했다고 해도 補闕選舉에 의한 補充制度는 없다. 그리고 任期中 “人民의 敵”으로 批判의 대상이 되면 黨의 召喚에 의해 제거된다.

또 82年 2月 28日에 北韓에서는 第7次 代議員選舉를 실시하여 615名의 代議員을 選출했다. 4月 5日에는 이들 代議員을 중심으로 7期 1次 最高人民會議를 開催하여 앞으로 4年間 北韓政權을 끌고 나갈 主席 및 副主席과 總理 등을 選출한 바 있다.

## 5. 金正日體制 構築狀況

北韓共產體制는 점차 金正日世襲體制로 변모하고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金正日은 1980年 10月 6次黨大會에서 黨最高核心部署의 上位 序列에 나타남으로써 金日成의 後繼者로서 公式化되었다. 以後 81년에는 北韓의 各種 紀念行事(예컨대 朝鮮少年團創立 35돌 紀念日, 社勞靑 7次大會, 職業總同盟 6次大會 등)에서 “代를 이어 忠誠하자”는 구호하에 金正日의 政權世襲을 강조하고 있다. 82년에는 金正日을 “卓越한 思想家”로 위장하여 宣傳하면서 金正日의 偶像化를 着手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金正日은 北韓內部 및 外部의 反應을 보아 가끔 “實務視察”이라는 任務를 띠고 黨·政·軍의 幹部들을 대동하고 公式活動을 벌이고 있다.

### 가. 金正日의 行蹟 및 基盤

우선 金正日의 主要 行蹟을 알아보자. 金正日은 1963年 金日成大學을 卒業하였으며, 1964~66까지는 護衛總局에서 金日成 身邊 護衛責을 맡았으며, 1967年~69년까지는 黨組織指導部에서, 그리고 70년에는 黨文化藝術部長 등을 거쳐 73年 9月 5期 7次 黨全員會議(秘密會議)에서 後繼者로 決定되었으며 이때부터 “黨中央”이라는 別稱으로서 2人者의 役割을 해왔다. 그리고 76年~80년까지는 對南工作事業을 관장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金正日의 勢力基盤은 어떻게 構築되었는가?

北韓은 73年 2月부터 黨의 核心靑年들과 大學生들로 구성된 「3大

革命小組」라는 特殊組織을 만들어 黨幹部들을 批判·格下시켜 金日成에 盲從하도록 했으며, 金正日에게 無條件 忠誠케 하는 一大作業을 전개하였다. 74年 2月 25日 金日成은 3大革命 推進을 위해 黨中央이 直接 派遣, 黨組織과 3大革命小組가 協力하여 밀고 나가기로 했음을 밝혔으며, 75年 3月 4日 老幹部들을 도태시킬 것이 아니라 「3大革命小組」運動을 통해 이들을 改造해야 함을 主張함으로써 金正日の 一線政治勢力基盤을 擴大해 나갔다. 따라서 金正日の 勢力基盤은 3大革命小組를 根幹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活動強化가 바로 金正日體制 강화에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權力構造의 改編狀況

金正日이 權力上層部에 등장함에 따라 權力構造上的 變化는 불가피한 것이다. 1973年~75年 사이에 金正日の 側近人物인 林春秋(中央人民委書記長), 吳白龍(勞農赤衛隊司令官), 全文燮(黨政治局員) 吳克列(人民軍總參謀長) 등의 黨序列이 급상승하였다. 즉 序列 32位였던 林春秋가 8位로, 36位였던 吳白龍이 11位로, 24位였던 全文燮이 12位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金正日과 萬景臺革命學院 同期生인 吳克列은 序列 109位에서 27位로 上昇함과 동시에 人民軍總參謀長이 되었다.

또한 最近에 軍部の 肅清作業以後 萬景臺革命學院出身들이 主要職을 차지하게 되었다. 人民武力部副部長 白學林, 人民軍副總參謀長 金江渙이 吳克列과 동창생이라고 한다.

한편 反對派의 地位格下와 肅清이 아울러 나타났다. 즉 金聖愛가 71年 5次黨大會時 67位에서 105位로, 金英柱(黨政治委員)의 脫落,

金東奎(副主席)와 李勇武(軍總政治局長), 楊亨燮(思想擔當秘書) 그리고 유장식의 肅清 등이 그것이다.

또 經濟成果를 통해 金正日의 體制強化를 기도하고 있는 만큼 經濟엘리트의 登場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經濟專門家인 孔鎭泰, 崔載羽 등이 黨政治委員會에 등장하고 있으며, 1981年 9月에는 經濟部署 中心의 政務院機構를 縮小 調整하였다. 道以下の 行政委員會를 經濟指導委員會로 改編한 바 있다.

특히 82年에 와서 變動事項은 4月에 行政機構 改編時에 人民武力部, 社會安全部, 國家保衛部 등 소위 政治保衛機能을 擔當한 機構들을 政務院에서 分離하여 金正日이 直接 掌握하도록 秘書局에 歸屬시켰다.

#### 다. 金正日의 活動狀況

金正日是 80年 10月 6次黨大會에서 그의 地位가 公式化된 以來 81年에 “實務視察”이라는 이름하에 5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에 參與하여 金日成의 소위 “現地指導”를 補完 독려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

그간의 主要 活動狀況을 보면, 金正日의 實務視察이 최초로 公式發表된 것은 81.5.18~22日까지 묘향산地區視察이었으며, 8月 25日에는 非同盟 및 開發途上國家들의 食糧 및 農業增産에 관한 會議場인 人民文化宮殿 視察, 그리고 9月 18日에는 人民大學習堂 建設現場에 實務指導를 위해 나타났으며, 그후 10月 20日에 開催된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7次大會와 11月 27日에 開催된 職業總同盟 6次大會에 參與하는 등 점차 公式活動이 많아지고 있다.

또 82年에 와서는 最高人民會議 第7期代議員으로 選출되었고 4月 14日에는 黨中央委, 最高人民會議合同會議에 參與했다.

그리고 最近에 와서 軍部에까지 影響力을 과시하고 있다. 즉 4月 25日에 人民軍 創建 50돌 紀念行事 및 宴會에 그리고 10月 5日에 人民軍教育機關 敎員들의 모임에 參席하였다.

#### 라. 金正日의 偶像化實態

지금 北韓에서는 80年 6次黨大會때에 金日成의 後繼者로 公式化했던 金正日을 北韓住民과 國際社會에서 認定받기 위해 그의 宣傳을 다양한 方法을 動員하여 강화하고 있다. 이것이 金正日의 偶像化놀음이다.

1980年以前에는 「黨中央」이라는 別稱과 함께 “향도의 별”이니, “미래의 태양”이니 하며 金日成이가 사용하던 “별”과 “태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6次黨大會以後에는 金正日의 偶像化가 점차 가열되기 시작한다. 즉 金日成의 代를 잇는 象徴으로 改名을 하는데, 종전의 金正一의 (一)字를 (日)字로 바꾸어 쓰고 있다(金正一 → 金正日)

특히 최근에 와서는 金正日의 逸話을 날조하여 逸話集을 만들어 宣傳하는가 하면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게 하고 있다(예: 수령 따라 천리, 땅을 따라 천리) 또 「金日成, 金正日德性發表모임」을 各道·郡機關, 企業所單位로 組織하는 등 金正日의 宣傳에 광분하고 있다.

## 6. 結 言

이제까지 北韓共產體制를 政治的 側面에서 살펴 보았다. 즉 金日成 體制의 形成過程과 構造 그리고 金正日世襲體制의 속성을 파헤쳐 보

았다. 北韓은 아직까지도 革命性을 강조하며 主體思想을 통해서 唯一思想을 강조하며 나아가 階級鬭爭을 고취하고 金日成 1人의 偶像化 그리고 族閥과 世襲으로써 前近代的 體制를 못 벗어나고 있으며 한편 好戰性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또한 民族統一의 觀點에서 보면 北韓은 이제까지 단편적으로 指摘한 바와 같이 反民族的, 反民主的이며 非人間的 속성을 가진 體制라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北韓政治의 主人은 金日成이고 1,800萬 住民은 獨裁와 閉鎖된 統治의 울타리안에서 다만 金日成·金正日世襲體制를 위한 勞動의 動員對象으로 存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強力한 金日成 1人獨裁體制라고 해도 취약점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條件에서 지적될 수 있다. 첫번째 條件은 金日成과 그 集團을 이루는 빨치산出身 또는 革命世代들이 사라진 후에 예상되는 變化와 關係해서 추정될 수 있다. 두번째 條件은 北韓이 外部의 자극, 특히 共產圈에서 나타나는 開放化와 自由化의 影響을 받아 變化될 可能性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번째는 80年代의 南北競爭狀況에서 南韓이 壓倒的으로 우세하였을 때 北韓의 民心動向과 關係해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確實性 있는 變化狀況은 빨치산世代의 退陣에서 나타날 것이다. 또한 革命世代인 빨치산世代의 退陣과 金日成의 死後에 나타나는 北韓의 權力體制에 따라 南北關係는 變化될 수 있는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일 金正日이 지금의 金日成의 權威와 權力을 그대로 물려 받아 1人獨裁를 하게 되면 南北關係를 冒險的으로 解決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더욱 불안정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金正日의 1人獨裁보다는 集團指導體制의 出現이 더 確實한 것 같다. 그 이유는 金日成의 族閥內의 複雜한 家族關係 즉 南北對話時 第2人者인 金英柱와 金正日間의 權力鬭爭, 金正日과 金日成 後妻인 金聖愛와의 反目對立 그리고 異腹兄弟들間의 暗鬭 등이 單獨權力掌握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理由는 中共이나 蘇聯에서 毛澤東, 스탈린 死後에 集團指導體制가 나타났다고 하는 事實이 北韓에서도 可能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는 軍部の 反발이 여전하다고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集團指導體制 登場이 더욱 可能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專門家 出身들과 集團指導體制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南北關係는 緊張度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專門家出身들의 合理的, 實利的 立場으로 하여금 南北關係를 緊張緩和 方向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南北關係의 變化를 통해서 보면 統一의 與件造成은 可能해질 수 있으며 이것에 대비해서라도 北韓共產體制를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金學俊, 「韓國問題와 國際政治」(博英社, 1975).
2. 李容弼, 「北韓政治」.(大旺社, 1982).
3. 安秉永, “北韓의 支配理念”, 「北韓政治論」(博英社, 1976).  
「現代共產主義研究」(한길사, 1982).
4.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編, 「北韓共產化過程研究」.
5. 國土統一院刊, 「北韓資料」.
6. 安秉俊, 「北韓共產主義와 中國共產主義의 相關關係 研究」(國土統一院, 1978).
7. 高大 亞研 共產圈研究室編, 「北韓政治體系研究」(1973).
8. “ ”,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1, 2,  
(1972, 1973).
9. 高大 亞研 共產圈研究室編, 「北韓 <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  
(1970).
10. 極東問題研究所編, 「北韓全書」.
11. 北韓研究所刊, 「北韓政治論」(1979).
12. 韓載德, 「金日成을 告發한다」(內外文化社刊, 1965).
13. 金南植, 實錄南勞黨(新現實社, 1975).

☆ 北韓의 出版物(國土統一院所藏)

- 「김일성저작선집」, 1, 2, 3, 4, 5, 6, 7권.
- 「조선로동당략사」(평양, 1979).
- 「정치사건」(평양, 1973).
- 「철학사건」(평양, 1971).
- 「김일성저작집」1권, (평양, 1979).

## 北韓의 政治 (要約)

1. 北韓共產體制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信奉하는 體制이다.
  - 스탈린의 占領地域 共產化 計劃에 따라 北韓에 共產體制가 強制的으로 形成되었음.
  - 北韓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核心인 階級鬭爭 및 暴力革命 路線을 계속 追求할 수 밖에 없음.
  - ※ 소위 “主體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北韓式 表現
2. 北韓共產體制는 金日成 1人獨裁體制이다.
  - 모든 要職을 金日成이 獨占하고 있으며, 權力이 集中되어 있음.
    - 勞動黨 總秘書, 共和國 主席, 軍事委員會 委員長, 政治局 常務委員會 1位, 中央人民委員會 首位
  - 首領決定論: 首領의 決定에 無條件 服從해야 한다는 原則을 세워 1人獨裁 合理化(최근에는 “革命的 首領觀”을 고취)
    - \* 中共은 分權的이며 集團指導體制이나, 北韓은 中央集權的이며 1人獨裁體制이다.
3. 北韓共產體制는 北韓을 “革命基地”로서 構築
  - 3大革命 力量強化(1964)
    - 北韓 革命力量強化
    - 南韓 革命力量強化
    - 國際 革命力量強化
  - 南朝鮮 革命을 위해 北韓을 民主基地(1945)에서 革命基地로 強化宣言(1966)
  - 南朝鮮 革命을 위한 繼續革命 主張
    - \* 中共은 實用主義를 標榜하고 있으나 北韓은 아직도 革命主義를 固守함으로써 前近代的 體制

4. 北韓共產體制은 金日成의 偶像化 및 唯一思想을 基盤으로 하는 體制이다.

- 金日成 神格化 劃策
- 소위 唯一思想 體系를 確立할 것을 黨政策으로 採擇(1967)
- 1967년에는 “黨政策路線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金正日이 登場하는 1973年以後에는 “首領에 대한 忠實性を 끝없이 높이는 것”으로 점차 強化
- \* 金日成 個人崇拜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政治的 後進性を 不脫皮

5. 北韓共產體制은 全體主義的 動員體制이다.

- 1956.12. “千里馬運動”
- 1960. 2. “青山里方法”
- 1961.11. “大安의 事業體系”
- 1975. 9. “3大革命 붉은旗爭取運動”
- 1979.10. “숨은 영웅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 1982. 7. “80年代의 速度戰”

※ 他共產國家는 後期 動員體制에로 轉換하고 있으나 北韓은 前近代的 動員體制임.

6. 北韓共產體制은 世襲體制이다.

- 1973. 2. 金正日 主導下에 3大革命小組를 編成
- 1973. 9. 金正日을 組織 및 宣傳煽動 秘書로 登用
- 1975. 金正日의 生日을 全黨 全民의 祝賀日로 指定
- 1980.10. 勞動黨 6次大會에서 後繼地位 公式化
- 1980.11以後 現在까지 公認化를 위해 偶像化 着手
- \* 現代國家體制에서 容納할 수 없는 王朝體制 또는 獨裁와 專制의 混合體制에로 逆行



# II. 北韓의 經濟

李 世 震

(國土統一院 補佐官)

## 目 次

의 經濟體制와 政策 .....	41
第1部 :	
의 .....	43
1. 經濟體制 .....	45
2.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	49
의 經濟의 構造的 問題點 .....	52
의 言 .....	56
2部 : 南北韓 經濟力量比較 .....	59
1. 序 言 .....	61
2. 1981年度 南北韓 經濟 概觀 .....	62
3. 南北韓 部門別 經濟力量比較 .....	67
가. 經濟活動人口와 國土 .....	67
나. 國民總生產 (GNP) .....	70
다. 鑛物資源 .....	74
라. 에너지 .....	76
마. 産業力 .....	81
바. 食 糧 .....	86
사. 貿 易 .....	89
4. 結 言 .....	95



## II. 北韓의 經濟

李 世 震

(國土統一院 補佐官)

### 目 次

第 1 部：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 .....	41
1. 序 言 .....	43
2. 北韓의 經濟體制 .....	45
3. 北韓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	49
4. 北韓 經濟의 構造的 問題點 .....	52
5. 結 言 .....	56
第 2 部：南北韓 經濟力量比較 .....	59
1. 序 言 .....	61
2. 1981年度 南北韓 經濟 概觀 .....	62
3. 南北韓 部門別 經濟力量比較 .....	67
가. 經濟活動人口와 國土 .....	67
나. 國民總生産 (GNP) .....	70
다. 鑛物資源 .....	74
라. 에너지 .....	76
마. 産業力 .....	81
바. 食 糧 .....	86
사. 貿 易 .....	89
4. 結 言 .....	95



## 第 1 部

# 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



## 1. 序 言

北韓은 아직도 1930年代의 「스탈린」型 經濟行政組織을 보다 충실하게, 그리고 強力하게 模倣하고 있다. 이에 따라 北韓은 住民들의 物質的·文化的 生活水準의 向上보다 赤化統一을 위한 革命武裝力の 增強에, 또 食糧의 自給을 위한 農業開發보다 政治經濟的·軍事經濟的 論理에 따른 重工業 優先과 偏重에, 生産力の 增強과 生産性的 向上을 위한 物的 刺戟(Material Incentive)보다 共產主義的 思想과 道德의 革新(Moral Incentive)에 항상 強制的 選擇의 基調를 두어 왔다. 따라서 北韓의 經濟計劃 및 政策推進類型은 經濟活動에서 競爭이나, 個人의 選好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典型的인 獨裁「모델」(Dictatorship Model)로서 經濟的 合理性보다는 政治的 合目的性을, 技術官僚 즉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의 實用성과 專門性보다는 熱誠黨員 즉, 「레드」(Red)의 黨性和 革命性을 더욱 強調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北韓의 經濟體制와 活動은 우리의 自由資本主義經濟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經濟實態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制約과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나 北韓은 餘他 共產國家중에서도 가장 閉鎖적이고 硬直적인 集團으로서 그들이 발표하는 統計나 資料는 그들의 政策 및 業績을 合理化하여 宣傳과 煽動에 活用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學術的 價値나 信憑性은 거의 疑問視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1965年 以後, 즉 그들의 經濟事情이 결정적으로 沈滯局面에 들어선 이후로는 철저한 保安統制下에 統計數値의 發表를 거의 中斷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급적 과거 北韓이 發表한 統計와 資料를 根幹

으로 하여 기타 資料들을 評價·分析함으로써 北韓의 經濟實態를 客觀적으로 把握코자 하는데 力點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本稿에서는 部門別 經濟實態를 論하기에 앞서 먼저 第1部에서는 北韓 經濟體제의 概要를 簡約적으로 說明하고, 다음에 北韓이 오늘의 經濟的 現實을 형성해 오는 過程에서 어떠한 經濟政策을 전개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北韓의 經濟體制 形成 및 政策展開過程을 검토하여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北韓經濟가 當면한 問題點이 도출되는데, 이를 몇 가지로 要約하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問題點으로 말미암아 巨視的이고도 長期的인 視角에서 볼 때, 北韓經濟가 전체적으로 어떤 變化樣相을 띄게 될 것인가를 豫測하여 봄으로써 北韓 經濟實態 批判의 結論으로 삼고자 한다.

第2部에서는 北韓經濟의 現實을 南北韓 經濟力量比較의 觀點에서 評價·分析하기로 한다. 部門別 實態에 기초한 經濟力量比較는 끝이 없겠지만, 우선 經濟力量을 구성하는 選定된 主要要素別로 計量的 評價方法을 통해 南北韓의 強·弱點을 比較해보고자 한다.

이는 比較評價를 통해 우리 體제의 優越性和 우리 經濟의 成長潛在力量을 立證코자 하는 첫째 目的外에도, 南北分斷과 對決의 現實下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 經濟의 強點과 優越性은 極大化해 나가면서 우리 經濟의 일부 脆弱點은 極小化 내지 修正·補完해 나감으로써 國力을 培養하고, 나아가 平和統一의 착실한 基盤을 닦아 나가는 政策課題導入에 두번째 目的이 있다.

## 2. 北韓의 經濟體制

일반적으로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란 私有財産制度의 기초위에서 價格機構 (Price Mechanism)에 의한 自律的인 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制度的 形態이기 때문에, 個人的 合理的인 利潤追求는 물론 모든 生産單位인 工場이나 企業은 正當한 競爭에 의한 效率的인 經濟活動을 영위하고 있으며, 따라서 國民經濟에 있어서 投資를 포함한 經濟活動의 主體는 個人 내지 民間企業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 經濟體制下에서는 이와 같은 生産手段의 私有를 전면적으로 否定함으로써 資源의 配分은 中央集權的 經濟計劃에 의하여 劃一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共產主義 經濟體制를 計劃經濟 또는 指令經濟라고 부르고 있다. 北韓의 經濟도 「마르크스」主義의 基本理念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 蘇聯을 비롯한 모든 共產主義가 다 그러하듯이 計劃經濟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 經濟體制의 基本的인 特徵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生産手段의 國·公有化를 들 수 있다. 北韓은 이미 지난 1950年代 후반에 와서 모든 個人的 私有財産과 商工業을 그들 특유의 「利用·制限·改造」라는 名目下에 단계적으로 完全히 消滅시켰으며, 壓力과 强制의 수단으로 國營 또는 協同組合에 완전히 吸收하였다고 한다. 이후 公共所有도 점차 國有化해 왔고, 또한 1980年 10月 6次 黨大會에서는 協同農場도 점차적으로 國營化해 나갈 것임을 聲明하고 있다.

北韓에서의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化過程을 보면, 1946年 2월에 조직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이른바 「民主改革」이라는 名分으로 「無

償沒收·無償分配의 原則」에 의해 土地改革과 工場, 鑛山, 鐵道, 遞信, 銀行 등의 重要産業을 國有化하였다. 또한 1947年부터는 産業에서의 國有化部門을 계속 증대시키는 한편, 農業部門에서는 國營農牧場 등을 확대시켜 「社會主義的 改造」를 급진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그러다가 1953年 休戰後부터는 「社會主義 復舊·建設」을 본격화함에 따라 「農業의 集團화와 個人 商工業의 社會主義化」를 더욱 強行함으로써 1958年까지 불과 12년만에 「社會主義的 改造」를 완성시킨 바 있다.

둘째, 前述한 生産手段의 國·公有화와 農業의 集團化를 바탕으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실시하고 있다.

즉 모든 生産指標는 中央計劃當局의 劃一的인 統制·調整下에서 管理되며, 특히 中央銀行이 「원에 의한 統制」를 실시하여 모든 企業의 生産·流通活動을 調整·監督하며, 아울러 販賣製品 및 用役(Service)의 價格도 國家計劃委員會의 價格裁定局에 의하여 公定制로 決定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公定價格制에 의해 惹起된 問題를 金日成 자신도 實例를 들어 指摘하고 있는데, 그 實例는 平安北道 昌城郡所在의 某商店에서는 실 200 ㄱ을 들여서 짠 撚絲織物의 값이 미터 당 3 원이고 50 ㄱ의 실 한토리값은 5 원 40 전이었다는 것이다. 즉 실 네토리에 상당한 실을 꼬아 천을 짜서 染色한 것보다 한토리의 실 값이 倍나 비싸게 價格이 매겨졌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價格問題 이외에도 中央集權的 計劃管理體制는 「機關本位主義·地域割據主義」등으로 代辯되는 上部의 計劃機構와 地方 및 下部 執行機構間的 마찰과 알력은 물론, 計劃機構와 執行機構에 있어서 創意와 能率의 缺如를 초래하고, 官僚主義의 膨湃로 無事安逸과 責任轉嫁

에 급급함으로써 生産性的 低下를 惹起시키고 있는 것이 北韓을 비롯한 共產圈諸國 經濟의 일반적인 特徵이다.

따라서 蘇聯이나 東歐諸國과 最近의 中共에서는 이와 같은 矛盾과 非能率, 그리고 低生産性を 是正하기 위하여 生産企業에 있어 利潤制度의 導入과 더불어 獨立採算制의 全面實施, 生産活動의 創發성과 效率를 提高시키기 위한 決定機能의 下部分散 등, 그들 共產體制가 안고 있는 構造的 矛盾을 是正·補完하기 위한 制度의 改革과 體制의 緩和를 위한 努力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도 第2次 世界大戰 以前에 蘇聯이 취하였던 原始的 形態의 硬直的인 中央集權的 管理體制를 教條적으로 固守하면서, 「要領主義, 條件打發主義, 經驗主義, 技術神秘主義」를 打破해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고 있는 실정이다.

세째, 生産手段의 國·公有化下에 計劃經濟體制를 運用하고 있는 北韓은 對外的으로는 閉鎖的인 「아우타르키」(Autarky) 經濟體制를 그 基調로 하고 있다.

北韓은 1966年 10月 黨代表者會議에서 「社會主義 經濟建設에서 가장 중요한 問題는 經濟的 自立을 강화하는 것이며, 自力更生の 原則에서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 黨의 一貫된 路線」이라고 宣稱함으로써 그들의 孤立主義的 閉鎖體制를 再確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外部로부터의 孤立과 閉鎖體制의 固守는 첫째, 「各國은 綜合的인 産業基盤을 확보해야 한다」는 스탈린의 「1國家社會主義論」을 教條적으로 모방한 것이며, 둘째 1960年代에 北韓이 第1次 7個年計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共產圈內的 理念紛爭으로 인하여 北韓에 대한 中·蘇의 經濟援助가 削減 내지 斷絶됨으로써 經濟計劃 遂行에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되어, 이의 결과로

惹起된 北韓住民들의 不滿要因을 拂拭하기 위하여 金日成은 自立經濟路線을 標榜함으로써 그의 失策을 合理化하고자 할 必要性이 절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土가 협소하고 賦存資源이 부족한 國家에서 對外貿易을 活性化시키지 않는 對內指向的 成長政策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北韓의 經濟에 있어서 가장 큰 隘路의 하나가 이러한 孤立主義의 採擇에 있었음은 自明한 사실이다. 스탈린主義가 自國中心의 經濟를 강화하여 自給自足の 體制를 요구하게 된 것은 資源이 豊富한 蘇聯으로서 어느 정도 그것이 可能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資源이 不足한 隣近國家들을 蘇聯經濟圈에 예속시키기 위한 方便으로 이용코자 한데 起因한다.

예를 들면 2次大戰前 東歐諸國의 對蘇貿易은 約 1%, 東歐諸國·상호간의 貿易은 12%에 불과했으나, 2次大戰後 東歐諸國이 蘇聯의 衛星國으로 편입된 후에는 對蘇貿易이 31%로 늘어났으며, 共產圈 內部的 貿易이 65%로 늘어났다. 이것은 「아우타르키」體制를 내세운 蘇聯의 意圖가 衛星國으로 하여금 對自由圈 貿易을 止揚하고, 對蘇貿易依存度を 높임으로써 그들을 예속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北韓의 경우 資源과 資本 모두가 부족하고 科學技術水準이 落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타르키」體制를 固守하고 對內指向的 開發만을 추진한 결과, 최근의 輸出增大努力에도 불구하고 1981年の 輸出額은 13億弗에도 못미쳐 韓國의 16分の1 水準이다. 또한 70年代에 들어와서는 經濟沈滯를 打開하기 위하여 西方圈諸國과 對外經濟 協力을 試圖하여 外資導入을 促進코자 努力하고 있으나, 對內興件의 未備로 인한 外資受容能力의 不足과 生産活動의 停滯로 인한 償

還能力의 限界直面으로 말미암아 外債償還에 커다란 試鍊을 겪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北韓은 國際市場에서의 威信 및 信賴度는 완전히 失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는 對外指向的 成長과 開發政策을 도외시하는 國家가 아무런 經驗이나 技術의 蓄積없이 무턱대고 外資導入에 依存한다는 것은 지극히 危險한 것임을 단적으로 나타낸 實例라 하겠다.

### 3. 北韓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經濟體制와 經濟政策上的 矛盾을 是正하려는 努力은 現在 東西 兩陣營을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다. 특히 共產圈陣營에 있어서도 蘇聯 共產黨 中央委員會는 지난 1969年 10月, 처음으로 「利潤指向型 經營管理」로 移行하는 조치를 취하였는 바, 蘇聯은 「시스키노」化學工場의 經驗을 토대로 하여, 종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크게 後退시키고 生産單位에 市場競爭原理와 利潤制度를 擴大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시스키노」化學工場을 中央計劃當局의 統制를 벗어난 示範工場으로 지정하고, 同年에 이 工場이 이룩한 成果로서 勞動生産性 87%, 全體生産量 約 70%의 增加를 記錄했다고 發表하였다.

따라서 蘇聯의 「크레믈린」當局에는 이같은 成果를 기초로 하여 점차로 分權的 自由經濟原理를 擴大시켜 그들의 經濟的 停滯性을 脫皮하려는 意圖가 있었음이 당시의 조치로서 분명해진 것이다.

蘇聯經濟에 있어서 企業의 利潤概念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62年 9月, 이른바 「리베르만 (Ivsey Liberman) 論文」으로서 한때 「價格競爭」이 크게 벌어졌으나, 經濟實體의 變動에 대한 共產體制의 矛盾을 인정치 않을 수 없는 客觀的 事實때문에 蘇聯은 마침내 이같은 利

潤制度의 導入을 試驗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生産單位에의 利潤制度 導入은 個人의 自發的 參與와 競爭的 調和를 期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計劃과 統制로 代辯되는 「이데올로기」의 退潮와 더불어 그의 예측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徵候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硬直的인 中央集權의 計劃經濟를 계속 固守하고 있는 北韓은 「社會主義의 完전한 勝利」를 달성한다는 名分으로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急速히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의 物質的·技術的 土臺를 강화한다」는 命題에서 출발하여 「社會主義的 工業化와 人民經濟의 技術的 再建」을 그들 經濟政策의 基本目標로 設定하고 있다. 아울러 自立的 工業基盤을 확보함으로써 社會主義 建設을 앞당기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北韓의 革命基地를 強化하여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達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目標에 따라 北韓은 量的 成長 위주의 戰略下에 重工業優先政策을 採擇함으로써 결국 宣傳效果에 급급하는 生産活動과 産業構造의 跛行性을 초래하여 經濟成長의 鈍化 내지 沈滯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北韓의 經濟現實을 초래한 主要 經濟政策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生産의 量的인 目標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創意와 能率」의 問題를 도외시하는 性向을 深化시켰다. 이같은 현상은 生産品의 質的인 低下와 製品의 單純化現象을 초래하게 되었고, 官僚主義的 生産管理制度의 矛盾이 심각하게 逆機能으로 投影되었다. 그리하여 北韓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政治·道德的 刺戟法과 人間關係的 接近法에 의한 改善의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도 強制성과 規範성을 강

조함으로써 物的 誘因의 提供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둘째, 이제껏 北韓은 閉鎖的 自給自足型 經濟建設을 추진하면서 많은 副作用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한 實例로 특히 石油 化學工業과 電氣電子工業이 落後한 事實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北韓은 70年代에 들어와 6個年經濟計劃을 立案하면서 부터 이에 必要한 資本과 設備投資를 조달하기 위해 어느 정도 對外貿易의 增大와 더불어 經濟協力の 擴大政策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國際秩序에의 適應努力을 전개하였으나 北韓의 對內外的 興件的 未備로 그 實效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外國技術의 內容模倣에 급급했던 北韓이 技術革新의 切迫함을 깨닫고 産業의 系列化까지도 고려하고는 있으나, 先進技術 導入을 위한 體制의 緩和와 開放化의 努力은 하지 않으므로서 所期의 成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째, 北韓이 추구하고 있는 重工業優先政策은 成長과 發展의 段階에 있어서나, 資源配分의 優先順位에 있어서나, 鑛業開發, 基礎施設材工業, 中間原資材工業, 最終消費財工業의 順으로 逆行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生産財工業部門과 消費財工業部門의 隔差를 深化시킴으로써 近代의 工業化의 基本要件인 質의 高度化나 生産構造의 多樣化라든가 聯關産業의 同時的 發展이 어렵게 된다. 그리하여 北韓은 이같은 問題를 해결키 위해 地方政權機關 中心으로 消費財 生産 위주의 地方工業 設立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分權의 管理體系로의 轉換을 다소나마 企圖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責任의 回避와 轉嫁에 급급한 官僚主義風潮의 蔓延과 「黨的 指導」의 強化로 그 效果는 如意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네째, 「國防·經濟竝進策」으로 인한 軍事費의 膨脹現象이다. 이는 「四大軍事路線」의 採擇과 함께 軍事力 增強에 注力해 왔기 때문인데, 이는 制限된 資源으로 「社會主義工業化」를 추진하고 있는 北韓의 입장에서 經濟開發을 위한 投資財源 確保의 蹉跎뿐만 아니라 成長潛在力의 蠶食, 나아가 資源配分構造의 歪曲까지 초래하고 있다.

#### 4. 北韓 經濟의 構造的 問題點

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의 基本方向을 檢討하면서 導出된 慢性的 經濟沈滯와 成長沮害要因을 內在的이고도 構造的인 側面에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計劃經濟體制的 北韓에 있어서는 生産手段의 私有가 허용되지 않으며, 「計劃의 一元化·細部化原則」에 따라 資源의 配分, 價格의 裁定, 職業의 賦與 등은 모두 中央集權的 計劃機構인 「國家計劃委員會」의 「展望計劃과 現行計劃」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北韓의 모든 經濟活動은 劃一的인 計劃과 指令에 의하여 統制·監督되고 있으며, 또한 資源의 配分이 劃一的·人爲的이어서 資源配分상의 合理性和 效率성이 缺如되어 資源의 浪費가 많으며, 價格은 中央計劃當局에 의하여 商品의 需給調節과 消費抑制를 위하여 裁定됨으로써 價格은 生産·消費過程과 乖離되어 있다. 그리고 이른바 「勞動價値說」에 입각한 勞力評價基準은 그 自體의 矛盾으로 商品의 品質을 測定할 基準이 없기 때문에 品質管理가 없는 量的인 目標達成에만 치중하게 되며, 나아가서 利潤動機가 없는 生産活動은 生産單位의 創意와 能率을 排除함으로써 生産性を 低下시키는 主要要因이 되고 있다.

둘째의 問題點으로는 經濟力 規模가 內需市場을 중심으로 一定水準

에 머물러 있고, 상대적으로 資源과 資本이 부족하며 技術水準이 低級한 北韓狀況에서는, 國際分業의 利益을 圖謀함으로써 內延的·集約的 成長(Intensive Growth)을 期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原始的인 「아우타르키」體制를 堅持함으로써 經濟成長 및 發展이 限界에 直面하였을 뿐만 아니라, 産業施設과 技術面에서도 심각한 落後現象을 招來하여 經濟의 원활한 循環과 活動이 麻痺되고 있다.

세째, 先進工業國의 工業化와 經濟開發戰略이 社會間接資本 擴充의 바탕위에서 日用消費財를 충분히 供給할 수 있는 輕工業을 우선 발전시켜, 이에서 蓄積된 資本과 技術 및 開發經驗을 基盤으로 生産財를 생산하는 重工業을 開發·育成하는 方向으로 유도하여 産業間聯關效果를 極大化함으로써 점진적인 産業構造의 有機的 高度化政策을 추진해 온 반면, 北韓은 對南武力赤化統一을 위한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優先政策을 취함으로써 重工業과 輕工業間的 隔差와 아울러 産業構造의 不均衡을 惹起하여 원활한 産業生産과 擴大再生産을 期할 수 있는 推進力을 상실하여 버렸다.

네째, 北韓은 重工業優先과 더불어 「國防·經濟竝進策」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經濟力 規模에 비하여 過多한 즉, GNP의 24%에 해당하는 軍事費를 投入함으로써 投資財源의 부족을 惹起하였고, 이 軍事費 또한 投資의 乘數效果를 통한 擴大再生産效果를 기하지 못하는 經濟循環上의 純損失에 불과하여 經濟活動 전반에 걸쳐 그 副作用을 끼치고 있다.

다섯째, 60年代 初盤까지의 北韓의 經濟成長은 中·蘇의 援助와 「社會主義勞力競爭運動」을 통한 理念的, 思想的 緊張의 高度化로 勞動強度를 增大시키고, 또한 勞動生産性を 向上시키는 方法을 통해 이룩되었으나, 60年代 中盤以後 勞動意志와 勞動生産性 向上이 限界에 직면

한 외에도 物的 誘因의 缺如로 住民들의 消費生活 向上에 대한 慾求가 膨湃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 또는 補填할 裝置와 手段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人間資本(Human Capital)의 부족과 經濟意志(Will to Economize)가 低落됨으로써 經濟沈滯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勞動意志와 勞動生産性的 低落을 克服하기 위하여 「새 기준·새 기준 창조운동,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운동, 3大革命 붉은기 쟁취운동」등의 口號를 내걸고 「協同生産의 規律強化, 技術革新運動 展開, 勞動定量(Norma)提高」등의 「經濟組織事業」을 강화해 나가는 一連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産業設備가 老朽化된 데다가 生産工程間의 不均衡이 深化되고, 外貨枯渴로 인해 先進設備와 技術導入이 困難한데 더불어 原資材와 部品の 供給이 원활치 못하여 그 實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勤勞者, 事務員들의 勞動忌避現象이 蔓延되어 生産意慾 또한 減退되어 있으므로 根本的인 勞動條件의 改善과 生産設備의 交替, 先進技術의 과감한 導入없이는 生産單位上의 生産性 提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기나 現行 第2次 7個年經濟計劃의 遂行에 있어 勞動生産性的 經濟成長寄與度を 75%로 策定하고 있는 北韓으로서 現在의 與件下에서는 이러한 目標가 達成되기란 不可能하다.

여섯째, 1961년부터 시작한 第1次 7個年經濟計劃을 3년이나 연장하여 1970년에야 終結지은 北韓은 그동안 經濟計劃 遂行上의 蹉跌을 補完코자 1971년부터 시작한 6個年經濟計劃의 目標達成에 지나치게 급급한 나머지 外資의 受容能力과 償還能力의 檢討도 없이 同期間中 短期貿易信用을 포함하여 21億7千萬弗의 外資를 導入하였으나, 그 償還能力을 喪失하게 됨으로써 1975年 이후 對西方延滯事態가 續出하였다. 이같은 北韓의 外債累積과 延滯事態는 「自力更生」

의 굴레 속에서 무리하게 施設材를 도입한 理由외에도, 同 施設材의 設置 및 運用技術 未熟으로 인한 操業短縮과 稼動中斷, 北韓의 主宗 輸出品目인 鉛·亞鉛 등 非鐵金屬의 國際時勢, 下落과 輸出品 質의 粗惡 등으로 인한 國際競爭力 微弱에 기인한 輸出不振과 外貨獲得努力 失敗에 기인하였다 하겠다.

그리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北韓은 西方債權國에 대해서는 北韓 商品의 輸入을 強要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외화벌이돌격대」를 各 里·洞과 人民軍 梯隊別로 組織하여 鎭승가축, 特用作物, 砂金 등 外貨獲得源泉을 최대한 발굴하는 등의 輸出增大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의 實效도 미미하여 輸出이 크게 伸張될, 또한 外債難이 단기간에 解決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北韓經濟의 構造的 問題點을 指摘해 볼 때, 결국 北韓經濟는 根源的인 矛盾의 是正을 위해서는 體制의 緩和나 政策轉換의 必要性이 불가피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北韓은 이같은 根本的인 問題의 해결보다는 對南緊張造成으로 北韓體制 內部的 瓦解를 방지하고 勞力動員體制를 더욱 強化하는 한편, 對西方接近外交를 통하여 그들의 當面한 經濟的 危機를 克服하려고 試圖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諸般 問題點을 안고 있는 北韓이 어떻게 自體修正과 改革을 통하여 80年代 이후의 艱難한 經濟難局을 打開해 나갈 것인가에 관하여 巨視的, 長期的인 側面에서 그 變化要因을 중심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第1部の 結言으로 삼고자 한다.

## 5. 結 言

制限된 資源, 小規模의 經濟單位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軍事費의 負擔과 自給經濟體制의 固守로 말미암아 經濟成長과 發展에 失敗할 수 밖에 없었던 北韓은 向後 이러한 落後相과 沈滯를 止揚하기 위하여는 閉鎖體制로부터 開放體制로 移行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에 直面해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對外貿易의 增大와 先進科學技術 및 設備의 導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點의 認識과 打開方案 모색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理由는 金日成·金正日父子의 世襲體制를 더욱 공고히 構築하고, 그 政權基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主體思想」이라는 허황된 政治的 「이데올로기」를 固守하여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져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經濟的 改革이 東歐를 위시하여 최근의 中共의 例에서 보듯이 그들의 政治·社會的 改革과 無關하게 進行될 수 없는 內在的 制約性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 때문이다.

根本적으로 北韓體制의 原動力은 政治的 「이데올로기」에 있기 때문에 經濟體制와 政策은 그들 權力集團의 目的을 遂行하기 위하여 運營될 뿐만 아니라, 軍事力 자체도 이제껏 그들의 政治路線을 관철하기 위하여 動員되어 왔으므로, 政治 「이데올로기」側面에서 본다면 北韓의 經濟體制나 政策方向이 變化할 可能性은 稀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보아 抗日「빨치산」중심의 既存 權力集團의 死亡 또는 政治一線에서의 退陣과 金正日 登場以後, 激化해가는 權力暗鬪 등으로 인한 權力體系의 再編성과 中共의 現代化 努力에 따른 波及效果와 더불어, 서서히 登場하고 있는 「테크노크라트」勢力的 強力한 浮

上과 累積된 自體矛盾의 是正을 위한 政策的 努力이 集中될 때에 北韓社會의 變化促進要因이 變化抑制要因보다 強하게 作用하여, 南北對峙의 狀況의 認識의 범위내에서 「調整期 또는 緩衝期」라는 名目下에 部分的 合理化·實用化의 改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可能性은 內在하고 있다 하겠다.

여기서 「變化促進要因」이란 産業化에 따른 「테크노크라트」勢力의 浮上和 이들을 중심으로 한 利益表出과 集合, 그리고 政策前面에 대두될 實用主義와 合理主義의 性向, 貿易 등의 對西方經濟 交流와 協力を 통한 自由世界의 思潮 및 價値의 流入과 住民生活 欲求의 增大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變化抑制要因」은 이른바 「主體思想」, 「金日成 唯一思想」 및 그네들의 革命傳統의 固守를 위한 政治的 「이데올로기」와 그를 追從하는 「레드」들, 南北對峙의 狀況 및 競爭的 敵對關係, 教條的 分配政策의 持續, 金正日의 權力 承繼上의 名分論理 등을 指摘할 수가 있다.

어쨌든 80年代는 우리들의 自主的인 平和的 統一基盤 造成努力이 傾注되어야 할 年代이며, 또한 戰爭의 恐怖로부터 解放되어야 할 年代임에 비추어, 北韓社會를 점진적으로 開放시킴으로써 南北韓間의 緊張을 緩和하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相互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を 主導的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바,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自體力量을 키워 나가기 위해 民主福祉國家建設과 正義社會 具現努力을 倍加해야 할 뿐 아니라, 上述한 바 있는 80年代 北韓의 變化促進要因을 誘導해 나가면서, 아울러 變化抑制要因을 除去 내지 極小化시키는 方向으로 우리의 슬기와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 第 2 部

# 南北韓 經濟力量 比較



## 1. 序 言

經濟力이란 한 나라가 國民의 財貨와 用役에 대한 欲求를 충족시키고, 그 나라 軍의 現代化에 필요한 造兵, 人力, 軍需 및 技術支援을 통해 組織化된 軍事力を 보유할 수 있게 하는 基底가 된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나라마다 投資와 交易을 통해 相互協力을 꾀한다. 한 나라의 生活水準은 國內經濟活動뿐만 아니라 國際去來를 통한 資源과 市場의 確保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이러한 特質을 지닌 經濟力은 經濟生活의 多様な 局面에 걸쳐 여러가지 觀點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複合的인 概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測定은 수월치가 않다. 資源과 經濟構造의 效率性和 函數關係에 있는 國富와 生産力은 危機에 처했을 때, 그 나라의 기민한 適應力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經濟的 潛在力은 오래 끄는 紛爭속에서 軍事力を 지탱해 줄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하다. 紛爭이 발발했을 때 軍事目的에 이용될 수 있는 經濟的 潛在力은 승용차 대신 戰鬪機나 「미사일」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이 資源과 다른 可用能力을 얼마나 탄력있게 轉換시킬 수 있는가에 판가름이 난다. 또한 한 나라의 經濟力에 대한 또 다른 評價基準은 그 나라의 貿易構造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經濟水準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原資材와 食糧 등 生必需品에 대한 自立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經濟力은 강한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平常時의 先進産業社會에 있어 이같은 自給自足은 資産이라기 보다는 經濟的 犧牲이 강요되는 負擔이 된다. 즉 國際交易이 순조로운 때에 交易과 投資를 많이 하는 나라는 自國民의 生活水準을

向上市킬 뿐만 아니라, 財貨나 資本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 實質的인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危機에 부딪혔을 때는 自立能力이 하나의 資産이 된다. 그것은 對外貿易과 投資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經濟的으로 한 나라에 중요한 要素가 다른 나라에서도 重要視되는 것은 아니다. 즉 開發途上國에서는 「시멘트」가 工業成長에 큰 힘이 되지만, 先進國에서는 技術集約産業이 훨씬 유리한 것과 같다. 따라서 南北韓의 經濟力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經濟發展의 측면에서 관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南北韓 分斷과 敵對狀況의 持續에서 起因하는 諸般 特徵을 看過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比較·評價하는데는 平常時와 紛爭時에 動員될 수 있는 經濟的 顯在力과 潛在力을 評價할 수 있는 主要變數들이 選定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經濟活動의 結果로 創出된 GNP 比較뿐만 아니라 生産要素의 投入과 財貨의 產出能力比較도 併行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無形的 要素 즉 精神的인 힘으로서의 經濟開發戰略 (Strategy)과 經濟意志 (Will)의 評價가 중요하나, 이는 第1部の 內容으로 대신한다.

## 2. 1981年度 南北韓 經濟 概觀

南北韓 經濟力을 比較·評價함에 앞서 1981年度 南北韓의 經濟全般에 걸친 動向과 實績, 그리고 問題點을 우선 概觀해 보기로 한다.

## 가. 韓 國

1981년은 韓國經濟가 1980년의 「마이너스」成長에서 다시 回復基調로 돌아선 한 해였다. 安定化施策의 시련속에서도 年間 6.4%의 實質成長을 기록하였고, 物價水準도 異例적으로 낮아 安定基調를 構築하기 시작하였다. 輸出은 目標 205億弗을 上廻하는 213億弗을 달성하였으며, 輸入은 國際原資材價格의 安定과 不況에 따른 需要減退로 261億弗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國際收支側面에서 본 貿易收支赤字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改善된 30億弗에 머물렀다.

이처럼 主要總量指標는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호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3년째 계속된 安定化施策의 추진으로 企業과 家計 등 個別經濟主體의 어려움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는 第2의 「에너지」波動과 1980년의 米穀의 凶作, 累積되어 온 經濟의 構造的 問題點 등, 移越된 負擔을 안고 출발한 過渡期的 狀況속의 어려움이었으며, 또한 指標와 實物흐름과의 時間的, 感覺的 乖離에서 緣由한 것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過程에서도 1981년에 6.4%의 成長이 가능했던 것은 農産物의 相對的 豐作, 그리고 海外要因의 安定에 起因하는 바가 컸다. 1981년중 原油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主要原資材의 輸入物價도 5.2%上昇에 그쳤다. 이에 힘입어 國內物價가 安定되고 또한 賃金의 相對的 安定을 가져와 沈滯속에서도 安定化基盤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결국 1981年 韓國經濟는 成長, 物價, 國際收支가 당초 展望보다 好轉되고, 安定化의 高동속에 市場經濟의 自律的 運用基盤造成을 위한 각종 政策들이 추진된 한 해였다. 公正去來制度和 金融自律化가 추진·실시되었으며 外國人과의 合作銀行設立도 큰 진전을 보았다. 또 産業支援의 合理化를 위해 租

稅減免法이 개정되고 産業支援制度의 改編을 위한 産業政策審議會가 構成되어 活動에 들어갔다. 이러한 韓國經濟體質의 改善과 安定化努力, 그리고 「第2의 跳躍」을 위한 새로운 國民經濟發展意志는 1982年 부터 시작된 「第5次5個年經濟社會發展計劃」속에 結集되어 이의 內實을 다져 나가게 될 것이다.

#### 나. 北 韓

現行 第2次7個年計劃의 4次年度인 1981年の 北韓經濟는 官僚主義, 行政萬能主義 등의 각종 非能率이 蔓延한 가운데 外貨不足으로 인한 原油, 「코크스」등 必須資源의 導入이 不振함에 따른 「에너지」 및 原資材供給蹉跌과 産業施設의 老朽로 各級 生産工場의 稼動率이 극도로 低下되고, 또한 繼續적인 軍事力增強에 따른 과다한 軍事費支出로 開發投資資金의 부족이 겹쳐 全般的인 沈滯의 局面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해였다.

이를 部門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行 第2次7個年經濟計劃의 成長目標는 年平均 9.6%로 計劃되고 있으나, 1981년에는 工業部門이 -11%의 負의 成長을 나타냄으로써 전체적인 實質經濟成長率은 2%에 그쳐 70年代의 年平均成長率 5%內外에는 크게 未達하였다. 그리하여 GNP規模는 136億弗, 1人當GNP는 750弗水準에 머문 것으로 評價된다.

둘째, 에너지部門은 既存炭鑛들의 坑道の 深部化, 採炭施設의 老朽 등 採炭條件의 惡化로 石炭增產率이 점차 鈍化되어 가던 중, 특히 1981년은 施設補修, 採炭人力不足 등으로 例年에 비해 낮은 水準인 2,850萬屯 생산에 그쳤다. 原油는 期間中 336萬屯 導入을 計劃하였으나

實際導入量은 208萬屯에 불과하여 所要量의 切半水準에 그쳤다. 이는 中·蘇로부터의 原油導入이 원활치 못하였고, 原油導入先의 多邊化를 위해 1980년부터 시작된 이란産 原油導入도 備船과 荷役 및 貯油施設不足으로 不振하였던 이유외에, 原油導入代錢의 負擔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電力은 水力發電設備의 老朽로 인한 故障의 頻發과 水力發電爲主의 電力供給體系에서 오는 電力供給의 不安定性 및 火力發電所 燃料인 石炭의 需給蹉跌과 適期供給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供給電力의 不足을 겪었다.

세째, 工業部門은 「化學工業, 金屬工業, 輸出, 大補修」등 「金正日 4大 施政方針」의 강력한 遂行促求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및 原資材 供給蹉跌, 産業設備의 稼動率 低調, 勞動生産性 低落, 經濟管理 및 運營의 硬直性 등으로 말미암아 計劃目標 對比 60%水準의 成果밖에는 거두지 못해 負의 成長을 記錄할 수 밖에 없는 低調한 形편이었다

네째, 食糧生産과 需給面에서는 1980년의 大凶作에 비해 30% 이상 增收된 510萬屯의 穀物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期間中 氣候條件 등 營農條件이 良好하였던 가운데 適期에 모내기과 秋收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農業生産을 전반적으로 볼 때 育種事業不振, 地力弱화, 土質의 酸性化加速과 寒冷前線의 來襲 등으로 인하여 農業生産成長이 2.2%의 人口增加率을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評價된다. 그리고 食糧의 絶對量不足을 補填하기 위하여 蘇聯, 印尼, 프랑스 등지에 年間 20萬~30萬屯의 쌀을 輸出하고, 대신 40萬~60萬屯의 小麥등 雜穀을 導入하고 있으며, 戰爭備蓄米 確保를 名分으로 하여 1980년 1월부터 1日 100g씩의 減量配給을 實施함으로써 穀物需給의 均衡維持에 腐心하고 있다.

다섯째, 對外經濟面에서는 1978~80년간은 輸出增大政策에 따라 急

速한 輸出伸張을 보여 1980년에는 14億7千萬弗의 輸出高를 記錄하였으나, 1981년에는 前年度 實績에도 못 미치는 12億6千萬弗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注目할 것은 1980년 이후 武器輸出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1981년 한 해만 해도 武器輸出額은 2億弗을 上廻한 것으로 判斷된다.

貿易收支는 1978,79년도는 어느 정도 均衡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부터는 다시 年間 3億弗 이상의 赤字를 나타냄으로써 外貨事情은 더욱 惡化되고 있다. 그리하여 北韓은 對中·蘇債務 10億弗과, 歐洲銀行團 등 對西方圈債務 20億弗 등 都合 30億弗의 外債償還壓力을 받고 있어 이를 1989년까지 分割償還하기로 合意는 하였으나, 對日債務를 비롯한 對西方圈債務에 대한 分割償還履行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遲延시키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持續的인 經濟沈滯의 諸問題點을 打開코자 1981년 後半 이후부터 中央經濟部處의 縮少調整 및 地方의 道級 「經濟指導委員會」設置로 指令體系를 一元化함으로써 經濟運用的 改善을 통한 生産活動의 活性化를 추구하는 가운데, 對內的으로는 原資材供給增大를 위한 農業 및 採取工業과 化學工業部門의 增産에 政策的 努力을 傾注함으로써 內部 潛在力의 最大動員을 꾀하는 알방, 對外的으로는 合作投資誘致를 비롯한 對西方經濟協力을 選別的으로 試圖하는 등, 成長의 突破口를 마련코자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軍事力增強이 계속되는 가운데 現水準의 軍事費負擔이 繼續된다면 擴大再生産을 위한 內資動員이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고, 國際信用度の 下落으로 外貨導入도 곤란하므로 開發投資資金의 不足은 더욱 深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全般的으로 經濟體制와 政策上의 構造的 問題點과 더불어 經濟管理運用上的 硬直性, 勤勞者들의 勞

動忌避現象, 科學技術水準의 落後 등으로 인하여 現在 推進中인 第2次 7個年經濟計劃도 지난 6個年經濟計劃과 같이 1983년중에 「成果的으로 達成하였다」고 宣傳만 하는 가운데 이를 中斷할 가능성이 濃厚하며, 이에 따라 金正日의 權力承繼作業과 관련하여 1~2年間の 實質的인 「調整期」를 두고서 1989년을 目標年度로 한 「社會主義經濟建設 10大 展望目標」와 「4大自然改造事業」을 중심으로 좀 더 實現possible한 새로운 經濟計劃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 3. 南北韓 部門別 經濟力量 比較

#### 가. 經濟活動人口와 國土

1981年度 南北韓의 經濟概觀에 이어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構成하는 要素로서 經濟活動人口, GNP, 에너지 등 諸部門別 能力내지는 實績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한 나라의 力量을 評價함에 있어서 첫번째로 꼽히는 것은 人口이다. 人口란 民族國家로서의 生命을 불어 넣어주는 人間의 共同體이다. 이는 또한 經濟的인 側面에서 볼 때 個個의 能力과 科學技術習得力은 資源을 活用하여 物質的 富를 創出하고, 나아가 文化創造를 위한 政治·社會的 傳統을 다져나간다. 그러므로 社會成員으로서, 經濟活動主體로서 個個人의 精神과 能力은 장기적으로 볼 때 一國이 지닌 具體的이고 物質的인 資源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評價될 수 있다. 그러므로 南北韓의 經濟力을 評價함에 있어 人口 특히 經濟活動人口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南北韓의 人口는 1981년 年央人口(Midyear Population) 基準으로

韓國이 3,872 萬名, 北韓은 1,809 萬名으로 推計되고 있으며, 人口增加率은 韓國이 1.57%, 北韓은 2.23%로, 北韓이 韓國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중 經濟活動人口, 즉 14 歲이상 人口중 收入을 目的으로 經濟活動에 從事하는 人口는 韓國이 1,471 萬名으로 總人口의 38%, 14 歲이상 人口 對比의 比率, 즉 經濟活動參加率은 56.6%이다. 이에 비해 北韓은 經濟活動人口란 概念適用이 곤란하나, 國際的 通用基準인 14 歲이상 人口中 未就業家庭主婦, 學生, 老弱廢疾者, 軍人, 收監者를 除한 經濟活動人口는 816 萬名으로 推計됨으로서 總人口의 45.1%, 經濟活動參加率은 70.2%에 이르고 있어 韓國은 물론 蘇聯이나 東歐諸國의 경우보다 相對적으로 多少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北韓의 經濟活動人口가 絶對的인 數値面에서는 韓國보다 적다하나, 總人口對比率과 經濟活動參加率의 面에서 韓國보다 높은 理由는 1970년 11월 第5次黨大會에서 「女性들을 부엌으로부터 解放시킨다」는 決定의 採擇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家庭主婦가 産業에 동원되어 生産活動에 從事하게 되었으며, 또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敎示와 「60 青春, 90 還甲」의 煽動口號에 따라 社會扶助의 대상인 老人들도 거의 모든 生産活動에 參與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人民警備隊를 비롯하여 正規軍兵力의 過多保有와 「特別獨裁對象區域」으로 불리우는 集團收容所 및 敎化所에 收監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 이 部門에서의 非經濟活動人口의 幅은 크다 할지라도, 上記한 家庭主婦의 強制的 就業과 죽을 때까지 勞動義務가 隨伴되는 老齡經濟活動人口때문에 北韓의 經濟活動參加率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高率의 經濟活動參加率에도 불구하고 強制的 動員社會와 閉鎖社會에서 야기되는 勞動生産성과 그 能率의 低下는 피

치 못하는 문제이다.

이는 體制内部의 構造的 問題點 외에도 科學技術水準의 落後, 産業 施設의 老朽에도 크게 起因하지만, 주요원인은 物的 「인센티브」가 적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消費財의 不足으로 誘因裝置가 有名無實하기 때문에 派生되는 勞動意志와 生産意慾의 減退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狀況아래에서 최근에는 工場企業所의 빈번한 故障과 修理에 의한 操業中斷 및 原資材供給蹉跌에 의한 稼働率低調로 昨今の 經濟 沈滯와 함께 勞動力過剩現象을 초래하여 심각한 失業問題와 遊休人力 活用問題에 직면해 있다.

그리하여 北韓은 이 問題의 해결을 위하여 1981년 10월 黨中央 委員會 第6期 4次會議에서 採擇된 「4大自然改造事業」이라는 名目下에 剩餘勞動力을 西海岸의 干瀉地開墾과 野山 및 遊休地開發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問題의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이는 社會的 不安要素로도 등장하고 있다.

<表 1 >

人 口

( 1981.7.1 현재 )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 韓國 : 北韓 )
總 人 口	萬名	3,872	1,809	2.1 : 1
人 口 增 加 率	%	1.57	2.23	-
經 濟 活 動 人 口	萬名	1,471	816	1.8 : 1
經 濟 活 動 參 加 率	%	56.6	70.2	-

國土 역시 外形的 國力評價의 基礎가 된다. 이는 經濟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賦存資源을 제공하고, 生産과 生活을 위한 空間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面積은 韓半島 全體가 22萬餘km<sup>2</sup>인데, 이 중 韓國은 99,016 km<sup>2</sup>이고, 北韓地域의 面積은 122,370 km<sup>2</sup>로서 韓國이 全國土의 45%, 北韓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國土의 利用面에서는 韓國의 경우 상대적으로 平野地帶가 많고 地形地勢가 완만하며 氣候條件 또한 좋아서 農水産業, 交通運輸面에서 유리한 立地條件에 있다 하겠다. 더욱이 좁은 國土이지만 國土의 綜合的 利用과 開發에 따라 全天候農業施設의 擴充과 全國이 1日生活圈에 속하는 高速道路網의 擴充, 航空의 發達로 國土를 效率적으로 活用하고 있다 하겠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國土利用에 불리한 山岳地帶의 過多와 狼林山脈으로 兩分되어지는 東西經濟圈의 分離와 아울러 東西海岸의 遮斷 등의 불리한 條件이 開發에서의 障礙要因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輸送上의 隘路가 심각하여 「3大輸送·3化輸送方針」의 貫徹과 「4.15無事故·定時·牽引超過運動」등을 전개하는 일방, 鐵道電氣化에 注力하고 있으나 隘路要因의 解消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鑛物을 포함한 地下資源賦存에 있어서는 石炭, 鐵鑛石, 鉛, 亞鉛 등 主要戰略資源의 대부분이 北韓地域에 偏在되어 있는 利點외에도, 江·河川의 水資源도 豊富하여 資源關聯産業의 立地條件은 韓國보다 월등히 유리한 立場에 있다 하겠다.

#### 나. 國民總生産(GNP)

한 나라의 經濟力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한 가장 포괄적인 方法

은 年間 生産去來된 財貨와 用役의 總額, 즉 國民總生産을 比較하는 것이다. 開放社會에 있어 GNP는 情報媒體에 의해 變질나게 이용되어 政策立案者뿐만 아니라 大衆에게도 친숙한 具體的 測定基準이 되고 있다.

GNP는 단순한 物質的 可用能力的 척도만은 아니다. GNP의 크기와 成長은 生活의 質에 影響을 미치는 用役도 포함되며, 한 나라의 管理, 技術的 能力과 經濟發展에 投入된 두뇌의 힘에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GNP에 의한 總量概念의 經濟力評價方式은 한 나라의 經濟的 特殊性을 외면하기가 쉽다는 점을 看過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쨌든 南北韓은 體制의 相異와 開發戰略에 있어서의 현저한 差異는 있으나 쿠즈넛츠(Simon Kuznets)類型的 國民所得概念에 따라 GNP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81년 韓國의 GNP는 622億弗이며 1인당GNP는 1,607弗인데 비해, 北韓의 GNP는 136億弗, 1人當GNP는 750弗水準으로 推計됨으로써 GNP는 北韓이 韓國의 22%, 1人當GNP는 47%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GNP의 현저한 隔差는 韓國經濟가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年平均 8% 이상의 高度成長을 達成한데 비해, 北韓에 있어서는 投資率이 30%内外의 高率임에도 불구하고 非效率的인 投資計劃에 의한 資本의 浪費 등, 諸要因때문에 4~5%의 成長을 하는데 불과하였으며, 최근에는 産業構造의 不均衡이 深化되고 「에너지」등 原資材의 供給이 不振하여 成長이 더욱 鈍化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GNP에 대한 軍事費負擔은 韓國의 경우 6.3%水準으로 이도 높은 편이어서 韓國經濟의 防衛費負擔은 經濟社會發展의 主要制約要因으

로 되고 있으나, 北韓의 경우는 世界에서 제일 높은 24%水準에 달해 그 負擔은 엄청나게 높다.

北韓의 軍事費를 그들이 公式的으로 發表하는 豫決算報告書에서 살펴보면, 1981년 總財政支出中에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人民經濟費는 61.3%, 社會文化施策費 22.0%, 機關管理費는 1.9%가 支出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軍需産業開發費를 비롯한 軍事投資費 등, 軍事費의 切半이상이 人民經濟費 등 他費目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調整하여 보면 軍事費支出은 財政規模의 30.9%에 달해 金額上으로는 32.4億弗에 달하는 것으로 分析된다.

1966년부터 北韓의 歲出構成比를 그들의 公式發表만 가지고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966년의 경우 人民經濟費가 68.4%, 軍事費가 10.0%이었으나,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人民經濟費가 44~50%로 減少되면서 軍事費가 일약 31~32%水準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1972년 이후에는 다시 人民經濟費가 55%이상으로 늘어나면서 軍事費는 15~17%基準으로 激減되고 있다.

이와 같이 軍事費가 時期에 따라 크게 變化하는 이유는 必要에 따라 軍事費가 他費目에 은폐되는 등, 對內外的 狀況과 宣傳目的에 따라 計數가 造作되기 때문이다.

즉 1966년까지 「民族保衛費」라고 부르면서 財政支出중 10% 이하로 발표해 온 軍事費를 1967년부터 「國防費」로 改稱하고 그 構成比를 30.4%로 대폭 증가시켜 발표한 것은 從前的 人民經濟費 등에 일부 은폐하였던 것을 현실적으로 드러내 놓은 것으로서, 60년대 初盤부터 中·蘇紛爭이 激化됨에 따라 北韓이 「自主路線」을 標榜하면서 南侵野慾을 노골화한데 起因한 것이다. 그후 1972년부터

3. 南北韓 部門別 經濟力量比較

갑자기 軍事費가 切半水準으로 減少되고 人民經濟費가 다시 증가한 것은 東西和解 (Detente)와 南北赤十字會談 등 一連의 南北對話와 接觸에 따라 對外宣傳을 고려하여 「平和이미지」扶植을 위하여 軍事費의 一部를 人民經濟費 등 他費目에 은폐시켰기 때문이다.

그 實證으로는 軍事經濟體制의 北韓에 있어서 軍事費支出 自體가 下方硬直性を 띄고 있는 외에도, 1972 년이후 人民經濟費가 急增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北韓經濟의 어려움은 더욱 加重되어 外債償還不能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반면 軍事費는 減縮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兵力數를 비롯한 軍裝備는 대폭 增大됨으로써 戰爭準備를 위한 人的·物的 動員이 계속 強化된 矛盾이 이를 反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表 2 >

GNP 와 軍事費

( 1981 년말 현재 )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 韓 國 : 北 韓 )
G N P	億 弗	622	136	4.6 : 1
1 人 當 G N P	弗	1,607	750	2.1 : 1
實 質 成 長 率	%	6.4	2.0	-
軍 事 費	億 弗	39.3	32.4	1.2 : 1
軍 事 費 / G N P	%	6.3	23.8	-
國 民 1 人 當 軍 事 費 負 擔	弗	101	179	1 : 1.8

다. 鑛物資源

資源의 높은 對外依存度는 일반적으로 불리한 經濟與件으로 看做된다. 반대로 다른 나라가 필요로 하는 主要鑛物이 多量 埋藏되어 있거나, 아니면 國內自給 可能한 量이라도 埋藏되어 開發·生産된다면 經濟的으로 유리한 與件을 만들어 낼 수 있다. 鐵鑛石, 銅, 보크사이트, 크로마이트, 우라늄 등 主要戰略鑛物은 현대 工業社會에서 널리 쓰이는 만큼 특히 중요하다. 鐵鑛石은 1國의 基幹産業이 되는 重工業 및 武器製造에 빼놓을 수 없으며, 또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銅, 보크사이트 등 다른 鑛物은 鐵鑛石보다 그 重要度の 比重이 낮기는 하나 特殊製造分野에서는 매우 重要하다. 또한 이러한 鑛物은 重工業뿐만 아니라 輕工業部門에도 必須不可缺의 要素이다. 그리고 우라늄은 核燃料로 사용됨에 따라 점차 그 重要性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鑛物資源은 産業力을 건설하는데 있어 基礎原資材가 될 뿐만 아니라, 資源富國에 있어서는 커다란 資産이며, 동시에 外貨獲得의 源泉이기도 하다.

鑛物資源面에서 北韓은 韓國보다 월등히 유리한 條件에 있음은 既述한 바와 같다. 즉, 망간, 규사, 고령토 등 몇몇 鑛物을 제외하고는 工業化의 基盤이 되는 賦存資源面에 있어서 韓國보다 北韓에 많은 鑛種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韓半島를 일러 「鑛物の 標本室」이라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300餘種이 넘으며 그 가운데서 經濟性있는 것만 해도 200餘種이나 된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世界에서 제일 賦存埋藏量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石炭, 鐵鑛石, 鉛, 亞鉛, 金, 銅, 鎳, 鎳 등은 그 量이 많고 質 또한 좋은 것으로 世界에서도 손꼽힌다.

현재 南北韓의 確認된 主要鑛物埋藏量을 比較해 보면 石炭은 韓國이 15億屯인데 비해 北韓은 120億屯, 鐵鑛石은 韓國이 1億3千萬屯, 北韓은 30億屯에 達한다.

이렇게 韓國은 資源面에서의 불리한 與件에도 불구하고 開放體制를 바탕으로 資源의 海外開發輸入 등 安定的 導入에 힘써 60년대 이후 추진해 온 經濟開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韓國은 主要鑛物資源의 埋藏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開發與件마저도 不良한 상황임은 否認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점차 더 거세어만 가는 「資源내셔널리즘」의 높은 波高에 國內經濟가 민감하게 反應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資源購入을 위한 外貨負擔의 加重이 더욱 深化되어 가고 있으며, 資源聯關産業의 國際競爭力이 점차 떨어져 가고 있는 점에서 볼 때, 北韓에 비해 韓國은 相對적으로 産業生産 및 經濟活動에 있어 耐衝性이 약한 것으로 評價된다.

이는 北韓이 年間 鐵鑛石 800餘萬屯, 石炭 4,000萬屯內外, 마그네사이트는 精鑛基準으로 150萬~200萬屯, 石灰石 1,300萬~1,500萬屯정도, 鉛은 含有量 기준으로 6萬屯, 亞鉛은 1次亞鉛塊 기준으로 75萬屯정도, 銅은 含銅鑛 기준으로 4萬~5萬屯을 생산하고 또한 이를 主宗輸出商品으로 重點開發해 海外에 輸出까지 하고 있는데 비해, 韓國은 製鐵·製鋼用 燃料炭과 시멘트工場用 有煙炭 등을 年間 1,200萬屯 정도를 海外에서 導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鐵鋼材生産에 필요한 鐵鑛石은 全體需要의 95% 이상을 海外에 依存하고 있는 점에서 분명하다 하겠다.

<表 3 >

鑛物埋藏量

( 1981년말 현재 )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 韓國 : 北韓 )
鐵鑛石 ( Fe 50% )	億 屯	1.3	30.0	1 : 25
石 炭 ( 4,000Kcal/kg )	"	14.5	119.9	1 : 8
銅 ( Cu 100% )	萬 屯	10.5	215.5	1 : 21
鉛 ( Pb 100% )	"	49.2	600.0	1 : 12
亞 鉛 ( Zn 100% )	"	73.8	1,200.0	1 : 16
石灰石 ( CaO 50% )	億 屯	14.9	1,000.0	1 : 67
마그네사이트 ( MgO 45% )	"	-	65.0	-
우라늄 ( U <sub>3</sub> O <sub>8</sub> 0.3~0.4% )	萬 屯	5,600.0	2,600.0	2 : 1

라. 에너지

에너지는 經濟力의 動脈으로 비유될 수 있다. 高度産業國家나 大規模 「에너지」資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더욱 그러하다. 「에너지」消費는 GNP水準과 관계가 깊다. 「에너지」의 「國民所得成長彈力係數」가 동일하다면 에너지投入이 많은 나라의 國民所得成長率이 높기 때문이다.

즉 이는 經濟成長의 속도와 일정한 相關關係를 가지면서 「에너지」需要가 증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니는 特殊性은 그것이 經濟와 軍事力, 그리고 1國의 潛在力量에도 커다란 影響을 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에너지」의 對外依存度가 높을수록 經濟發展이 타격을 받기 쉽다. 「에너지」를 밖에서 大量으로 들여와야 하

는 나라들은 國內資源으로 충당하는 나라에 비해 經濟基盤이 흔들리기 쉽다. 반대로 「에너지」危機가 닥칠 때, 「에너지」輸出國은 유리한 立場에 놓인다. 이는 1973년 第1次 「오일쇼크」이후, 石油輸出國機構(OPEC)에서 그 實證을 얻을 수 있으며, 石油은 이제 핵심적인 「에너지」資源으로 浮刻되어 消費國은 물론 生産國에도 그 威力을 發揮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供給源으로서 그 價値가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은 核「에너지」이다. 核「에너지」産業은 世界的으로도 아직 유치한 단계에 있고 費用과 環境 및 安全問題 때문에 급속한 成長을 기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核에 대한 各國의 熱望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部門의 經濟力을 測定할 때 있어서는 「에너지」資源과 아울러 原子爐建設의 技術的 發展度 등은 主要測定基準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工業化의 原動力인 「에너지」開發과 生産에 있어서 韓國의 경우, 1981년 이후 계속 꾸준히 努力해 온 결과로 無煙炭 1,999萬屯의 實績에 달하였다. 반면 北韓은 例年水準에 훨씬 未達되어 無煙炭·有煙炭生産量은 2,850萬屯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南北韓은 共히 製鐵·製鋼用 原料炭인 「코킹콜」生産이 全無하므로 이를 海外導入에 依存하는 바, 韓國은 有煙炭 730萬屯을 포함하여 約 1,160萬屯의 石炭을 輸入하였고 北韓은 有煙炭中 粘結炭과 「코크스」를 150萬~200萬屯 정도 輸入한 것으로 보인다.

精油施設은 韓國이 현재 日産 79萬배럴(年産 3,526萬屯)의 能力을 保有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蘇聯 및 中共援助로 건설된 「勝利化學」과 「烽火化學」의 두 精油工場이 日産 8萬배럴(年産 400萬屯) 能力을 保有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리고 이에 所要되는 原油는 韓

國이 2,528萬屯을 OPEC諸國 등 10餘個 國家에서 導入하여 精製 하였으나, 北韓은 蘇聯, 中共, 이란, 사우디의 4個國에서 208萬屯을 導入한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北韓의 「에너지」供給構造가 後述하는 대로 石炭위주이긴 하나 石油「에너지」産業, 나아가 石油化學工業은 아직도 初期의 建設段階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發電施設容量은 韓國이 水力, 火力, 原子力發電所를 포함하여 1,080萬 KW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水力發電爲主로 510萬 KW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른 發電量은 韓國이 約 440億 KWH에 달하는데, 비해 北韓은 222億 KWH에 불과한 것으로 評價된다. 이도 압록강 國境河川에 설치되어 있는 水豊(70萬 KW)과 雲峯(40萬 KW)의 두 水力發電所는 中共과 共同管理·運營함으로써 同發電所 生産電力의 切半을 中共에 送電하는 바, 이를 除하면 實際 供給電力은 202億 KWH에 불과하며, 이도 送配電上의 途中電力損失分(約 13%)과 發電所稼動을 위한 所內消費(約 5%)를 除한 實際 消費電力은 166億 KWH에 불과해 더우거나 電力多消費産業構造를 갖고 있는 北韓實情에 심각한 電力不足難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은 이러한 問題를 해결키 위해 潮力發電所와 原子力發電所를 건설하기 위한 多角的인 交涉과 努力을 進行중에 있으나, 莫大한 資金所要와 技術의 不足으로 所期の 成果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不足電力을 補充하기 위해 中·小型 水力發電所建設에 拍車를 加하는 일방, 潮力發電所建設을 위한 實驗用으로 이미 1978년 에 大安潮力發電所를 稼動시킨 바 있다.

&lt;表 4 &gt;

## 「에너지」供給與件

( 1981년말 현재 )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 韓國 : 北韓 )
發電施設容量	萬 KW	1,080	510	2.1 : 1
發 電 量	億 KWH	440	222	2.0 : 1
精 油 能 力	日産萬배럴	79	8	10 : 1
原 油 導 入 量	萬 屯	2,528	208	12 : 1
石 炭 生 産 量	萬 屯	1,999	2,850	1 : 1.4

綜合的으로 南北韓의 「에너지」供給構造를 살펴보면, 韓國의 경우 石炭 33%, 石油類 59%, 水力 1%, 原子力 2%, 薪炭 5%로 되어 있으나, 北韓은 石炭 69%, 石油類 13%, 水力 13%, 薪炭 5%로 構成되어 있는 것으로 算出된다.

이를 볼 때 韓國의 「에너지」供給構造는 海外에서 輸入하는 石油類에 約 60%를 依存하고 있는 외에도, 에너지의 輸入依存도가 約 75%에 달함으로써, 「에너지」供給構造의 脆弱性은 물론, 「에너지」單價가 상당히 비싼 實情이다. 반면 北韓은 石炭에 約 70%를 依存하고 있으며, 「에너지」輸入依存度も 상대적으로 낮아 「에너지」供給基盤이 堅固할 뿐더러 「에너지」單價도 低廉한 것이 強點이라 할 수 있다. 電力供給構造 역시 韓國은 石油類를 燃料로 하는 火力發電所 위주인데 비해, 北韓은 압록강과 두만강水系를 源泉으로 하여 값싼 電力을 생산하는 水力發電위주임이 特徵이다.

<表 5 >

「에너지」供給構造

( 1981년말 현재 )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에너지 供給總量	石油換算 萬屯	4,589	2,129
石 炭	%	32.9	69.0
石 油 類	"	58.7	13.0
水 力	"	1.5	13.2
原 子 力	"	1.6	-
薪 炭	"	5.4	4.8

그러나 이러한 北韓의 「에너지」産業의 強點에도 불구하고 最近年間 심각한 「에너지」不足 등의 問題에 直面하고 있는 바, 이는 「石炭은 金이다」, 「石油은 皮 한방울과 같다」는 등 增産과 節約運動의 강조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우선 石炭需給에 있어서, 1977年 이래의 原油導入不振에 따라 石炭代替 및 外貨獲得을 위한 石炭增産이 요구되는 등 需要는 急増되는 반면, 대부분의 既存炭鑛들의 採炭條件이 惡化됨으로써 增産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어 大單位 火力發電所와 綜合製鐵工場을 위시한 産業施設稼動에 莫大한 支障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6個年計劃 期間에는 最下 5,000萬屯 生産目標에 年平均 3,500萬~4,000萬屯을 생산한데 비해, 7,000萬~8,000萬屯 生産을 目標로 하고 있는 現行 第2次 7個年計劃期間의 4次年度인 1981년에는 2,850萬屯水準에 머물러 石炭生産計劃上에 蹉跌을 초래하였다.

電力은 水力發電設備의 老朽로 인한 故障의 頻發과 稼動率低調뿐만

아니라, 年中 10月, 中旬에서 翌年度 3月末까지의 渴水期와 結氷期에는 河川水量의 不足과 結氷으로 인하여 水車를 돌릴 수 없으므로 電力需要가 가장 많은 季節에 電力生産이 어렵고, 또한 水力發電위주 체제에서 起因하는 것으로서 電力生産地와 消費地와의 遠隔性으로 말미암아 途中電力損失率이 높아 電力生産과 供給上의 어려움이 加重되는 실정에 있다.

石油類는 既存의 두 精油工場을 全稼動하면 最少限의 自給은 가능한 편이나, 中·蘇로부터의 原油導入이 원활치 못하고 그 導入單價 역시 크게 引上調整됨으로써 油類難 역시 심각하다.

이와 같은 「에너지」供給側面에서도 問題는 심각한 바, 첫째 冶金, 製鍊, 시멘트産業 등 「에너지」多消費産業構造 둘째, 發電機, 보일러 등 「에너지」産業設備의 老朽로 인한 「에너지」效率性低下 셋째, 産業 및 軍事施設의 地下化 및 電鐵化推進으로 인한 電力多消費政策 등을 指摘할 수 있다. 그러므로 北韓은 「에너지」部門에 있어서의 一部 強點에도 불구하고, 供給側面에서는 不足難을, 消費側面에서는 過剩需要難을 겪고 있다 하겠다.

#### 마. 産業力

産業力이란 重機械, 機構工具, 武器類 및 消費財 등 基本的인 製品을 생산할 수 있는 能力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經濟力과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今世紀 中葉 이전까지 工業力을 支配하는 것은 鐵鋼이었다. 鐵鋼은 製造能力을 형성하는 가장 基本的인 要素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開發途上國에서는 製鐵工場이 항상 優先權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鐵鋼生産量을 測定하는 것은 한 나라의 工業化를 評價하는 가장 適切한 方法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重武器도 裝備生産의 重要性 때문에 敵對國이든 同盟國이든 그 나라의 工業力을 評價함에 있어 粗鋼生産能力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金屬産業인 알루미늄生産은 輕工業 및 消費財의 製造能力을 반영하는 經濟指標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알루미늄은 製造 및 建築能力과 消費財産業을 評價하는 主要指標가 된다.

다음 1國의 基礎工業力을 평가할 수 있는 세번째 指標로는 建築資材로서 중요한 시멘트生産이다.

그 이외에 産業化의 進陞과 工業構造의 有機的 高度化로 移行되는 과정에서 合成樹脂를 비롯한 化學工業의 重要性도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國民福祉의 擴充이라는 經濟目標에 비추어 볼 때, 日用消費財工業도 중요하며, 科學과 技術의 발달로 代辯되는 電氣電子工業도看過해서는 안된다.

1981년말 현재 粗鋼生産能力에 있어 韓國은 年間 1,247萬屯으로 北韓의 398萬屯보다 3倍이상의 生産能力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粒鐵을 포함한 北韓의 鐵生産能力 354萬屯에 비해 2倍이상인 802萬屯을 韓國은 보유하고 있다. 더우기나 壓延鋼材生産能力은 韓國이 1,381萬屯인데 비해 北韓은 200萬屯에 불과해 그 隔差는 엄청나게 크다. 또한 韓國은 製鐵·製鋼·壓延鋼材生産能力이 그 需給에 따라 適正한 「밸런스」가 갖추어져 있는데 반해, 北韓은 製鐵·製鋼規模에 비해 壓延鋼材生産能力이 적어 鐵鋼類需給에 蹉跌을 초래하고 있으며 適正한 粗鋼施設의 管理運營에 커다란 問題點을 안고 있다.

이러한 狀況은 製鐵·製鋼技術水準과 生産管理體系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바, 850萬屯의 粗鋼能力을 保有·稼動하고 있는 韓國의 浦項製鐵의 從業員數가 1萬5千名인데 비해, 金策, 黃海製鐵所 등 6個의 製鐵·製鋼所의 粗鋼生産能力 398萬屯을 稼動하는 데 從事하고 있는

北韓의 總從業員數가 6萬5千名이라는 事實을 보아도 능히 알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은 特殊鋼生産部門은 軍需産業의 自給基盤을 일찍 닦아 온 관계로 操業經驗을 중심으로 한 技術蓄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알루미늄生産은 主要原資材인 보크사이트埋藏과 직접 연관되나 南北韓 共히 보크사이트埋藏量은 微微한 실정이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 1萬8千屯의 生産能力을 가지고 16%의 自給率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蘇聯의 援助로 現行 第2次 7個年計劃期間中 「北倉알루미늄工場」을 건설한다고 計劃하고 있을 뿐, 所要 알루미늄 全量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시멘트는 南北韓 共히 풍부한 石灰石埋藏을 바탕으로 하여 계속 시멘트生産能力을 擴充하여 왔으며, 또한 주요 輸出品目으로 이를 開發 育成해 온 결과, 韓國의 시멘트生産能力은 2,350萬屯, 北韓은 810萬屯水準에 있다.

合成樹脂의 경우 韓國은 石油化學工業體系下에 PP, PE, ABS 등의 主要合成樹脂生産能力이 90萬屯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石炭化學工業體系下의 염화비닐과 石炭酸樹脂 중심의 10萬屯水準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北韓은 安州地區에 「青年化學聯合企業所」라는 石油化學工業園地를 造成하여 年間 高密度폴리에틸렌 2萬5千屯을 생산키로 計劃하였으나, 工場建設의 遲延과 原料供給의 不振으로 一部 稼動에만 그치고 있어 만족할 만한 成果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日用消費財工業을 살펴보면 韓國의 경우 所得水準의 向上과 輸出增加를 배경으로 하여 消費財生産이 급속히 伸張되었고, 특히 輕工業部門은 製品의 種類와 品質이 매우 多樣化되어 있어, 國內外 消費者의

需要와 嗜好에 맞추어 광범위한 量産의 供給體系를 갖추고 있어 北韓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發展되어 있다.

北韓의 경우 日用消費財 내지 輕工業에 관한 統計指標로서 신발, 內衣類, 양말, 웨더와 자켓트 등을 들고 있는 것만을 보아도 그 實情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纖維生産의 경우 韓國은 自然 및 人造纖維를 통틀어 100萬屯의 生産能力을 보유하고 있으나, 北韓은 石炭과 石灰石을 主原料로 하는 비닐론 5萬屯, 비스코스 등 人絹絲 5萬屯, 모빌론 1萬屯, 아크릴로니트릴을 原料로 하는 石油化學系統의 合成纖維인 아닐론 1萬屯 등, 都合 12萬屯에 불과하다.

電子製品의 경우 韓國은 黑白TV 650萬臺, 칼라TV 200萬臺, 都合 850萬臺의 TV生産能力을 보유하고 있으나, 北韓은 黑白TV 10萬臺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칼라TV는 日製部品을 全量 輸入하여 組立하고 北韓商標를 붙인 뒤, 外國人投宿施設과 特權層 一部에게 補給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이밖에 北韓은 冷蔵庫, 洗濯機, 손목시계, 재봉틀 등 耐久消費財의 生産을 증대시켜 「人民經濟生活을 한 단계 더 높은 水準으로 이끈다」라고 宣傳은 하고 있으나, 平壤을 비롯한 大都市를 제외하고는 그 補給은 미미한 형편이다.

이에 반해 韓國은 既述한 바대로 纖維 및 電子工業部門은 世界的인 水準으로 그 量的인 規模面에서 世界 10位圈이내에 들고 있으며, 質的인 水準에 있어서도 高級化의 趨勢를 계속하고 있다. 電子工業部門에서는 半導體, 컴퓨터, VTR 등 諸部門에서 계속 國産化率을 높여 나감으로써, 技術水準에 있어서도 先進工業國水準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南北韓의 産業力을 對比하여 볼 때, 北韓의 産業力이 韓國

3. 南北韓 部門別 經濟力量比較

에 비해 상당한 劣勢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도 「에너지」를 포함한 主要産業力이 주로 蘇聯과 中共의 援助에 依存하고 있는데, 최근의 「모스크바」放送을 통해 蘇聯援助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電力生産의 60%, 鋼鐵의 30%, 壓延鋼材 34%, 原油 및 同製品 45%, 織物の 20%, 鐵鑛石採掘의 40%가 蘇聯의 經濟援助에 依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北韓經濟의 對外依存度 역시 높다. 이는 中·蘇 등 共產大國의 操縱과 統制下에서 自立的 工業基盤을 닦지 못하였음을 立證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이른바 「主體經濟」, 「主體工業」의 虛構性을 드러내 놓은 것이라 하겠다.

<表 6 >

產 業 力

( 1981년말 현재 )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 韓國 : 北韓 )
粗 鋼 生 產 能 力	萬 屯	1,247	398	3.1 : 1
알루미늄生産能力	"	1.8	-	-
시멘트生産能力	"	2,350	810	2.9 : 1
合成樹脂生産能力	"	90	10	9 : 1
纖維生産能力	"	100	12	8 : 1
TV 生産能力	萬臺	850	15	57 : 1
造船能力	萬屯	400	34	12 : 1
自動車生産能力	"	33.7	1.5	22 : 1

바. 食 糧

1970年代는 農業이 經濟力의 가장 중요한 構成要素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立證해 준 時期였다. 食糧을 輸入해야 하는 나라들은 國際市場의 不確實性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 나라는 食糧不足으로 國內不安을 겪어야 했고, 때로는 鑛物, 機械, 技術 또는 武器를 사들여야 할 外貨를 轉用하기도 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食糧過剩生産國은 氣候와 國際市場의 變덕에는 아랑곳없이 國際關係에서 潛在的인 協商權(Bargaining Power)을 갖기도 하였다.

비록 農業生産力의 強弱勢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農業力과 그 潛在力을 客觀的으로 判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土地의 生産性은 各양각색이기 때문에 農業力을 測定함에 있어서 耕作地와 같은 資産만을 고려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즉 土地가 農業生産上의 가장 기본적인 要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效用性은 氣候, 耕作에 동원될 수 있는 總勞動量과 農機具, 農作物에 사용할 生化學技術水準 등에 크게 달려 있다.

生産量을 고려하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다. 예를 들면 穀物이라고 해서 모두 人間의 消費만을 위해서 生産되는 것은 아니며 飼料用으로도 많은 量이 消費되기 때문이다. 또한 農業生産의 測定은 그 나라의 人口數도 고려해야 한다. 人口密度가 높은 나라는 農業生産量이 많아야 되는데 勞動力이 豊富하다면 產出量은 늘릴 수 있다.

南北韓의 食糧事情을 보면 우선 韓國의 경우 60年代 中盤以後 重農政策을 추진하여 쌀·보리의 自給과 農家所得의 증대를 위한 꾸준한 努力을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科學的인 營農技術과 多收穫品種의 開發效果는 실로 컸다.

그러나 農業生産上의 自然的 制約과 工業部門이 相對的으로 高度成

長을 한 결과, 韓國의 産業構造는 1966年까지 農林水産業의 國民總生産에 대한 比重이 40% 이상이던 것이 점차 줄어 1981년에는 18.1%로 현저히 減少되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食糧 및 飼料用 穀物의 對外依存이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農業生産基盤의 脆弱性を 보이고 있으며, 農耕地面積의 계속적 減少와 遊休地 增大, 農業人口의 減少와 老齡化現象 등, 農業生産上의 否定的 要素들이 抬頭되고 있음에 留意해야 할 것이다.

반면 北韓에서는 農業이 國營農牧場과 協同農場을 主軸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集團農業經營體制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集團農業體制는 蘇聯과 中共의 例에서 보는 바대로 農民의 成就動機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흡족한 食糧生産에 失敗할 수 밖에 없듯이 北韓의 農業生産 역시 營農技術水準의 落後, 地力의 弱화와 異常氣候現象의 自然災害로 인하여 所期の 成果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의 주된 原因은 物的 誘因의 缺如로 인한 增産意慾 未洽과 協同農場 管理運營上의 構造的 問題點, 즉 「主體農法」에 있다 하겠다.

韓國의 農耕地面積은 218萬8千町步로서 南韓面積의 約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北韓은 210萬4千町步로서 耕地率이 16.9%에 불과해 韓國보다 5.1% 포인트나 低率이다. 이는 韓國에 비해 北韓面積中 相當部分이 農耕이 不可能한 山岳 및 江·河川地域으로 구성되어 있는 地形上의 制約要因에 기인한다.

특히 田畝의 比率에서 韓國은 畚이 130萬8千町步로서 전체 農耕地面積의 59.8%, 田이 88萬町步로서 40.2%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田이 146萬9千町步, 畚이 63萬5千町步로 田畝의 比率은 69.3% 對 30.2%로 韓國은 水稻作 위주이며, 北韓은 田作

위주의 作物栽培構造를 띄고 있다. 農家人口는 韓國이 999萬9千名으로 總人口의 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農家戶數는 203萬戶이다. 한편 北韓은 農家人口가 683萬7千名으로 總人口의 37.8%에 해당하며 農家戶數는 123萬9千戶이다. 따라서 農家戶當 耕地面積은 韓國이 1.08町步인데 비해 北韓은 1.7町步로 다소 높다.

1981年度 韓國의 食糧作物生産實績은 穀物 647萬1千屯을 포함하여 모두 692萬6千屯이다. 특히 水稻作 위주의 營農體系로 인하여 穀物中 쌀은 506萬3千屯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生産實績에도 불구하고 쌀, 밀, 옥수수, 콩 등 飼料用穀物을 포함한 糧穀導入量은 722萬4千屯(約 21億8千萬弗 相當)에 이르러 穀物을 중심으로 한 食糧自給度는 49%에 불과한 실정임을 留意해야 한다.

北韓의 경우 營農基盤과 興件, 穀種別 植付面積과 單位當 收穫量을 감안하여 食糧生産實績을 推計해 보면, 穀物 510萬屯과 薯類 26萬8千屯을 포함하여 食糧作物生産實績은 536萬8千屯에 불과하다. 그러나 人口數를 감안하여 볼 때 食糧의 1人當消費量은 韓國에 비해 적을지라도 生産量은 높고, 또한 이도 配給制를 통하여 基準配給量에서 1日 100g의 減量措置를 취하고 있고, 蘇聯 등지에서 小麥 등 雜穀을 每年 40萬~60萬屯 정도 導入함으로써 食糧需給의 均衡維持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工業生産의 不振下에서 農業生産도 農耕地의 狹小와 營農技術 落後, 新品種, 특히 耐冷 및 耐病蟲害性的의 多收穫品種 開發의 不振 등으로 食糧事情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즉 6次黨大會에서 提示된 「社會主義 經濟建設 10大 展望目標」가 1989년에 成功的으로 달성된다면 北韓住民은 「이팍(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나, 1982年 金日成의 70回 生日

前日인 4月14日 開催된 黨 中央委員會와 最高人民會議 合同會議에서 행한 「은 社會를 主體思想化 하기 위한 人民政權의 課業」이란 題目의 金日成 施政演說에서 「쌀은 곧 共產主義이다.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 「社會生活分野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먹는 문제의 解決이다」는 內容에서 北韓의 食糧事情과 住民들의 生活相이 충분히 짐작된다 하겠다.

<表 7 >

食 糧

(1981年末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韓國:北韓)
耕 地 面 積	千町步	2,188	2,104	1 : 1
農 家 人 口	千 名	9,999	6,837	1.5 : 1
食糧作物生産量	精穀千屯	6,926	5,368	1.3 : 1
段步當쌀生産量	kg	416	228	1.8 : 1
耕 地 利 用 率	%	126.3	110.0	-
(降 雨 量)	mm	1,260(서울)	925(平壤)	-
(平 均 氣 溫)	℃	11.1( " )	9.4( " )	-
(無 霜 日 數)	日	187( " )	172( " )	-
(2 毛 作)		可 能	不 可 能	-
水 産 物 生 産 量	千 屯	2,812	1,790	1.6 : 1

사. 貿 易

오늘날 國內經濟는 國際貿易과는 떨어질 수 없는 密接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미 「에너지」의 依存性, 主要鑛物資源, 食糧 등을 評

價하면서 對外經濟關係를 어느 정도까지 살펴 보았다. 그리고 國家間的 相互 經濟的 依存性的 계속적인 增大 때문에 모든 나라는 世界 經濟에 참여하여 얻어지는 전반적인 經濟力의 指標를 各國의 經濟力 評價의 범위내에서 포함시켜야 함을 이미 強調하였다.

對外貿易은 國際經濟關係에 作用하는 힘과 影響力을 나타내는 좋은 指標이다. 이러한 힘 또는 影響力은 주로 財貨와 用役의 輸出을 통하여 어떤 地域 또는 어떤 商品의 世界貿易을 지배함으로써 나온다. 반면 主要輸入國은 달가운 市場을 제공함으로써 貿易相對國에 대한 影響力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즉 主要商品을 供給하는 輸出國이라면 相對國에 대한 經濟的인 影響力을 행사하게 되며, 逆으로 어느 한 나라가 他國의 商品을 사들이는 輸入國이라면 이 역시 相對國에 대해 일종의 經濟的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 나라가 主要貿易國으로 認識된다는 것은 經濟的 生産性뿐만 아니라, 資源, 市場 및 世界交易에 接近할 수 있는 能力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貿易이라는 變數는 全世界의 가치있는 財貨 및 用役의 供給者 또는 使用者로서 한 나라의 影響力을 象徵한다. 따라서 世界貿易에서 보다 큰 比重을 점하고 있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世界經濟에 있어서 보다 큰 힘을 보유한 것으로 評價된다.

南北韓은 國土가 狹小하고 資源이 부족하기 때문에 經濟의 開發과 發展을 위해서는 對外貿易의 擴大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開發初期에는 投資財源뿐만 아니라 技術의 蓄積도 없었기 때문에 先進國과의 交易 등 國際經濟協力과 交流는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北韓은 70年代 이전까지만 해도 蘇聯과 中共 등 共產圈 諸國에서 받는 援助를 제외하고는 他國과의 交易이나 協力を 통해 經濟를 開發하는 開放과 協力の 努力을 소홀히 하는 閉鎖政策을 계속

固守하여 왔다. 이러한 政策方向下에서 北韓의 對外貿易은 餘他 產業과 같이 國家管理에 의한 計劃貿易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政務院內의 貿易부와 그 산하의 國營貿易商社와 協同貿易商社를 통해 交易相對國과의 貿易協定에 의한 「바타」貿易形態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貿易政策의 方向도 國民經濟가 對外指向的이 아니기 때문에, 貿易이 對內經濟에 종속되는 形態를 취하고 있으며, 「社會主義經濟建設」에 必要한 物資를 輸入計劃에 따라 輸入하고, 이의 支拂代錢을 확보하기 위하여 輸出計劃을 設定·執行하고 있다.

이는 韓國이 開發初期부터 開放體制를 指向하여 貿易 및 對外經濟協力을 확대하고 이에 適應할 수 있는 産業化政策을 취하여 輸出主導型의 成長과 國際競爭力 強化의 工業化를 실시하였던 것과는 根本的으로 대조적이다.

이러한 體制와 政策方向의 차이로 인하여 南北韓의 貿易規模는 그 隔差가 현격히 벌어졌는 바, 韓國의 경우 1981年度 輸出額은 通關基準으로 볼 때 213億弗, 輸入은 261億弗로 貿易高가 474億弗에 달해 世界交易量중의 占有比가 1.15%로 世界 19位의 貿易國이 되었다. 그리고 輸出對象國 역시 176個國으로 全世界市場을 舞臺로 活躍하고 있다. 반면 北韓은 同年 輸出 12.6億弗, 輸入 16.1億弗로 貿易高는 29億弗에도 未達하고 있으며 輸出對象國 역시 59個國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우기 韓國은 昨今の 國際景氣沈滯와 保護貿易障壁의 強化로 輸出入伸張率이 低下되는 등,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1970~81年の 10餘年間 輸出은 年平均 35.7%, 輸入은 約 28.3%에 달하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趨勢下에서 國際競爭力를 強化하고 계속 「輸出드라이브政策」을 持續하는 한, 輸出入構造 改善과 아울러 그 規模도 더욱 擴大될 것이므로 南北韓

間의 隔差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또한 韓國은 現在까지 輸出入의 不均衡이 持續되고는 있으나 長期間에 걸쳐 輸出伸張이 輸入伸張보다 높았고, 아울러 安定化政策의 推進과 더불어 科學技術의 革新을 통해 輸入代替産業도 활발히 發展되고 있기 때문에 貿易收支의 赤字는 점차 減少되어 不遠間 貿易收支의 均衡狀態는 이루어지리라 豫想된다. 따라서 韓國은 資本受援國에서 資本 및 技術과 開發經驗의 供與國으로서의 地位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輸出入商品構造 역시 南北韓間에 현저한 差異가 있다. 1981年의 경우 韓國은 工產品 輸出이 93%, 1次產品은 7%에 불과한데, 이는 韓國의 産業構造가 開放體制와 國際經濟秩序에 適應하여 高度化되었고, 아울러 輸出産業이 經濟를 成長시키는 牽引車 役割을 함으로써 集中的인 育성과 支援을 받은데도 기인한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資料의 制約으로 全體 交易相對國 및 最近年度의 實相을 정확히 把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1980年의 경우 工產品輸出은 59%, 1次產品은 41%를 차지한 것으로 評價된다. 輸入에 있어서는 韓國이 資本財 24%, 輸出 및 內需用原資材 52%와 石油類 및 其他가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北韓의 경우 輸入品の 대부분이 輸送用機器, 電氣電子機械를 포함한 産業設備과 石油, 「코킹콜」을 비롯한 「에너지」, 小麥 등 雜穀과 軍需物資이다. 이에 반해 主要輸出商品은 石炭, 鐵鑛石, 鉛·亞鉛 등의 非鐵金屬, 農水産物과 마그네샤크링카, 시멘트, 鐵鋼類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韓國은 工產品, 즉 製品輸出에 原資材輸入의 交易形態로서 産業構造의 有機的 高度化를 반영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原資材를 輸出하고 製品을 輸入하는 後進的인 輸出入商品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北韓의 地域別 貿易構造를 살펴보면 1963年까지만 해도 共產圈諸國과의 交易比重이 總交易量의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減少되다가 70年代에 들어와서 對西方交易量이 大幅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4年의 경우 54%를 차지함으로써 對共產圈 交易을 한때나마 증가하였다. 1975年부터는 다시 對共產圈 交易이 다시 높아져, 現在 蘇聯과 中共을 비롯한 對共產圈 交易이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理由는 前記한대로 北韓의 對西方圈과의 交易에서 초래된 貿易收支赤字와 短期信用에 의한 外債가 累積됨으로써 北韓이 이를 償還치 못하고 債務返濟不能에 빠지게 되자 西方圈이 對北韓交易을 忌避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81年度 北韓의 對蘇聯, 中共, 日本의 交易構造를 보면 輸出이 각각 32%, 21%, 10%이며, 輸入은 27%, 18%, 17%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볼 때 北韓은 上記 3個國에 輸出入의  $\frac{2}{3}$ 를 依存함으로써 交易의 多邊化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 있는 北韓은 1979年 이후 완만하게나마 輸出擴大政策을 추구하고 있는 바, 이는 中·蘇를 비롯하여 西方의 先進設備를 購入한 代金の 滯拂로 對外債務가 年間 輸出實績의 2倍以上에 달하는 約 30億弗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1970~81年까지의 12年間 年平均 2億弗以上の 對外貿易赤字가 계속되어 外貨支拂 負擔이 더욱 加重되고 있으며, 또한 現行 第2次 7個年經濟計劃 遂行에 必須不可缺한 設備 및 原資材輸入을 위한 外貨確保가 절실한 問題 등에 기인한 結果이다. 그리하여 1979年과 1980年의 金日成 新年辭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貿易信用 第1主義」를 闡明한 가운데 「輸出商品의 優先生產 및 品質提高, 對外貿易港에서의 船積期日 嚴守」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努力이 외에도 非共產圈市場에의 적극 進出로 交易의 多邊化를 꾀하며, 「外

貨별이突擊隊」를 組織하여 自體輸出源泉을 적극 開發하는 한편, 1979年 12月の 第5期 19次 및 1980年 12月の 第6期 2次 黨全員會議에서 決定한 바 있는 對外貿易 擴大 및 貿易機關의 役割 提高로 輸出擴大策 摸索에 부심하고 있다.

그리하여 輸出擴大를 위한 具體的 措置로서 1979年 3月 이후 中央에 「輸出指揮部」를 設치하여 對外輸出擴大를 促進하고, 1980年을 「輸出의 해」로 設定하여 이에 拍車를 加하였다. 또한 分期別로 輸出實績에 功勞가 있는 工場 및 勤勞者에게는 獎勵金을 支給하고 있는 바, 勤勞者인 경우 勞賃의 10% (平均 7~8원), 工場인 경우에는 出荷額의 10~30%를 策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輸出增大政策과 努力에도 불구하고 輸出品의 대부분이 1次產品 및 半製品에 依存하고 있는 構造的 脆弱點과, 또한 이들 輸出商品의 動員能力이 한계에 이르러 輸出伸張이 停滯되고 있으며, 輸出目標 達成에 급급한 나머지 輸出品의 品質不良과 規格 및 容量未達로 특히 蘇聯, 日本 등으로부터의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클레임」이 頻發하고 있다. 그리고 自體의 荷役施設 微弱과 貨物船 不足 및 備船難에 의한 船積遲延事態가 續出하고 있다. 또 「디자인」, 包裝狀態 不良과 販賣技術 (Marketing)과 經驗의 未熟 등으로 輸出市場 開拓도 不振한 形편이다.

이는 根本적으로 北韓이 對內指向的 自力更生政策을 강조하고 있고 「先輸入·後輸出原則」에 따라 「바타」貿易을 실시함으로써 輸出擴大의 限界性이 內在하고 있는 理由외에도, 産業과 科學技術面에서의 沈滯와 落後에 기인한다 하겠다.

&lt;表 8 &gt;

## 貿 易

( 1981 年 末 現 在 )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備 考 (韓國:北韓)
貿 易 高	通關基準 億弗	474	28.7	16 : 1
輸 出	"	213	12.6	16 : 1
輸 入	"	261	16.1	16 : 1
貿 易 依 存 度	%	74.9	21.2	-
輸 出 對 象 國	個國	176	59	3 : 1
世界交易量中占有比	%	1.15	0.08	-

## 4. 結 言

지금까지 經濟力量을 構成하는 諸部門에 있어서의 南北韓 能力과 實績을 評價해 보면서, 우리 韓國經濟의 對北優越性뿐만 아니라 우리의 自由民主主義體制가 北韓의 共產主義體制보다 얼마나 優越한 가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提起되고 있는 問題는 經濟的 優越性的 持續이라는 1次的 課題뿐만 아니라, 對內外與件과 南北韓關係를 우리가 원하는 方向으로, 또한 民族和合 民主統一이 조속히 成就될 수 있는 方向으로 改善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北韓보다 優越한 國力과 體制를 持續적으로 確保함과 동시에 民主福祉社會를 建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國際的 地位와 影響力을 크게 強化해야 할 것이며, 北韓을 南北韓 平和體制構築의 廣場으로 이끌어 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必要한 우리의 平和統一基盤 造成努力은 經濟的 側面에서 볼 때, 優越한 經濟力量의 繼續維持에 있음

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諸般 與件과 狀況을 감안하여 우리의 國力을 極大化하고 또한 우리의 脆弱點을 除去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安定基盤의 定着으로 經濟成長의 潛在力量을 倍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는 政治·社會的 安定뿐만 아니라, 自律的 民間經濟秩序의 確立下에 資源의 公正配分과 物價安定, 그리고 外換收支를 適切히 管理해 나가는 努力이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食糧 등 資源의 安定的 供給基盤을 構築함으로써 對外依存度를 輕減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內陸 및 海洋資源의 探查·開發을 擴充하는 한편, 資源의 海外開發輸入 擴充과 代替資源 開發에 注力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科學技術의 革新과 生産性 增大를 위해 技能教育의 擴充과 高級技術人力을 많이 育成해야 할 것이며, 資源 및 勞動集約的 産業도 중요하지만 附加價値가 높은 技術 및 文化集約的 産業도 開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 積極的이고 效率的인 對外經濟協力體制構築과 이에의 參與가 要望된다. 이에는 우리 政府가 提唱한 「太平洋共同體」의 創設과 이에의 積極的인 寄與를 摸索해야 하며, 終局的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 加盟해야 할 것이다. 또한 中·蘇 등 對共產圈交易과 協力を 增大시켜 나가면서 多角的인 關係改善에 注力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適正規模의 人口管理와 國土의 綜合的인 利用·開發을 위해 長期的인 發展「프로그램」을 樹立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科學技術의 계속적인 發展과 輸送通信量의 急速한 增加에 對 備하여 技術 및 産業情報의 開發과 管理가 效率的으로 運用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資料目錄〉

1. 國 內

- 國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77, 1980.
- " , 北韓概要, 1980.
- " , 北韓經濟의 部門別 實態分析, 1980.
- " , 北韓의 科學技術水準 分析, 1980.
- " , 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變化方向 豫測, 1980.
- " , 南北韓 經濟力量比較, 1977.
- " , 南北韓 總力趨勢比較, 1981.
- " , 南北韓 經濟現況比較, 1978. ~ 1982.
- " , 蘇聯經濟의 새 方向
- " ,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1980.
- 北韓研究所, 北韓經濟論, 1980.
-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1981.
- 海外經濟研究所, 北韓의 經濟管理制度, 1977. 등.

2. 北 韓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 ~ 1980.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발전통계집, 1965.
- 조선로동당출판사, 사회주의경제 관리문제에 대하여, 1970.
- " , 조선로동당력사교재, 1964.
- " , 김일성저작선집, 1968.
- 조선국립출판사, 조선경제지리, 1955.

## 北韓의 經濟

---

-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적 문제에 대하여, 1969.
- " , 경제사전, 1969.
- 학우서방, 정치경제학, 1967. 등.

## 3. 國 外

- Jan Drevnovski,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1961.
- J. Wilczi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1978.
- A. Cecil Pigou, Theory of Comparative Economic System, 1949.
- Ray S. Cline, World Power Trends & U.S. Foreign Policy for 1980's, 1980.
- Rinn Sup-Shin,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1977.
- Joseph, S. Jung, The North Korea Economy, 1975.
- 日朝貿易會, 日朝貿易, 每月報版.
- 日本經濟情報 Service Center, 北朝鮮의 經濟와 貿易, 每年度版.
- 蘇聯邦科學 Academy, 北朝鮮의 經濟, 1977. 등.

## 北韓의 經濟 (要約)

— 南北韓 經濟力量比較를 中心으로 —

### 1. 南北韓 經濟體制的 特徵

區 分	韓 國	北 韓
經濟活動主體	民間 내지 民間企業	黨 및 政權機關
生産手段 및 財産 所有關係	私 有 化	國 · 公有化
資 源 配 分 機 能	自由競爭的 市場機能	中央集權的 計劃機能
對 外 關 係	開 放 體 制	閉 鎖 體 制



韓 國

- 價格機構 (Price Mechanism) 에 의한 市場競爭原理
  - 自律的인 資源配分
  - 利潤動機에 立脚한 創意的인 經濟活動
- 開放體制로 對外經濟協力과 貿易增大
  - 先進技術과 資本導入 容易
  - 「輸出드라이브政策」에 의한 經濟成長 達成

北 韓

- 行政指令方式의 人爲的인 計劃原理
  - 인센티브 (物的誘因) 缺如로 勞動生産性 落後와 勞動忌避現象 蔓延
  - 資源의 浪費過多와 非效率的인 投資計劃으로 經濟成長 鈍化
- 對內指向的인 自給自足體制 (Autarky) 構築
  - 資源, 資本 不足과 技術水準 落後

2. 南北韓 經濟政策 方向의 差異

區 分	韓 國	北 韓
政 策 目 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民福祉 向上</li> <li>○ 國家의 恒久的 安全保障 圖 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赤化統一을 위한 戰爭力量 斗 革命力量 強化 (國防· 經濟竝進策)</li> </ul>
成 長 및 發 展 戰 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外指向的 成長</li> <li>○ 質的 成長</li> <li>○ 均衡 成長</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內指向的 成長 (自力更生 原則)</li> <li>○ 量的 成長</li> <li>○ 不均衡 成長</li> </ul>
工 業 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農業 및 輕工業과 社會間接 資本의 發展基盤 위에서 重 化學工業 開發 (輕工業 → 重工業 → 重化學工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軍需産業 爲主의 重工業優 先政策 推進 ( 1 國家社會主義論 ) ( 重工業 → 輕工業 )</li> </ul>



韓、國

- 經濟成長과 發展目標: 國民福祉의 向上
  - 安定基調에 立脚한 高度成長 追求 (1962~'81年間 年平均 經濟成長率 8%이상)
  - 國民所得 水準의 漸進的 向上
- 國防力 強化를 위한 經濟支援力量의 繼續 擴充
- 成長潛在力量의 強化
  - 輸出의 繼續的 增大과 産業構造의 有機的 高度化 推進

北 韓

- 戰爭과 革命力量 強化가 優先的· 絶對的 課題
  - 住民生活의 犧牲下에 軍需産業을 開發하여 戰時經濟體制 確立
  - 重工業優先政策 推進으로 産業構造의 不均衡 深化
- 自力更生原則 固守로 資本不足, 技術水準 落後

3. 北韓 經濟의 當面問題點

가. 構造的 問題點

區 分	問 題 點
1) 硬直的인 計劃體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資源配分の 非效率性和 資源浪費 過多</li> <li>○ 計劃과 執行機構間의 摩擦과 軋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본위주의”, “지역할거주의” 등</li> </ul> </li> <li>○ 官僚主義 蔓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령주의”, “조건타발주의”, “경험주의”, “기술신비주의” 등</li> </ul> </li> <li>○ 生産單位의 創意와 能率低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人間資本 不足과 物的 誘因 缺如</li> </ul> </li> </ul>
2) 閉鎖的 自給經濟體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資源, 資本, 技術不足</li> <li>○ 內延的, 集約的 成長 不可</li> </ul>
3) 重工業優先 政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産業構造間 不均衡 深化</li> <li>○ 住民 消費生活 落後</li> </ul>
4) 國防·經濟 竝進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軍事費의 過重負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NP의 24%水準(世界에서 가장 높음)</li> </ul> </li> <li>○ 正規軍 兵力 過多保有(總人口의 約 4.2%)</li> </ul>

나. 産業部門別 問題點

區 分	問 題 點
1) 農 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農耕地 面積의 狹小와 土質의 酸性化 加速</li> <li>— “간석지 개간” 과 “새땅 찾기운동” 등 展 開</li> <li>○ 農業生産性 微弱</li> <li>— 營農機械化, 化學化 水準 低級</li> </ul>
2)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石炭, 石油, 電力 등 「에너지」供給의 絶對的 不足</li> <li>— 自動車의 木炭車 改造運行, 斷電日制 實施</li> <li>○ 石油 등 「에너지」導入先의 不安要因 常存</li> <li>○ 「에너지」多消費産業構造와 「에너지」效率性 微弱</li> </ul>
3) 輸 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形, 地勢의 與件 不利</li> <li>— 狼林山脈으로 東西經濟圈 分離 및 東西海岸의 隔離</li> <li>○ 鐵道, 道路, 機關車, 自動車 등 輸送手段의 未 備</li> </ul>
4) 製 造 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産業施設의 老朽로  잦은 故障과 稼動率 低調</li> <li>— “대보수” 實施 등</li> <li>○ 原資材 不足과 適期供給體系 不備</li> <li>○ 品質의 粗惡과 不良品 生産 增大</li> </ul>
5) 貿 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入需要 過多에 비해 輸出能力 微弱</li> <li>○ 國際競爭力 微弱, 國際市場情報 不足, 經驗 日淺</li> <li>○ 貿易收支 赤字幅 擴大로 外債累積</li> <li>○ 對外信用度 下落으로 國際經濟協力 困難</li> </ul>

## 4. 南北韓經濟力比較

(1981年末現在)

區分	單位	韓國	北韓	備考 (韓國:北韓)
人口(年央人口)	萬名	3,872	1,809	2.1 : 1
面積	千km <sup>2</sup>	99	122	1 : 1.2
G N P	億弗	622	136	4.6 : 1
1人當GNP	弗	1,607	750	2.1 : 1
財政規模	億弗	116	105	1.1 : 1
對GNP比	%	18.7	77.3	—
軍事費	億弗	39.3	32.4	1.2 : 1
對GNP比	%	6.3	23.8	—
國民1人當 軍事費負擔	弗	101	179	1 : 1.8
貿易高(通關基準)	億弗	474	29	16 : 1
輸出	"	213	13	16 : 1
輸入	"	261	16	16 : 1
粗鋼生產能力	萬屯	1,247	398	3.1 : 1
造船能力	"	400	34	12 : 1
自動車生產能力	萬臺	33.7	1.5	22 : 1
精油能力	日產萬明 <sup>리</sup>	79	8	10 : 1
TV生產能力	萬臺	850	15	57 : 1
纖維生產能力	萬屯	100	12	8 : 1
食糧生產	"	693	510	1.4 : 1



# Ⅲ. 北韓의 社會·文化

尹 東 鉉

## 目 次

1. 序 言 .....	107
2. 北韓社會의 構造的 特徵 .....	108
3. 北韓의 階級政策과 階層構造 .....	111
4. 北韓의 社會的 統制 .....	113
가. 組織的 統制 .....	113
나. 個人生活 統制 .....	115
다. 查察機構 .....	117
5. 北韓의 住民生活 實態 .....	118
가. 家庭生活 .....	118
나. 女性의 社會活動 .....	119
다. 衣·食·住 生活 .....	120
라. 冠婚喪祭와 風習 .....	123
마. 信仰과 宗教 .....	125
6. 北韓文化의 特徵 .....	126
가. 構造的 特徵 .....	126

나. 機能的 特徵 .....	127
다. 生態的 特徵 .....	128
7. 北韓 社會·文化의 問題點 .....	129
가. 思想의 劃一化 .....	130
나. 社會의 密閉化 .....	134
다. 體制의 軍事化 .....	138
8. 北韓社會의 展望 .....	140
附 錄 .....	144

## 1. 序 言

現代史의 흐름은 모든 나라들이 名分보다는 實利를 찾아 門戶를 開放하고 相互 交流와 協力을 試圖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國際社會에 積極 進出하여 民族의 利益을 圖謀하여 왔으나, 國土分斷에 기인한 民族内部의 斷絶과 對峙는 莫大한 支障과 損失을 招來하여 民族國家의 發展을 크게 沮害하고 있다.

우리는 祖國의 이러한 不幸스러운 分斷狀態를 早速히 解消하여 平和的 統一을 成就하기 위해 多角的으로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側과 交渉하여 온 過程에서 여러가지 問題點과 難關에 逢着하여 왔다. 北韓側은 統一努力으로서의 初步的인 對話마저도 赤化戰術의 手段으로 惡用하려고 企圖했으며, 對話進行中에도 南侵땅굴을 파내려오고 武裝共匪를 投入하는 등 諸般事件을 挑發하여 왔다.

民族社會가 分斷되어 軍事的으로 對峙하여 온 事實 그 自體만으로도 悲劇, 인데 北韓側은 南北韓間의 緊張과 敵對關係를 날로 激化시키면서 極端的인 閉鎖政策을 固守하는 등 民族의 發展과 平和的 統一에 逆行하는 狀況을 造成하여 왔다.

한편으로 그들은 北韓社會를 外部世界와 遮斷하고 우리의 通念으로는 理解할 수 없는 特異한 唯一思想體系에 의해 黨의 支配者를 神格化하고 住民들의 思想과 思考와 生活方式를 統制함으로써 人爲的으로 異質化를 深化시켜 오더니 드디어는 共產圈에서도 그 類例를 볼 수 없는 權力的 世襲化 企圖를 公式化함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國際潮流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繁榮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共產國家에게도 門戶開放과 相互協力을 促求하여 關係를 改善하여 왔다. 그런데 北韓側은 如前히 硬直된 閉鎖體制를 固守하면서 이른바 對南革命을 위한 準備에 狂奔하고 있을 뿐이며 南北關係의

改善에는 별다른 變化를 보이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現實은 같은 分斷國家인 東西獨의 경우와 比較하면 너무나 差異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念願하고 追求하는 統一의 對象은 바로 北韓이다. 따라서 우리는 統一問題를 檢討하려면 우선 北韓에는 과연 어떠한 性格의 體制가 도사리고 어떻게 作動되고 있는가를 몇가지 基本的인 問題點을 中心으로 하여 우리의 北韓觀을 다시 한번 整理해 볼 必要가 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觀點에서 北韓體制의 社會·文化分野 實態의 몇가지 問題點을 中心으로 檢討하기로 한다.

## 2. 北韓社會의 構造的 特徵

民族文化의 傳統과 우리 社會의 現實을 無視하고 造作되어 온 共產獨裁治下의 北韓社會는 韓國社會와는 전혀 다른 體制的 特殊性을 띠고 있다. 그곳에서의 個人的 存在는 勞動黨에 의하여 代表되고 統制되는 全體의 한 構成要素로서의 存在價値만이 認定되며, 個人은 「黨과 首領을 위하여」 모든 犧牲을 強要당하는 1人獨裁의 全體主義社會가 形成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全體主義體制의 一般的 特徵은 ① 大衆統制 手段으로서의 暴力使用과 恐怖雰圍氣 造成 ② 官製이데올로기의 強要와 嚴格한 思想統制 ③ 特定人 또는 少數集團에의 權力集中과 支配者의 偶像化 ④ 中央集權의 經濟體制 등을 들 수 있다.

北韓의 社會體制는 물론 上記한 諸般要素들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事項이 어느 全體主義社會의 境遇보다 더욱 徹底하게 遂行되고 있다. 그것은 政治的 傳統이 없는 北韓의 支配層들이 自由民主

主義에 대한 體驗도 없이 오직 日本의 軍國主義體制와 스탈린의 鐵拳獨裁體制下에서 訓練되었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共產主義에 基礎하고 있으면서도 特異한 側面이 있는 北韓社會體制的 構造的 特徵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金日成의 「主體思想」에 의한 党的 唯一思想體系가 모든 價値를 支配하는 社會이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하나의 思想만이 公認되고 있다. 共產主義體制에서는 反對的 이데올로기가 許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이데올로기는 人間生活의 모든 領域을 規制하는 廣範한 包括性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全體人民의 意志라는 것이며 누구나 이 原理에 服從하도록 強制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北韓에서는 唯一思想으로서의 金日成 主體思想이 既存의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변모시킨 이데올로기로 장식되고 있으며 이는 金日成에 의해 創始되고 解釋되는 理論만이 唯一한 指導理念으로 適用된다는 것이다.

즉 北韓에서는 「首領(金日成)이 생각하는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라」는 口號아래 「首領의 敎示를 끝까지 忠誠으로 목숨바쳐 觀철할 것」을 強要하고 있으며, 이런 面에서 그의 「敎示」는 그 어떠한 法令이나 決定에도 우선하는 絶對性과 無條件性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私有財産을 認定하지 않고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한다는 共產党的 獨裁 社會이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1946年 3月 土地改革法令 發表와 同時에 土地를 沒收하여 農民에게 無償分配하고 그해 6月에는 産業國有化法令을 發表하여 生産手段의 「國有化」를 強行하였다. 그러나 農民에게 分配한 土地는 1954年부터 協同農場을 組織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沒收되기 시작하였고 1958년까지 모든 農民은 協同農場에 強制로 編入되어 土地所有權을 完全히 박탈당하고 말았다. 個人商工業도 이 期間에 完全히 말살되어 北韓住民은 生産道具의 口實밖에 못하며 한낱 勞動力을 提供하는 存在로 轉落되었다. 그후 1977年 4月 새로운 土地法을 採擇하고 「터밭經理」

(20~30坪)를 法的으로 制度化하였다고 하나 土地管理에 대한 党的指導와 統制를 더욱 強化함으로써 住民들의 예측성과 노예성은 오히려 加重되고 있다.

세째로, 集團主義原則에 立脚한 組織的 統制社會라는 點이다. 北韓의 社會主義憲法 第49條는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原則에 기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全體를 떠난 個人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으며, 個人은 全體속에 묻혀져 恒常 全體의 細胞로서 움직여야 하고 個體의 利害는 언제나 全體에 服從해야 하는 것임을 公式的으로 强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第68條에 의하면 「公民은 集團主義 精神을 높이 發揚하여야 한다. 公民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氣風을 세워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社會主義 倫理에 立脚한 行動指針을 提示하고 있다.

이와 같은 集團主義는 모든 住民이 組織속에 묶여져야 하며 党的 指令에 따라 一絲不亂하게 움직이는 劃一性을 要求하고 있다. 이는 共產主義社會에서 强要되는 行動의 特性이기도 하다.

네째, 北韓社會는 党性에 따른 철저한 階級社會이다. 즉 北韓을 支配하고 있는 集團은 이른바 職業的 「革命家」로 構成된 勞動党이다. 그런데 이 党을 支配하고 있는 것은 制度的으로나 實質的으로나 金日成 1人이며 이를 繼承하려고 獨裁方式을 修習中에 있는 것이 金正日이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勞動黨員이 統治階級으로서의 特權階級을 形成하고 있다. 이들은 身分上으로나 待遇面에서 被支配層인 一般住民과 嚴格히 區分되고 있다.

다섯째, 北韓社會는 「4大軍事路線」을 강행하여 그 어떤 共產國家나 戰時體制下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超軍國主義的 兵營社會를 이루고 있다.

즉 ① 모든 住民은 各種 組織에 從屬되어 統制를 받고 있으며 工場, 企業

所, 協同農場의 作業班 등은 下向式 命令體系를 維持하고 있는 軍隊式 編成模型에 따라 小隊, 中隊, 大隊, 聯隊로 構成되어 있으며 ② 「全民의 武裝化」라는 旗幟아래 正規軍을 除外하고도 81年末現在 約 107萬의 붉은青年近衛隊(高等中學 高等班 男女學生), 約 308萬의 勞農赤衛隊(17~60歲 男女), 約 100萬의 教導隊(35歲까지의 軍除隊者)가 組織되어 있으며, 全學生을 軍事訓練에 動員하고 高等中學生以上에는 兵器를 支給하는 등, 北韓社會는 兵營社會의 一色을 이루고 있다.

### 3. 北韓의 階級政策과 階層構造

階層構造와 階級的 問題는 마르크스主義가 無階級社會를 指向하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既存의 社會構造를 階級的 對立이라는 觀點에서 批判하고 있는 이상, 특히 南北韓社會를 比較하는 경우 가장 核心的인 問題領域이다. 그런데 北韓社會의 構造와 變動에서 그들이 追求한다는 「平等」이데올로기 또는 文化的 目標과 가장 相反되는 現實의 矛盾은 바로 이 階層化 現象과 그 硬直性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北韓의 階層現象은 社會的 報酬의 自然스러운 分配過程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強制的인 「社會主義化政策」을 통해서 급격하게 造作된 政治手段이며 政治的 支配層에 의해서 意圖된 統制手段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各種 抵抗的 要素를 抑壓하고 除去하는 權力統制의 裝置로도 作用한다. 이런 意味에서 社會主義的 改造는 階層構造의 變造作業에 不過한 것이고 이는 바로 住民統制의 系列化를 뜻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에서는 憲法 第6條에 北韓은 「階級的 對立과 人間에 의한 人間의 온갖 榨取와 壓迫이 영원히 없어졌다」고 規定하고 마치 北韓社會에서는 階級現象이 없고 또 階級間에 對立도 없는 理想社會가 成就

된 것처럼 煽動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社會의 現實은 資本主義社會에서 말하는 資本家階層이 없다고 할지라도 支配와 被支配의 關係를 固着化시키려는 새로운 階層序列의 構造가 意圖的으로 造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政治的 側面에서 따진다면 오히려 平等社會를 표방하는 北韓共產社會에서 보다 큰 階層差別과 地域間的 隔差 그리고 職業間的 層化가 現實的인 事實로서 硬直化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韓國에 있어서도 아시아의 傳統的인 階級構造는 消滅되었다. 8.15 解放以後 土地改革에 의한 土地再分配政策으로 過去의 地主階級이 없어졌으며 國民經濟의 새로운 社會秩序를 形成하기에 이른 것이다. 自由民主社會에 있어서 階層은 그것이 社會의 有能한 엘리트를 吸收하는 通路로서, 또 能率向上의 裝置로서의 機能을 發揮한다는 데서 그 存在의 意義를 두고 있다.

北韓의 階層構造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의 社會構造는 開放的 階層構造를 原則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所得水準, 社會的 地位, 職業的인 關係등에 따라 多元的으로 區分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階層은 當事者들의 創意的 努力 如何에 따라 自由로 이동된다. 그러나 北韓의 社會構造는 意圖的으로 統制된 身分制的인 階層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階層上昇의 通路는 個人的 努力으로 解決할 수 없는 「出身成分」과 家庭의 「政治的 信任度」, 그리고 党性과 鬪爭經歷으로 단 순화되어 있다. 「核心階層」, 「動搖階層」, 「敵對階層」으로 3大分하고 있음으로써 比較的 單純한 階層序列이 制度化되어 있고, 職場에서의 地位는 바로 階層의 地位와 同一視된다. 1971年初에 當時의 社會安全省이 全 住民에 대한 成分審査를 綜合했다는 北韓 住民들의 成分別 階層構造는 80年 現在 別表와 같이 集計되고 있다(附錄1參照).

그러나 近來에 急激히 增大하는 專門的, 技術的 人力需要에 副應하기 위해 社會的 機能과 關聯하여 金日成集團도 階級政策의 問題點에 逢着하고 있

는 듯하다. 즉, 金日成은 「사람의 成分은 固定不變한 것이 아니고 늘 끊임없이 변한다」 또는 「本人이 지금 革命活動에 積極 參加하고 있는가 어떤가……에 의해서 評價해야 한다」( 金日成 저작선집 6 권, 1974, p.43 및 p.133 ) 고 主張했다는 것이다.

둘째, 韓國에서는 庶民層의 生活向上과 財産形成을 위한 施策을 펴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思想的으로 믿을 수 없다고 보는 敵對階層에 대해서는 더욱 細分하여 監視와 탄압을 強化하고 있다는 점이다( 附錄2 參照 ).

셋째, 職業統計에 의한 階層分類에 있어서 韓國에서는 自由業과 서비스業에 이르기까지 多岐多樣하나 北韓에서는 勞動者, 事務員, 協同農場員, 軍人으로 限定, 區別되며 各 職種間의 勞賃의 隔差가 크고 同一한 職種內에서도 政治的 信任度에서 비롯되는 役割에 따라 報酬上的 偏差가 크다.

## 4. 北韓의 社會的 統制

### 가. 組織的 統制

國家社會는 각기 追求하고자 하는 文化的 目標과 同時에 이를 達成하고자 하는 制度的 手段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統制하는 여러가지의 制度的 裝置를 具備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社會에 있어서나 個性, 理想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特定한 國家目標를 指向하여 나아가도록 하고, 주어진 社會理念에 부합되게 生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制度的인 統制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韓國과 같은 自由民主主義社會에서는 主權者인 國民의 代表들이 一定한 節次를 통해 制定한 法에 의한 社會統制를 基本으로 하고 있으며 政黨 및 社會團體들에 의한 住民統制는 原則的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社會的 啓導와 統制가 嚴格히 區分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政黨에 의한 住民統制를 基本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黨首領의 「敎示」와 黨決定이 法令보다 더 큰 拘束力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黨員은 社會構成員 가운데 그 一部分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勞動黨에 의한 住民統制는 주로 社會團體와 行政機構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一黨統制를 強行하는 統治體制를 構成하게 될 경우 黨이 統治力의 核을 擔當하는 것은 可能하지만 非黨員인 被統治階層에 대해서는 黨自體가 個個人을 直接的으로 統制할 수는 없기 때문에 一般大衆을 住居別, 年齡別, 性別, 職種別, 階層別로 組織化하여 이들 社會團體의 指導機關을 黨이 掌握하고 이들로 하여금 黨과 大衆과의 媒介的 機能을 擔當케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는 人間이 出生하면 託兒所와 幼稚園에 義務적으로 收容되고 各級 教育機關을 통해서 集團主義的 組織統制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住民들이 7歲부터 65歲(女子는 60歲)까지 1個以上の 各種 團體에 義務적으로 加入하여 集團生活을 해야 한다(但, 「敵對階層」中 制裁對象에 속하는 疎外階層은 除外되어 왔다). 이러한 性格을 띤 各種 社會團體를 年齡別로 區別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北韓 社會團體現況

團體名	加入對象	構成員數	備考
職業總同盟 (職總)	勞動者, 事務員 31~65歲(女60歲)	約250萬名	各種 職業同盟으로 構成
農業勤勞者同盟 (農勤盟)	協同農場員 31~65歲(女60歲)	約300萬名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社勞青)	青年男女 14~30歲	約400萬名	
民主女性同盟 (女盟)	女性 31~60歲	約270萬名 추계	
少年團	7~13歲	約350萬名	社勞青에서 指導

北韓의 모든 社會團體들은 党的 傘下 前衛組織이다. 이처럼 個人을 團體에 묶어두는 것은 党的인 行動指導와 思想的 管理를 徹底히 함과 同時에 有事時에는 最大의 社會動員 能力을 確保하려는데 그 底意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個人生活 統制

一般的으로 個人生活에 대한 社會的 統制는 어느 國家를 막론하고 있기 마련이지만 基本權과 관련되는 것은 그 制限을 最小限으로 縮小하는 것이 原則이다.

韓國에 있어서도 國民生活의 安全과 公共의 安寧秩序를 위하여 個人生活을 部分的 또는 一時的으로 制限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嚴格히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全體主義的 集團主義原則에 따라야 한다는 口實로 住民의 私的·公的 行動이 난폭하게 統制, 유린당해야 하는 것이 普遍화된 樣相이다. 여기서 北韓에서 實施되고 있는 住民生活에 대한 統制方式을 보면 大略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一切의 生活與件을 勞動黨이 掌握하고 그에 順從하지 않으면 삶을 이어갈 수 없게 하는 統制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예를 들면 ① 食糧 및 副食物配給制와 基本的인 重要 日用品 供給制를 實施하여 配置된 職場에서 일하지 않으면 食糧과 日用品을 求得할 수 없게 하고 ② 任意로 職業選擇 및 職場移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違反時에는 失職되어 生活手段을 잃게 되고 ③ 個人에 의한 住宅建設과 所有가 許容되지 않으며 就業人에 限하여 그 職位에 따라 所定된 號數의 空間을 配定받을 수 있다.

둘째, 各種 私生活을 干涉하고 統制하는 制度的 裝置를 갖추고 있다. 즉 5戶擔當制와 分組擔當制에 의한 監視統制를 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5戶擔當制는 1958 年末부터 北韓의 全世帶를 5戶로 나누어서 熱誠黨

員 1名을 宣傳員으로 配置하여 党的指導라는 名目으로 심지어 夫婦間의 愛情問題를 包含한 家庭生活 一切를 干涉하고 監視하는 制度이다. 또 分組擔當制는 職場內에서의 同僚間의 日常言動이나 上下間의 態度 등을 監視하여 密告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누가 分組擔當員인지를 알 수 없도록 秘密裡에 組織해 놓고 있다.

이로써 北韓 住民들은 家庭과 마을에서는 5戶擔當制에 의하여, 職場에서는 分組擔當制에 의한 監視속에서 他律的인 盲從的 生活만이 可能하도록 組織화된 統制社會에서 살고 있다.

세째, 사람들과의 人間的인 接觸마저 制限한다. 즉 이웃, 親族, 同鄉, 同窓 等の 關係를 따지는 것은 「宗派主義의 温床」이라 規定하고 「思想檢討」의 要因으로 指摘된다. 왜냐하면 傳統的인 血緣關係 등 모든 人間關係는 組織的 關係로 代替되고 統制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務 以外의 旅行이나 通行은 철저히 抑制되기 마련이다.

네째, 모든 住民들에게 金日成神格化學習, 各種 行事に의 義務的 參加, 其他 思想學習會 그리고 集團行動 등으로 私生活의 領域이 侵犯당하고 있다.

예컨대, 75年부터 大學敎員들에게도 이른바 「金日成勞作 萬페이지 읽기 運動」이 强要되어, 우선 神格化를 위한 政治學習에 열중하지 않으면 定期的인 檢閱時에 指摘되어 徵罰을 받게 된다. 특히 77年에 와서는 「金日成革命思想研究室」이라는 것을 全 地域의 党, 各級機關, 工場, 企業所, 農場, 軍部隊, 教育機關 등에 總 2萬7千餘個를 設置 運營하고 各單位 構成員들에게 每日 2~3時間 정도의 金日成神格化 講義 등 政治思想 學習을 義務的으로 받게 하고 있으며 週間에도 研究課題를 賦課한다는 것이다.

近來에는 權力の 世襲化를 위해 이른바 思想事業 強化의 名目으로 그 度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 다. 査察機構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모두 國家利益을 守護하고 社會의 安寧秩序와 公共福利를 위하여 國家機關이 内外의 反國家事犯을 다스리고 있으며, 우리 社會도 例外는 아니다.

그런데 共產社會에서는 「多數에 대한 少數에 의한 獨裁」가 實施되기 때문에 査察機構에 의한 住民의 監視와 統制는 共產獨裁政權의 一次的인 課業에 속하며 被治者를 위해서가 아니라 統治者를 위하여, 公共福利가 아닌 少數 特權層의 利益을 위하여 重疊的 監視와 嚴格한 住民統制가 實施된다.

그 中에서도 北韓의 統制方式은 더욱 徹底하고 야만적인데 그 理由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본다.

첫째, 査察機構의 重疊, 즉 4重5重의 監視組織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社會安全部, 國家保衛部, 社會主義法務生活指導委員會 등의 機關은 물론 黨 등의 各種 組織이 作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物證主義에 의해서가 아니라 「同志審判會制度」나 集團拷問方式인 이른바 思想檢討라는 名目으로 被疑者에게 虛偽自白을 強要하거나 造作하는 方法을 使用하고 있다.

셋째, 北韓 全 住民에 대한 階層別 「成分調查事業」을 頻繁히 實施하고 71年 以後에는 3大階層을 51個 小階層으로 細分하여 이에 따르는 監視와 統制를 強化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敵對階層의 制裁對象 中에는 「特別獨裁對象區域」에 強制移住되어 平生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人間以下의 待遇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大部分이다 (參照: 附錄 2의 分類表).

韓國은 法治主義에 立脚하여 모든 犯罪는 罪刑法定主義에 따라 刑事訴訟法上의 節次를 거쳐 證據中心으로 情狀을 參酌하여 處罰하고 있는데 비해서, 北韓에서는 黨의 意思에 따라 裁判하고, 黨의 決定에 反對意見を 提示하는 것조차 「反黨行爲」이며 「反革命分子」라 하여 處斷받게 되니, 이는 그들의 唯一專制性을 여실히 立證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5. 北韓의 住民生活 實態

### 가. 家庭生活

韓國의 社會가 1960年代以後 急速度로 近代化함에 따라 傳統的 大家族制度가 變化하여 家族의 크기가 점차로 縮小되고 있는가 하면 機能面에서도 뚜렷한 縮小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過去의 韓國家族은 政治·經濟·宗教·教育·娛樂의 모든 機能을 擔當했었으나 現代家族은 産業化와 더불어 그 機能을 점점 縮小시켜 다른 機關에 그 일을 委任하고 있다. 이리하여 家族生活은 性的秩序 維持, 子女養育 및 社會化機能, 家族員의 情緒的 安定 및 生活保護 등의 原初的인 機能과 더불어 愛情의 中心으로서의 活動이 重要視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家庭이 如前히 社會心理的 結合體로서 혹은 社會保障的 機能까지 어느 정도 遂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北韓의 家庭生活과는 큰 差異點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倫理道德의 基準이 달라진 點이다. 韓國에서는 尊敬心과 사랑하는 마음과 秩序를 尊重하는 氣風이 家庭으로부터 出發하는데 반하여, 北韓에서는 父母와 子息들간의 無條件的인 사랑과 尊敬과 信賴는 낡은 封建的 遺習이며 비록 父母라 할지라도 소위 「黨的 原則」과 「首領의 敎示」에 違背되는 行動을 하였을 때는 신랄하게 批判하고 所屬團體의 幹部에게 報告하는 것이 子女로서 지켜야 할 道德的 規範처럼 強要되고 있다. 따라서 年長者에 대한 尊敬하는 尺度도 그가 얼마나 「階級鬭爭」과 「社會主義建設」을 위해 密與하였으며 「首領」에 忠誠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說明한다.

둘째, 그것은 社會生活의 基盤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즉 家庭生活의 延長으로서의 社會生活이라는 觀念과는 달리 北韓에서는 社會生活의 한 細胞로서의 家庭生活만이 認定되고 있다.

세계, 그것은 子女에 대한 認識과 育兒問題에 대해 理解하는 角度가 다르다는 것이다. 育兒는 父母의 神聖한 責務이고 母性愛는 倫理道德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우리는 보는데 반해, 北韓에서는 「세살적 버릇을 여든까지」 끌고가기 위해 幼兒의 教育을 黨에서 맡아 黨에 忠實한 「붉은 戰士」로 키워야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의 어린이들은 父母의 사랑속에 자란 것이 아니고 「黨과 首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났다」고 믿게 하고 있으며, 金日成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親父母는 오히려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가 예사라는 것이다.

#### 나. 女性의 社會活動

集團主義 社會體制를 強化하고 있는 北韓은 傳來的인 韓國의 家族主義的 制度를 가리켜 封建的이고 共產主義理念에 어긋나는 것이라 단정하고 社會主義的 統制經濟의 實現을 위하여는 舊習인 家族主義 打破없이는 不可能한 것이라는 前提위에 이의 消滅을 企圖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解放直後 北韓 共產集團의 當面課題로서는 ① 傳統적인 家族制度를 打破하고 새로운 「社會主義的 家族」를 發展시킴으로써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을 強要하는 일이며 ② 家族의 構造와 機能을 變質시키는 反面에 이에 代身해서 女性의 社會的 地位를 相對적으로 「上昇」시켜 주는 計略이었다.

이렇게 하여 1946年 7月 女性의 社會進出이라는 名目으로 「男女平等權法令」을 公布, 女性勞動資源의 最大利用을 制度化하였고, '47년에는 우리 民族의 傳統的 家族單位를 規定한 戶籍制度를 廢止함으로써 血緣關係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또한 '58年 7月 「人民經濟 各 部門에 女性들을 더욱 引入시킬데 대하여」라는 內閣決定의 採擇으로 教育 및 保健部門에서는 30歲 以上の 사람만 勤務토록 하는 대신 30歲 未滿의 젊은 女性으로 하여금 漁船團의 船員, 炭鉞

鉞夫, 高射砲 射手, 덤프트럭 운전자 등 重勞動部門에까지 動員케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北韓은 이른바 「女性을 家庭으로부터 解放시킨다」는 口實을 내세워 女性을 勞力動員함으로써 主婦들로 하여금 家事に 專念할 수 없게 하고, 이밖에도 職場單位로 施設과 環境이 不良한 託兒所를 設置·運營하고 女性勞動力의 最大動員을 試圖하고 있다.

## 다. 衣·食·住 生活

### (1) 食生活

大體的으로 보아서 韓國은 아직까지도 傳統的인 食生活이 잘 維持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生活의 近代化와 함께 食生活은 量的 質的인 면에서 크게 改善되고 있다.

北韓은 食生活面에서도 크게 뒤지고 있다. 一般住民들은 아직까지 最低生活 즉 勞動力 維持를 위한 攝生爲主이며 量的 充足을 追求하는 水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配給制度 때문에 各者가 要求하는 個人消費의 絶對量을 充足하지 못하며 또한 食性和 기호에 맞는 食生活을 할 수 없음은 물론, 不足分의 食糧을 補充할 길이 막연하다.

北韓 住民은 1957年 11月 內閣決定 96號 및 102號로 「食糧販賣를 國家的 唯一體系로 할데 대하여」가 發表되면서 食糧의 配給制度를 實施하게 되었다.

食糧配給은 有償으로서 對象者의 身分과 職責, 地域, 時期 등에 따라 相異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農民(協同農場員)의 境遇에 있어서도 年末 「決算分配」에서 分配를 받게 되는데, 現物分配中 家族의 1年分 食糧(配給基準量)以外는 全量收買(供出形式)해 간다.

이와 같이 食糧配給制를 實施한 것은 不足한 食糧事情下에서 食糧을 얻기 위해서는 勞力戰線에 나가야 된다는 切迫感을 造成하여 不足한 勞動力을 動員함은 물론, 이를 통해 住民統制를 強化하는 方法으로 活用하려는데 있다.

이와 同時에 59年부터는 糧券制度를 實施하고 있는데, 糧券(200g)은 出張과 旅行할 때나 病院入院時와 軍人의 休暇期間中 家庭과 旅館이나 食堂에서 使用된다.

### 食糧配給基準量

(單位: g / 1人 / 1日)

區 分	配 給 量	混 食 比 率 (白米:雜穀)
黨 및 政權機關幹部	700 g	10 : 0
特殊軍人(輕步兵)	800 g	3 : 7
軍 人	700 g	2 : 8
重 勞 動 者	700 g	3 : 7
一般勞動者·事務員	600 g	2 : 8
大 學 生	600 g	2 : 8
高 等 中 學 生	500 g	2 : 8
人 民 學 生	400 g	2 : 8
被 扶 養 者	300 g	0 : 10

#### (2) 衣生活

北韓에서는 통상 勤務服(作業服)에 依存하고 있다. 韓服도 古典美의 愛護보다는 多분히 政治的, 經濟的 目的에서 追求되는 面이 强하다.

衣類의 需給面에 있어서 특히 織物의 絶對量이 不足한 實情이고 輕工業品에 대한 高物價政策으로 말미암아 衣類는 勞賃에 비해 高價이기 때문에 求得하기가 어려운 形편이다. 물론 規格化된 基本作業服과 內衣程度는 夏冬

의 季節에 따라 支給되고 있으며 다소 廉價로 提供된다.

그러나 紳士服 등은 高位層이나 特殊한 職業層 以外에는 價格上으로 입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며 특히 高級衣類의 統制政策은 事實上 一般住民들의 衣生活 劃一化를 不可避하게 하고 있는데, 對外的으로 部分的 開放이 不可避한 平壤 등의 都市에서는 住民들 특히 여성들에게 出退勤 등 外出時에는 化粧을 하고 양장이나 색깔이 있는 옷을 입도록 勸獎하는 傾向이 요사이 나타나고 있다.

階 層 別 衣 類

區分 職業別	夏 期			冬 期			保有
	外出및出張	勤務時	平常時	外出및出張	勤務時	平常時	
勞働者	Y샤스(데드롱) 紳士服下衣 (데드롱)	混紡織 作業服	남방샤스 (데드롱)	麻織外套 (데드롱洋 服)	混紡織 作業服	<다후다> 솜冬服(上 衣)데드롱 下衣	1~2 着
事務員	Y샤스(데드롱) 紳士服下衣 (毛織)	비날混紡 作業服	남방샤스 (데드롱)	毛織外套, 紳士服下衣 (毛織)	솜冬服 混紡織	<다후다> 솜冬服(上 衣)데드롱 下衣	1~2 着
學 生	남방샤스 (白色綿織) 비날混紡 下衣(黑色)	上 同	上 同	<다후다> 솜冬服上衣 비날混紡下 衣	上 同	上 同	1~2 着

出處：國土統一院分析資料(北韓概要, 1980)

## (3) 住生活

北韓에서는 建物の 個人所有는 물론 個人建築도 認定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條件下에서 個人的 趣向에 알맞는 設計는 더우기 있을 수 없다. 다만 階層과 職位에 따라 規格화된 몇 개 等級의 獨立家屋 또는 아파트를 賃貸形式으로 割當받는다. 따라서 一般住民의 住生活樣式은 대체로 아파트型 또는 聯立住宅型의 集團主義的인 生活樣式이 支配的이며, 文化生活이란 거의 고려되지 않고 生活空間도 共同的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住生活은 家庭的 삶의 空間이라기 보다는 合宿所와 같은 特色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에는 「밥工場」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루 勞動에 지친 住民들은 自己가 밥을 짓는 대신 糧券을 내고 「밥工場」에서 만든 밥과 副食을 받아 갖고, 自己 房에 가서 먹는 사람이 大部分이다. 따라서 韓國的 特色인 情緒生活의 根據地라는 意味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결국 住民들을 集團的으로 收容함으로써 이들의 一舉一動을 黨에서 指揮統制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며 規格화된 環境속에서 生活하는 가운데 住民들의 思考마저도 規格化하려는데 意圖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住宅不足現象에 대한 住民들의 不滿이 대단하다.

## 라. 冠婚喪祭와 風習

解放以後 南北韓은 時代變遷에 따라 옛 生活樣式이 많이 변했고 美風良俗의 概念도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問題는 그 基本精神과 本質的인 內容이 繼承되고 있는가의 與否는 民族的 傳統과 關聯된 重要한 問題이며 이런 面에서 南北韓은 큰 差異가 있다.

韓國에서는 冠婚喪祭의 形式과 節次의 간소화는 있었으나 그 精神과 本質은 그대로 繼承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이 分野에서도 根本的인 變化를 가져왔다.

北韓에서는 모든 民俗과 生活習性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的

性格의 社會主義的 內容」이란 口實아래 傳統的인 冠婚喪祭儀式까지도 完全히 抹殺하려 하고 있다. 55年에서 60年사이에 冠婚喪祭簡素化運動을 展開하면서 이러한 儀式을 社會的 要式行爲에 그치게 하였다. 그 實態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婚禮에 있어서 北韓에서는 當事者間의 自由로운 意思에 따라 配偶者를 選擇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各自가 속해 있는 職場이나 團體의 黨細胞 委員長에게 事前承認을 받아야 한다. 結婚 自體를 男女間의 愛情보다는 社會主義的 革命戰士間의 結合이라는 점에서 「붉은 革命家族」의 誕生으로 規定하고 結婚의 意義를 革命力量 強化에 두고 있다.

따라서 配偶者 選擇에 있어서도 黨性和 出身成分, 職業과 關聯하여 制限條件이 많이 作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黨幹部, 軍官, 航空士 등의 結婚은 黨의 特別한 統制를 받는다.

그리고 結婚年齡까지도 政治的, 經濟的 理由때문에 黨에서 統制하고 있다. 1976年7月 政務院 決定에 의하여 男子는 32歲, 女子는 28歲가 넘어야 結婚이 可能하다. 結婚式에도 祝賀客을 30名以內로 制限하여 「金日成肖像畫」를 걸어 놓고 主禮가 「革命家庭의 誕生」과 「黨과 金日成에 대한 忠誠」을 盟誓하는 節次에 그치고 있다.

둘째, 葬禮에 있어서 北韓에서는 原則적으로 人間으로서의 利用價値가 다한 勞動力이 소진된 物體를 處理하는 節次로 간주하기 때문에 韓國에서처럼 故人을 哀悼하고 명복을 빌기보다는 하나의 主觀을 埋葬하는 事務的인 일로 取扱되고 있다.

따라서 儀式節次를 極히 簡素化하여 1日葬을 原則으로 하고, 葬禮車를 賃貸하거나 職場, 協同農場의 トラック 또는 달구지를 빌려 시체를 共同墓地로 運搬하거나, 都市의 경우 便宜協同組合과 綠化事業所 등이 葬禮 一切를 맡아서 처리해 준다. 葬地는 指定된 共同墓地만을 쓸 수 있다.

셋째, 祭祀에 있어서도 傳統的 祭禮는 迷信으로 看做할 뿐만 아니라 祖上

崇拜를 復古主義的 病弊라고 批判하기 때문에 基本的인 節次는 無視된다. 그대신 祭祀를 통하여 思想教育의 效果를 노리기 위하여 祭日은 故人의 革命鬪爭에 대한 회상과 批判의 기회로만 勸獎하고 있을 뿐이다.

그 다음으로 名節 역시 歲時風習 自體를 排擊하는 立場이다. 그들은 설날, 秋夕, 寒食에 행하는 차례와 省墓를 虛禮와 浪費로 看做하고 傳統的 民族固有의 名節은 일체 認定하지 않으면서, 共產主義思想 鼓吹와 金日成 神格化 및 그 權力繼承을 위해 새로이 名節로 指定한 소위 社會主義的 名節은 盛大히 祝賀하고 있다. 예컨대 金日成生日(4月15日)을 公休日로 하고 金正日生日(2月16日)을 慶祝日로 하여 各種 祝賀行事와 선물보내기 運動 등을 대대적으로 展開하고 있는가 하면 政權創建日(9月9日), 勞動黨創建日(10月10日), 社會主義憲法制定日(12月27日) 등은 요란한 記念行事와 慶祝놀음을 벌이고 있다.

#### 마. 信仰과 宗教

北韓의 社會主義憲法 第54條는 「公民은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 宣傳의 自由를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실은 反宗教宣傳의 自由만이 保障되고 있다. 舊憲法 第14條에는 「公民은 信仰 및 宗教儀式 舉行의 自由를 가진다」고 規定해 놓았으나 實際로는 宗教抹殺政策을 써왔기 때문에 新憲法에서는 이러한 것을 名文化한 것에 불과하다.

8.15 後부터 宗教에 대한 制限, 彈壓, 抹殺의 3段階政策을 통하여 1955년까지 모든 宗教團體와 宗教儀式을 抹殺하였고 모든 宗教人들을 「反動分子」라는 罪名으로 학살하거나 迫害를 가하였다. 宗教人과 그 家族을 「敵對階層」으로 分類하여 놓고 監視와 制裁의 對象으로 삼아 왔으며, 宗教團體의 財産(土地, 建物), 施設物 등을 全部 沒收했음은 물론이고 이를 協同農場의 倉庫, 託兒所, 休養所 등으로 變造하여 使用하고 있다.

北韓을 訪問한 한 日本人은 案内員에게 北韓의 基督教 實情을 質問했을 때

다음과 같은 對答을 얻었다고 한다.

“물론 平壤市에는 教會가 없다. 全國 어디를 가도 단 하나의 教會도 찾아 볼 수 없다. 산속에는 몇개의 절이 남아 있지만 그것들도 곧 없어질 것이다. 朝鮮에는 基督教도 仏敎도 禁止되고 있지는 않다. 信仰의 自由는 保障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느님에게 정성껏 빌어보았자 먹을 음식이나 살 집을 얻을 수는 없다. 金日成 首領의 指導 밑에서 熱心히 일한다면 糧食, 衣服, 住宅의 걱정은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基督教을 믿는 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現實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北韓 共產集團은 경우에 따라 架空的인 宗教團體를 捏造하여 對南戰略과 對外的 活動에 利用하는 術策을 부리기도 한다. 1972年 南北對話가 시작되자, 「朝鮮基督教徒聯盟」이니 「朝鮮 仏敎徒聯盟」등의 偽裝團體를 만들어 그 이름으로 韓國의 一部 宗教人들과 統一戰線 形成을 摸索하고자 74年부터 對南宣傳에 活用하고 있는가 하면 對外的으로 國際輿論을 誤導하고 「連帶性」을 強化하려는 企圖下에 左傾宗敎人들이 參加하는 國際會議에 代表를 參加시킨 바도 있다.

그런데 酷毒한 宗教抹殺에도 불구하고 土俗信仰인 성황당, 기우제, 무당, 푸닥거리 등은 休戰後에 禁止令이 내려졌으나 아직도 점, 관상, 푸닥거리는 秘密裡에 行해지고 있다하니 北韓住民들의 각박한 精神生活의 斷面을 알 수 있다.

## 6. 北韓文化의 特徵

### 가. 構造的 特徵

北韓文化의 構造的 特徵을 考察해 보는 것은 바로 그들의 社會文化의 屬性을 쉽게 把握하는 길이 될 것이므로 그 特徵을 自由民主社會인 우리의 그것과 對比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北韓文化의 構造上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무엇보다 全體主義의 集團主義 性格을 들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文化構造는 항상 支配者의 政治目的과 密着되어 있다. 이것이 民主社會에 있어서의 文化의 價値性과 根本的으로 相異한 點이다.

둘째, 民主社會의 文化가 開放的 文化라고 한다면 北韓社會의 文化는 「閉鎖的 文化」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은 自由世界에서 오는 異質的인 價値가 그들 社會内部에 浸透하여 올 수 없도록 警戒하고, 西歐文物의 流入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民族의 歷史를 捏造하여 虛構的인 「革命傳統」을 조작하였을 뿐 아니라 獨裁者를 神格化하여 權力의 世襲化를 劃策하고 있는 北韓社會 内部에 正常的인 價値와 文物이 流入되는 경우 北韓의 現體制는 存立의 바탕을 喪失하고야 말 것이다.

세째, 우리의 民主社會의 文化構造가 「多樣性」을 가진 것이라면 北韓과 같은 極端的인 共產獨裁社會의 그것은 單一的이고 劃一的이다. 따라서 그들의 集團主義的 唯一體制下의 文化構造는 매우 單調롭다.

네째, 民主社會의 文化構造가 自律的인 것임에 대하여 그들의 文化는 他律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黨의 支配下에 強制的으로 造成된 것이며, 모든 文化活動도 黨의 統制下에 組織動員되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文化는 個人的 創意性을 無視한 集團主義的 組織萬能主義的이고 支配者의 政治的 目的達成과 그 效果를 導出하기 위한 利用物로 되고 있다.

#### 나. 機能的 特徵

앞에서 指摘한 構造的 特徵을 가진 北韓文化가 機能的인 面에서 어떠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프롤레타리아(黨)獨裁의 統治와 唯一體制의 妥當性을 住民들에게 受容케 하는 住民敎化의 方法이며, 支配勢力의 永續性을 保障하는 手段이다. 즉 그

들의 文化活動은 모두 金日成 唯一支配體制를 合理化해 주는 一次的인 機能을 擔當한다. 따라서 南北韓關係에 있어서는 對決的 使命感을 強調시키는 役割을 擔當하기도 한다.

둘째, 生産能力 鼓吹를 위한 触媒手段으로 利用되며 또한 住民들로 하여금 「革命思想」으로 武装시켜 공고한 團結을 다지는 結合手段으로서의 機能을 擔當한다.

셋째, 모든 政策遂行을 위한 教導的 또는 先導的 役割과 혹은 이의 保全的 役割을 擔當한다.

北韓의 모든 文學·藝術作品들은 「革命的 利益」에 服從해야 한다는 名分에 따라 「首領」과 黨을 讚揚하고 그것들에게 忠誠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면 政策遂行을 고무하는 것들 뿐이다.

다음은 「어머니 黨의 품」이라는 노래의 한 구절인데 이는 北韓文化의 特徵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例라고 할 수 있다.

“한없이 따사른 수령님 사랑  
그사랑 안겨주는 자애로운 품  
당이어 당이어 어머니 당이어  
한생을 다바쳐 받들어 가리라.”

(出處: 「조선예술」 80年 10月號, p.50)

#### 다. 生態的 特徵

北韓文化의 生態 즉 生理的 現象으로서 가장 表出되는 것은 첫째, 人間性의 無視와 無慈悲性을 들 수 있다. 그들의 文化面에서나 社會生活關係에서 휴머니즘이란 찾아보기 힘들다. 즉 革命的 名分을 위해서는 모든 人間關係를 犧牲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獨善的이고 直線的이다. 共產主義者의 信條 가운데는 「黨은 언제나 正當하다」라는 表現이 있다. 資本主義社會는 事實의 次元에서 非難하면서

도 共産黨이 支配하는 社會를 事實의 次元에서 批判하는 것은 容納하지 않고 오로지 이데올로기 次元에서 그 社會現實을 正當化할 뿐이다.

세째, 組織生活에서 연유한 集團意識이 강하게 나타난다.

네째, 極端的인 性格을 가진 者들 즉 強硬派가 得勢한다. 一般的으로 그들은 中道派나 灰色分子들은 極右派보다 더 敵對視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疑心이 많은 것도 指摘할 수 있다. 異質的인 世界와의 接觸에서 는 물론 同志的인 人間關係에 있어서도 相對方을 항상 警戒한다. 특히 南北對話에 있어서 그들은 相對方의 眞意를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北韓의 各種 新聞과 出版物 등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生態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그들의 表現方式은 항상 言辯的이며, 宣傳과 讚揚을 일삼는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敘述的이다. 北韓의 매스컴이 金日成이란 세 글자 위에 敬稱用 修飾語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둘째, 그들의 表現方式은 感情的이고 戰鬪的이고 呼訴的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客觀的이고 批判的이다.

세째, 그들의 表現方式은 支配者에 관해서 尙古的 또는 未來幻想的이다. 즉 過去를 美化하고 未來를 幻想하는 傾向 등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金日成의 過去를 偉大한 「革命傳統」으로 또한 金日成 主體思想이 「휘황찬란한 人類의 未來를 밝혀주고 있다」는 등 宣傳을 하는 例를 볼 수 있다.

## 7. 北韓 社會·文化的 問題點

이상으로 北韓 社會·文化 實態에 관한 몇가지의 事項에 관해서 檢討하였

다. 다음은 北韓共產體制가 어떠한 問題點을 안고 있는가를 他共產圈과도 比較하면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障礙를 造成하고 있는 北韓共產集團의 性向에 關係서 檢討하기로 한다.

#### 가. 思想의 劃一化

金日成集團이 그들의 虛構的인 體制를 維持하기 위해 強行하는 思想敎養事業의 方式은 他共產圈과 比較해서 하나의 特性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世界의 共產國家들의 事情은 北韓에서와 같이 民族의 傳統的인 文化와 風習은 물론 傳統的인 宗教를 抹殺하거나 知識人들의 活動을 抑壓하는 事例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고슬라비아의 事情을 보면 多民族國家이며 이 나라의 特異한 地理的 環境에 의한 影響도 있겠으나 歷史的으로 形成된 文化의 多樣性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다. 宗教도 正敎, 카톨릭敎, 回敎 等 세가지가 共存하지만 共產黨이 이러한 事情을 劃一的으로 處理하거나 宗教를 抹殺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뿐 아니라 유고 共產黨은 1958年4月 第7次 黨大會에서 採擇한 新綱領에서는 黨의 指導的 役割을 否定하고 있다. 즉 共產黨에 의한 政治權力의 絶對的 强占을 普遍的인 不變의 原則으로 내세우는 敎條主義는 不當하다는 것이며 人間을 政治目的에 從屬시키는 것에 反對하면서 社會主義의 至上目標가 個個人的 幸福에 있음을 强調하고 있다. 1964年12月 第8次 黨大會에서는 黨員들에게 黨幹部와 黨의 決議를 批判하는 것도 許容했다.

폴란드에서는 소련의 壓力과 干涉 때문에 자주 受難을 겪고 있지만 宗教活動과 知識人의 活動이 돌보인다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이 나라에는 1萬個가 넘는 敎會가 있으며 카톨릭 祝祭日이 如前히 國慶日로 認定되어 復活節이나 聖誕節 때면 그 나라를 訪問한 外國人들이 共產國家에 와있다는 것을 잇을 程度로 盛大한 祝祭行事를 벌여 왔다. 果然 폴란드는 民族의 傳統

的 宗教가 嚴存하고 있으며 카톨릭教가 如前히 國民들의 生活에서 精神的 支柱가 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르샤바에는 神學아카데미도 있고 바르샤바 南西쪽 300 km에 있는 「켄스트·호부오」라는 小都市에 는 카톨릭 總本山이 되는 寺院이 있는데 每年 8月이 되면 西方側에서 도 數萬名의 巡禮者가 모여든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知識人의 活動이 活潑하고 言論自由에 관해서도 이미 他界한 아담·샤프教授의 注目할 만한 活動이 立證해 주었다. 이러한 事例를 보면 北韓과 比較해서 說明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事例라고 생각될 程度이다.

유고와 폴란드, 東獨 等에서는 西方側의 新聞雜誌를 볼 수 있으며 中共에서도 文化革命期에 抑壓당했던 宗教活動이 서서히 復活되고 新聞內容이 大衆化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言論의 自由나 知識人의 自由活動이 없다는 것은 天下에 잘 알려진 事實이며 宗教가 完全히 抹殺되고 그대신 「金日成主義」라는 絶對的 信仰과 黨이라는 「教堂」이 있을 뿐이며 住民들은 每日 「熱誠黨員」들의 입을 통해서 「教主」인 金日成의 主體思想이라는 「教理」와 이를 實踐하기 위한 方針으로서의 「教示」를 政治學習이란 名目으로 說教당해야 한다.

北韓憲法 第54條에는 「公民은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가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宗教를 反對하고 「金日成主義」라는 「邪教」를 代를 이어 信奉할 義務만을 住民들에게 要求하고 있는 것이 北韓의 實情이다. 信仰이란 人間의 內面生活의 問題이기 때문에 그 自由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人間이면 누구나 源泉的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自己의 信仰을 他人과 같이 하기 위해서 活動하는 自由가 없다면 憲法 第54條는 宗教活動을 彈壓하는 것 밖에는 아무런 意義가 없는 것이다. 北韓은 住民들의 思想的 統制를 통하여 金日成父子와 勞動黨에 대한 絶對的 服從을 强要하고 있다. 共產國家에서 思想的 統制를 한다는 것은 常識이나, 그러한 統制는 黨指導部가 提示한 政治思想이나 決定을 黨員들에게 信奉하도록 要求하는 것

이 一般的 傾向이며 北韓처럼 全 住民에게 劃一的으로 强要하는 事例은 찾아보기 어렵다.

北韓共產集團은 憲法에서도 思想的 劃一化를 分明히 하고 있다. 즉 「全體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第2條)과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自己 活動의 指導의 指針으로 삼고」(第4條), 「思想革命을 強化하여 온 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化 한다」(第11條)고 規定하고 있다.

1974年부터는 「온 社會를 主體思想으로 一色化하자」고 宣言하여 唯一思想體系 確立의 方針을 明確히 했다. 그리하여 住民들에게 金日成의 「永生不滅의 主體思想을 자기 뼈와 살로 만들자」 또는 「首領의 革命思想대로 思考하고 行動하라」고 要求하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모든 勤勞者들이 首領에 대한 끝없는 忠實性으로 가슴과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는 것이 基本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에서 北韓住民들은 男女老少할 것 없이 各種 組織을 통해 最少한 每日 2時間 以上の 政治學習을 받는 것이 日課로 되어 있다.

즉 放送聽取 등의 自由도 없는 住民들은 外部世界와의 情報가 遮斷된 狀態에서 日常生活에서 思想的으로도 金日成思想만을 「配給」받고서 「首領」의 思想意志대로 思考하며 行動하고 生活하도록 强要당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住民들이 生存하기 위해서는 勞動을 提供하는 代價로 基本生活에 必要한 物資와 教育과 医療機會를 分配받아야 할 뿐 아니라 行動指針으로서의 思想과 思考도 配給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唯一思想體系 確立이라는 것은 「思想配給制」를 確立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北韓共產集團은 主體思想이란 「사람이 自己 머리로 思考하고 判斷하여 自主的 創造的으로 活動해야 한다」는 基本立場에서 出發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으나 實際로는 그와 正反對로 他人인 金日成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대로 思考하고 行動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强制하고 있다. 그들은 共產主義 建設을 위해서는 大衆活動의 意識化와 組織化가 要請되며 이를

推進하기 위해서는 党的 唯一思想과 唯一意志에 基礎한 統一的 中央集權的 計劃性있는 指導가 切實하다는 것인데, 그러한 指導는 「首領」의 存在에 의해서만 保障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首領」이란 黨員과 大衆의 意思를 集大成하는 「唯一한 最高頭腦」이며 首領과 党, 階級, 大衆은 不可分의 一體라는 것이다. 그리고 首領의 思想은 數百萬 大衆意思의 最高表現이니 党的 「唯一思想」이라고 強辯하면서 主體思想一色化運動의 正當性을 宣傳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革命家가 잠이 모자라서는 살 수 있으나 金日成主義로 確固히 武装하지 못하면 永遠히 죽고 만다」고 金日成主義의 絶對性을 主張하고 있으니 그 程度를 짐작할 만 하다.

이와 같이 北韓에서는 宗教抹殺과 이에 代置한 金日成主義라는 새로운 「敎理」에 의해서 金日成이 要求하는 이른바 共產主義的 「主體型」의 人間改造가 進行되어 왔고 새로운 世代들은 託兒所 幼稚園에서 「主體型」의 人間으로 鑄造되어 왔다. 그러면 北韓共產集團이 思想의 劃一化를 통한 集團主義原則의 貫徹를 強調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그들의 政治的, 經濟的 事情과 對南戰略이라는 側面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北韓住民들이 外部의 思想이나 宗教의 影響을 받게 되면 批判力이 생기고 金日成의 捏造된 背景과 虛構的인 體制에 挑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一人獨裁體制를 防禦하고 이를 世襲化하여 永續시키기 위해서는 排他的이며 閉鎖的인 方法으로 金日成을 神格化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思想의 劃一化를 強行하고 있다.

둘째, 낮은 技術水準과 貧弱한 資本을 바탕으로 하여 閉鎖的 自給自足體制를 維持해 나가자면 生産性을 높이기 위해서 耐乏을 強要하고 勞動力을 榨取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히 支配者 個人偶像化를 基調로 한 思想刺戟的인 方法을 動員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對南赤化野慾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全社會를 兵營化하고 全住民을 金日成思想으로 철저히 武装시켜 金日成의 命令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突擊할 수 있는 戰鬪的 忠誠心을 鼓吹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 나. 社會의 密閉化

共産體制가 閉鎖的인 性格을 갖게된 原因中의 하나는 冷戰體制와도 관련이 있었다고 하겠다. 스탈린時代에는 모스크바를 통하지 않고 共産圈 相互間에 直接 接觸하는 것은 禁忌로 되어 있었고 더우기 自由圈과의 接觸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른바 鐵의 帳幕이 嚴存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 死亡後에는 東歐共産諸國은 急速히 開放化되어 現在는 東歐各國間에는 비자없이도 往來할 수 있을 程度로 그 거리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西方側 旅行者들에게까지도 經濟協力 또는 觀光誘致의 一環策으로 門戶를 크게 開放하고 있는 實情이다. 유고에서는 觀光에 의한 外貨收入을 위해서 아드리아 海岸의 民間人들에게 外國觀光客의 民泊까지 許容하고 個人經營의 飲食店 開業도 政府가 支援하고 있다. 심지어 75萬 以上の 勞動者들이 高賃金を 찾아 西方側에 進出하고 있어 技術人力의 流出을 念慮할 程度이니 그 開放性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共産圈의 變化와 關聯해서 特記할 만한 事例는 불가리아의 觀光政策이다. 불가리아는 「小蘇聯」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親蘇的 傾向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奇蹟的으로 觀光自由化에 成功을 하고 있다. 이미 스탈린 死後 곧 國營旅行社가 中心이 되어 黑海岸의 開發計劃에 着手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當時의 情勢下에서는 극히 대담한 措置였다고 할 것이다. 俗稱 「붉은 리비에라」라고 불리우는 여름의 黑海 休養地에서는 西方觀光客이 殺到하여 自由化가 가장 뒤진 불가리아라고는 想像도 못할 珍風景이 展開된다는 것이다.

헝가리 역시 1961年의 新路線 以後 國民의 海外旅行이 自由롭게 許容되어 78년에는 헝가리人의 海外旅行者數가 35萬名에 달했으며 이 나라를 訪問한 西方人의 數도 120萬名에 이르렀다고 한다. 더우기 1956年 動

亂時에 西方側으로 逃避했던 20萬 難民中 自進歸國한 7萬을 除外한 人員이 外國에 永住하고 있는데 이들에게까지도 一時 歸國하여 近親者를 相逢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離散家族問題가 解決된 셈이다.

東歐에서 가장 閉鎖的이며 後進的인 알바니아까지도 1966年부터 西方側에 門戶를 開放하여 觀光客 誘致를 積極化했다고 한다. 그들도 困難한 經濟事情을 克服하기 위해서 孤立政策으로부터의 脫皮가 不可避했을 것이며, 技術도 資本도 貧弱한 그들로서는 天然資源이라도 活用해서 外資를 얻고자 試圖했을 것이다.

中共은 鄧小平 登場 以後 意慾的인 4大現代化를 推進하기 위해 門戶開放을 서두르고 있는 傾向이다. 例를 들면 臺灣關係로 外國人에게는 一切 開放하지 않던 福建省까지도 觀光名所로 改造하고 北京 13陵 近處에는 골프장을 만들고 主要都市에는 觀光호텔을 建築하는 등 開放을 위한 準備를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西歐 各國에는 勿論 美國·日本·카나다에도 많은 留學生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中共은 毛澤東 死亡과 이른바 4人幫打倒 以後 急激하게 推進된 近代化過程에서 적지 않은 矛盾點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前 主席 華國鋒도 言及했듯이 野心的인 近代化 計劃을 無理하게 推進하여 産業間의 不均衡을 招來한 것도 問題點이지만 近代化의 早期達成을 위해 鄧小平이 主張한 實用主義 路線과 開放政策은 드디어 「民主主義의 自由保障」을 要求하면서 데모와 罷業을 일삼는 急進派를 登場시켰고 마르크스主義와 毛澤東思想을 正面으로 否定하는 事態까지 일으켜 급격한 「民主化」要求에 制動이 걸리는 契機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은 左右의 思想鬭爭段階에서 벗어나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發展시켜 安定 團結을 圖謀하고 近代化를 밀고 나간다는 中共黨 3中全會(78年 12月)의 決議 以後의 民主化推進過程에서 나타났는데 中共으로

서는 解決하기 어려운 딜레마로 보인다. 이러한 經驗的 事例은 一般的으로 閉鎖性을 長期間 維持해온 共產社會가 現代化를 推進하고 開放性을 試圖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中共의 이같은 開放化 推進上에 나타나는 딜레마를 불적에 極端的인 閉鎖性을 特性으로 하는 北韓共產集團이 現代化를 主張하면서도 現體制를 維持하기 위해서 開放化를 두려워하는 까닭의 한 면을 알 수도 있다.

그러나 中共은 全國人民代表大會 第5期 第2次會議(79. 6.18~7.1)의 諸決定에서 지난 30年間の 革命의 소용돌이와 混亂의 無秩序한 時代를 清算하고 비록 制限된 條件下에서 일지라도 적어도 理論的으로는 實用主義 路線에 따라 民主的인 法體制의 整備와 市場經濟原理를 導入하는 등 近代化와 開放化를 指向하는 意慾을 보여주는 한편 79年 8月에는 40萬의 勞動人力을 이탈리아 등에 輸出하기로 契約하고 많은 人力輸出을 推進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共產國家들의 一般的 傾向과는 달리 北韓은 時代潮流에 逆行하여 「鐵의 帳幕」을 固守하면서 社會開放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外國에의 長期留學은 물론 技術習得을 위한 短期訓練도 反體制性이 전혀 없다고 보는 高位幹部의 子弟에게만 許容하고 있으며, 부득이 外國語를 공부하기 위해 非共產圈國家에 留學을 보내는 경우에는 教育을 이수한 후에 北韓으로 돌아오기를 拒否하거나 外國文物의 影響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는 國家를 피하고 北韓보다 後進國家에 보낸다는 것이다.

또한 外國技術者의 招請까지도 두려워하는 정도이니 一般住民들이 外國旅行을 한다는 것은 想像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특별히 招請된 外國人과 外交官까지도 一般住民과의 接觸을 막기 위해서 北韓內에서의 旅行을 철저히 統制하고 있다.

그리고 經濟的 困境과 過重한 外債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金剛山 등 北韓의 아름다운 觀光資源을 一般觀光客에게 開放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北

韓共產集團이 얼마나 社會를 密閉化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對內的으로는 住民을 政治的 成分에 따라 階層을 分類하여 差別과 制約을 하기 때문에 階層間 移動이나 職場移動도 할 수 없다. 身分에 따른 差別은 中世의 封建社會를 방불케 한다. 이러한 社會的 移動의 封鎖에 더하여 居住移轉이나 旅行의 自由도 없으며 住民들 相互間의 意思疏通의 機會도 制限하고 新聞, 放送 등 報道媒體도 黨에서 指定한 것만 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들이 北韓社會를 이상과 같이 密閉化하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대략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北韓共產集團으로서는 捏造된 革命傳統과 그것에 기초하여 構築된 虛構의 神格化體制와 世襲化策動을 그대로 維持해 가기 위해서는 外來思潮와 文物의 浸透를 막아야 할 事情이다.

둘째, 經濟的으로는 落後되고 生活水準이 낮은 現實에서 北韓住民들을 기만하여 宣傳하여 온 이른바 人民의 地上樂園을 對外的으로 比較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苦痛이 될 것이다.

셋째, 外來思潮는 住民들을 機械的 人間으로 만드는데 妨害가 될 뿐만 아니라 矛盾에 가득찬 北韓共產體制의 存立을 위협하는 批判의 準據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째, 低水準의 生活을 하고 있는 住民들과의 接觸을 막을 뿐 아니라 要塞化된 北韓 全域의 兵營社會를 隱蔽하려는 意圖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北韓도 經濟의 落後性을 脫皮하고 歷史의 進展에서 落伍되지 않기 위해서는 開放을 試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近來에 그러한 조짐이 部分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構造的인 矛盾 때문에 深刻한 陣痛을 겪어야 할 것이다.

다. 體制의 軍事化

北韓共產集團은 모든 分野에서 軍事目的을 最優先으로 하며 全體制와 全地域을 軍事化한 極端的인 軍事主義的 集團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北韓憲法 第 14 條에는 「全人民的 全國家的 防衛體制에 의거하여 自衛的 軍事路線을 貫徹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1962年 12月 14日 党中央委員會( 4期 5次會議)에서 이른바 4大軍事路線(全民의 武裝化, 全國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全軍의 現代化)에 의한 軍事力 強化를 決定하였으며, 뒤이어 1964年 2月 27日 党中央委員會( 4期 8次會議)에서는 赤化妄想을 劃策하기 위한 「3大革命力量強化」의 一環으로 北韓全域을 對南赤化革命戰爭에 對備한 「革命基地」로 強化할 것을 宣言하였다. 北韓側이 이와같이 基本路線을 貫徹하기 위하여 住民生活을 極度로 犧牲시켜 가면서 戰爭準備에 狂奔하여 왔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北韓에서는 全民의 武裝化方針에 따라 幼稚園에서부터 射擊場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에게 총을 다루는 訓練을 시키며 모든 學校나 職場의 人員들도 軍隊式으로 組織하여 軍事訓練을 實施하고 있다. 더우기 軍高位幹部들이 黨政治委員 또는 秘書를 겸직하고 있고 黨政治局 政治委員중에는 軍幹部가 약 30%의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으로도 選出되고 있다. 모든 作業이나 活動도 遊擊隊式이니 또는 速度戰·突擊戰·電擊戰·○○日戰鬪·○○高地占領 등의 戰鬪的 用語를 갖다 붙여 軍隊式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學校教育에서는 軍事訓練을, 體育에서는 國防體育을 매우 重要視하고 있다. 이는 軍事動員體制인 北韓社會가 兵營化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北韓經濟가 軍需工業 爲 主로 運營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事實이지만 北韓地域에 建設되는 施設과 生産되는 物資는 軍事目的을 위해 마련되는 것이 많다. 하나의 예로

서 平壤의 地下鐵도 交通量으로 보아서 住民들의 交通手段으로 利用하기 위해 建設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그 構造로 보아 「全國의 要塞化」를 위한 施設로서 마련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北韓은 非戰時에 世界에서 가장 過重한 比率의 軍事的 負擔을 안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別表·參照)

各國의 軍事負擔率 比較

國名		區分 年度	軍事費 / GNP (%)	兵力 / 人口 (男 18-45세) (%)
			1977	1978
共 産 圏	루마니아	아	1.7	4.1
	불가리아	리	2.5	8.4
	항가리	리	2.6	5.2
	폴란드	드	3.0	4.0
	체코	코	3.8	6.1
	유고	고	5.2	5.6
	동독	독	5.9	4.6
	중공	공	8.5	2.4
	알바니아	아		7.6
	쿠바	바		8.4
소련	련	11.0 ~ 13.0	6.7	
북한	한	※ 23.0	※ 22.0	
自 由 圏	한국	국	6.5	8.1
	일본	본	0.9	0.9
	미국	국	6.0	4.7
	이스라엘	라 엘	29.9	23.0

資料：英國 國際戰略問題研究所， Military Balance 1978 ~ 79.

北韓은 韓國이 經濟建設에 熱中하고 있었던 것과는 對照的으로 1960年代 부터 每年 總歲出豫算의 19 ~ 33% 정도를 軍事費로 支出하는 戰時經濟體制를 持續하면서 軍事建設을 強行하여 왔는바 이는 北韓經濟構造의 性

格으로 보아서 GNP에 대한 軍事費 負擔率이 81년에는 23%를 上廻하는 것으로 推計되고 있다. 1972년부터는 南北韓間의 關係變化에 따라 名目上 軍事費를 豫算上 17%以下로 줄인 것처럼 다른 歲出項目에 配分하여 僞裝 平和攻勢를 전개하여 왔다. 거기에다 人口(男子 18~45세)에 대한 兵力比率도 22% 以上の 最高水準이라고 하니 이러한 限界點에 이른 極端의 軍事主義體制의 動向을 우리는 銳意 注視하며 對處하여야 할 것이다.

## 8. 北韓社會의 展望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우리가 統一을 위해 相對하고 說得해야 하는 北韓共產集團이 共產圈에서도 가장 非正常的이며 反民族的인 方法으로 體制를 形成, 維持해 왔고, 現在도 歷史의 潮流에 逆行하는 硬直된 異端의 人 體制를 固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北韓社會가 장차 어떠한 方向으로 갈 것인가를 大略 展望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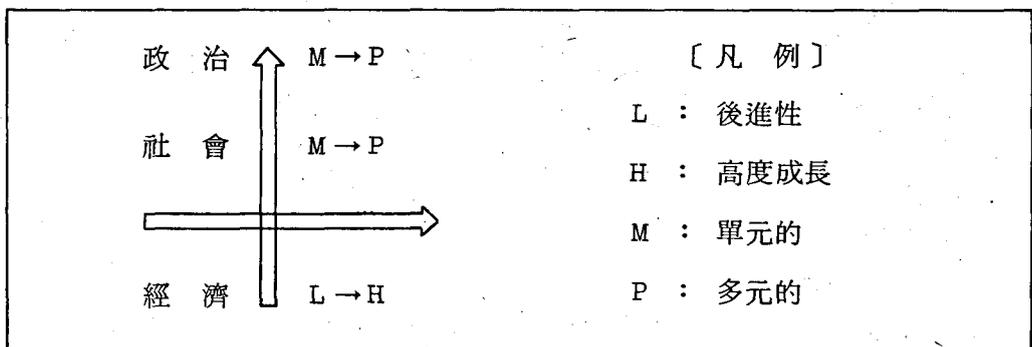
現在 北韓共產集團은 「은 社會를 主體思想으로 一色化하자」고 떠들면서 首領父子에게 代를 이어 忠誠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主體思想만으로 住民들을 먹여 살리고 生活水準을 向上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技術革命」을 강조한데 이어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主張하여 왔다. '80年 6次黨大會에서는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와 「全社會의 人데리化」問題를 提起했다. 「思想革命」이나 「主體化」는 모든 면에서 金日成이 내놓은 이

데올로기의 側面을 강조한 것이지만 技術革命과 現代化 - 科學化 등은 결국 工業化 - 先進化에 의한 産業社會를 指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인테리化」도 金日成이 원하는 「主體型」의 共產主義者가 아닌 産業社會의 「인테리」로 점차 變質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産業이 발달하면 그에 따르는 分業이 發達하게 되어 社會의 階層도 多元化되고 階層間의 利害도 多元化되어 劃一的인 社會도 多元化된다는 巨視社會學的 理論이 現實的 妥當性이 있다면 北韓의 경우도 適用될 수 있는가를 檢討해 보는 것도 뜻이 있을 것이다. 北韓도 産業化過程에서 必須的인 테크노크라트階層의 進出이 增加되고 技術革新을 위한 部分的인 社會開放과 情報交流은 勞動階層의 「인테리化」를 促進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階層의 成長과 慾求上昇에 따른 利害의 對立은 社會集團의 多元化 傾向을 招來할 것이다.

이러한 社會變動은 北韓體制로 하여금 初期에는 一時的으로 社會統制를 強化할 것으로 豫想되지만 內外的 狀況適應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修正과 社會의 開放을 不可避하게 할 可能性도 展望할 수 있다. 이러한 事例는 스탈린 死後의 소련이나 東歐에서, 特히 毛澤東 死後의 中共에서 部分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一般的인 假說을 圖式化해 보면 다음과 같다.

經濟·社會·政治의 相關圖式



※ 經濟를 原動力으로 보고 있음.

類 型	經 濟	社 會	政 治	狀 況
A	L	M	M	安 定
B	L → H	M → P	M	不 安
C	H	P	P	安 定

위와 같은 圖式에서 考察해 보면, A型은 北韓과 알바니아 등의 事情에 해당될 것이며 B型은 대체로 一部 開途國의 경우와 소련을 비롯한 工業化가 進行된 共產國家들의 苦悶과 關聯될 것인데, 장차 北韓이 가장 기피하려는 關門이 될지도 모른다. C型은 先進資本主義國家들의 狀況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例를 들자면 共產圈 중에서 비교적 工業化가 앞섰던 체코의 葛藤(B型)을 解決하고자 希望했던 두부체크가 自由化를 推進(C型指向)하려다가 소련에게 유린당했던 것이다.

一部 學者들은 이데올로기側面을 重視하여 社會主義社會가 工業化되어도 修正될 수 없다고 보는 見解도 있으나, 一般論은 社會主義社會도 産業化에 따른 社會變動의 方向에 逆行할 수 없으니 이데올로기를 修正하여 西方社會와 같은 産業社會의 共通點이 增大될 것으로 보는 收斂理論에 立脚하고 있다. 즉 經濟가 成長하여 近代化되면 社會도 多元化되고 政治도 이에 따라 多元化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社會變動이 그 社會의 内部에서 順調롭게 一定한 方向으로 進行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社會가 받는 内外的 衝擊에 따라 樣相이 달라질 것이다. 北韓의 경우도 體制內的 事情이나 國際的인 영향과 南韓情勢, 특히 韓國의 發展相이 주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韓國과 競爭하자면 經濟的 發展에 注力해야 할 것인바, 結局 工業化를 위한 專門家階層의 進出과 對外開放과 協力이 要請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조짐

은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希望하는 것은 우선 北韓側이 하루 속히 「革命基地」의 戰爭路線을 止揚하고 民族繁榮의 實利的 基礎를 마련하기 위한 平和的인 建設과 住民의 生活水準 向上에 注力하면서 南北關係의 改善에 協力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硬直된 北韓體制가 變化하도록 영향을 주고 그들이 好戰的 赤化路線을 포기케하여, 그들을 平和統一의 大道로 誘導하는 時間의 거리를 얼마나 短縮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北韓側이 아직도 赤化革命의 對象으로 設定하고 있는 韓國社會가 그들에게 誤認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우리들의 發展的 總和體制를 보다 成熟시켜, 平和統一의 基盤을 強化하여 統一을 향한 主導的인 努力을 얼마나 積極化해 나가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본다.

成分 分類 及 待遇

[ 附錄 1 ]

區 分	對 象	(80年) 比 率	待 遇
核心階層 (支配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革命戰士 遺家族</li> <li>○ 被殺, 戰死者 家族</li> <li>○ 黨, 行政幹部 家族</li> <li>○ 軍幹部 家族</li> <li>※ 共產體制 統治階層</li> </ul>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黨, 政權, 軍幹部 登用</li> <li>○ 他階層과 分離 特惠措置 (進學, 昇進, 配給, 居住, 醫療)</li> </ul>
動搖階層 (基本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一般勞動者, 農民家族</li> <li>○ 一般事務員 家族</li> <li>※ 社會主義體制的 基本群衆</li> </ul>	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各種 下級幹部等 技術者進出</li> <li>○ 極少數 核心層으로 昇格</li> </ul>
敵對階層 (複雜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主, 資本家 家族</li> <li>○ 日帝公職者, 宗教人 家族</li> <li>○ 越南, 附逆者, 捕虜 家族</li> <li>○ 肅清, 犯罪者 家族</li> </ul>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有害, 重勞動에 從事</li> <li>○ 進學, 入學, 入黨 封鎖 彈壓</li> <li>○ 制裁, 監視, 包摂對象으로 分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制裁: 強制移住 隔離 收容</li> <li>· 監視: 指名하여 恒時 動態監視</li> <li>· 包摂: 集中的教養, 洗腦</li> </ul> </li> <li>○ 極少數 基本層으로 再分類 (子女)</li> </ul>

資料: 北韓概要, 國土統一院, 1980.

[ 附錄 2 ]

51 個 部類

( 內外通信 77 年 22 號 參考 )

順位	區 分	分 類 對 象	黨 의 施 策
1	勞 動 者 (基本出身)	8.15 解放 前後를 莫論하고 出身 및 社會成分이 勞動者 였던 者(貧農·雇農·勞動者)	勞動黨의 核心階層으로 看做
2	雇農(머슴)	代代로 머슴살이를 하던 者	核心階層으로 看做
3	貧 農	過去 自作農으로는 生計가 困 難하여 50 %는 雜穀으로 生 計를 維持한 農民	"
4	事 務 員	8.15 以後 黨·政權·行政·經 濟·文化·教育機關에서 勤務 하고 있는 者	"
5	8.15 以後 養 成된 인텔리	8.15 以後 北韓 또는 共產圈 國家들에서 高等教育을 받은 者	이 中 留學한 者는 監視對象 이며 其他 國內에서 教育을 履修한 者는 核心階層으로 分 類
6	革命遺家族	抗日鬪爭에 犧牲된 者의 家 族	· 核心階層으로 看做 · 黨·政權機關·軍幹部登用 · 服務能力이 없는 對象에 게는 最高의 社會保障 惠 澤을 賦與
7	愛國烈士 遺 家 族	6.25 戰爭 當時 非戰鬥員으 로 犧牲된 者의 家族	· 核心階層으로 看做 · 黨·政權機關, 軍幹部로 登 用 · 服務能力이 없는 對象에게 는 最高의 社會保障 惠澤을 賦與하도록 되어 있음.
8	被殺者家族	6.25 當時 被殺된 者의 家族	基本階層으로 分類

順位	區 分	分 類 對 象	黨 의 政 策
9	戰死者家族	6.25 當時 戰鬪에서 死亡한 者의 家族	基本階層으로 分類
10	後方家族	北傀軍 現役 將兵의 家族	"
11	榮譽軍人	6.25 當時 負傷한 除隊 傷痍 軍人	"
12	勞 動 者 (8.15以後)	8.15 解放以後 이른바 社會 主義革命 過程에서 勞動者로 轉落된 過去 中小企業家·商 工業者·接客業者·인테리·富 農	過去の 出身成分과 現行行動 에 따라 監視 監督을 強化
13	富 農	· 머슴을 1名以上 두고 農 事를 지은 農民 · 農繁期에 臨時雇傭人을 두 고 營農하던 農民	反抗要素가 濃厚한 階層으로 看做 監視對象
14	民族資本案	民族資本에 의한 商工業者	反抗要素가 많은 對象으로 分類, 一般監視對象
15	地 主	· 1946 年 土地改革當時 5 町步以上の 土地를 沒收當 한 者 · 3町步까지를 耕作했으나 別途로 精米所 또는 商工 業을 營爲한 者	特殊監視對象
16	親日·親美 主義者	親日·親美的인 行爲를 한 者	徹底한 監視對象
17	反動官僚輩	日帝下 行政 및 權力機關에 從事한 者	"

順位	區 分	分 類 對 象	黨 的 政 策
18	越南者家族 (第1部類)	富農·地主·民族資本家·親日·親美·反動官僚輩 出身으로 6.25 動亂 當時 越南한 者의 家族	對象의 最近動向에 따라一般 監視對象 또는 特殊監視對象 으로 分類
19	越南者家族 (第2部類)	勞働者, 農民의 基本出身成分 으로서 6.25 動亂을 前後하여 犯法行爲를 하고 越南한 者의 家族	一般監視對象으로 分類
20	黜 黨 者	黨員으로서 任務遂行上 잘못 이 있어 黨員資格이 剝奪된者	黜黨事由에 따라 一般 또는 特殊監視對象
21	撤 職 者	幹部로 登用되었다가 撤職당한 者	責罰의 一種으로 經歷欄에 記載
22	敵機關服務 者	6.25 動亂時 治安隊·韓青·警察등에 服務하다 自首한 者	黜黨者와 같은 措置
23	逮捕, 投獄 者家族	刑罰을 받기 위해 投獄된 者의 家族	"
24	間諜關係者	浸透 또는 間諜으로 逮捕된者 또는 間諜事件에 連累되어 적 발된 者	"
25	反黨·反革 命宗派分子	· 1953年 南勞黨派 肅清에 關聯된 者 · 其他 反金日成派로 肅清된 者	"
26	處斷者家族	· 北傀政權 樹立以後 犯法行爲 또는 反黨行爲로 因해 處斷된 者의 家族	"

順位	區分	分類對象	黨의 政策
27	出所者政治犯	政治犯으로서 刑期가 滿了되어 出所한 者	黜黨者와 같은 措置
28	安逸·浮華放蕩한 者	社會階層을 不問하고 安逸·浮華放蕩한 者	有事時 反革命階層으로 轉換 가능한 對象으로 規定 一般監視對象으로 分類
29	接待婦 및 迷信崇拜者	무당·점장이·창녀·기생 등 出身者	"
30	經濟事犯	절도·강도·橫領등으로 服役後 出所한 者, 기타 眞犯者	"
31	民主黨員	過去 民主黨員으로 活動했거나 그 家族	黨員時節의 職責에 따라 一般, 特別監視對象
32	天道教育友黨員	過去 天道教育友黨員이었던 者	"
33	中共歸還民	57年 東北地方에서 歸還한 者	黨員으로 歸還한 者를 除外한 나머지 對象을 監視對象으로 分類
34	日本歸還民	北送된 在日僑胞	朝總聯系極烈分子는 黨에 入黨시키고 나머지는 監視對象으로 分類
35	入北者	8.15以後 越北한 者	8.15以前 入北者 除外코 나머지는 徹底한 監視對象으로 分類
36	8.15以前養成된인텔리	日帝下 高等教育을 받은 者	一部分을 監視對象으로 分類
37	基督教人	從前 基督教 信奉者	一般 또는 特殊監視對象으로 分類
38	仏教信者	從前 仏教徒	"

順位	區 分	分 類 對 象	党 의 施 策
39	天主教信者	從前 天主教徒	一般또는 特殊監視對象으로 分類
40	儒學者및地 方有志	過去 儒學者 및 地方有志로 待 遇받던 者	一般監視對象으로 分類
41	中 農	自己所有農地로 겨우 生計를 維持하던 農民	動搖階層으로 看做하고 包摂 敎養에 注力
42	小 商 人	一定한 商業施設이 없이 場所 를 移動하면서 營業을 하 여 生計를 維持한 者	一部 부르조아思想이 內包되 어 있는 對象으로 간주, 包摂 敎養에 注力
43	中 商 人	一定한 居處와 商業施設을 所 有하고 自主적으로 營業하여 生計를 維持한 者	動搖階層으로 看做 說得 敎 養對象으로 包含
44	手 工 業 人	小道具와 自體努力으로 生計 를 維持한 者	包摂 敎養에 注力
45	小 工 場 主	小工場을 所有하고 있던 者	一般監視對象으로 分類
46	下 層 接客業者	小規模 서비스業으로 生計를 維持한 者	包摂敎養에 注力
47	中 產 層 接客業者	自體建物과 施設을 갖고 약 간의 雇傭人을 두고 生計를 維持한 者	動搖階層으로서 包摂敎養이 可 能한 對象 看做
48	越南者家族 (第3部類)	勞働者·農民의 基本出身으로 서 犯法行爲가 없이 越南한 者의 家族	包摂敎養에 注力
49	無 所 屬	어느 党에도 加入하지 않은者	包摂敎養對象으로 分類
50	勞 動 党 員	党 員	基本核心階層으로 看做하고 幹 部(各部門)로 登用
51	資 本 家	1946年 産業國有化 當時個人 財産을 完全 沒收당한 者	徹底한 監視對象으로 分類

### 參 考 文 獻

1. 北韓概要, 國土統一院, 1980.
2. 南北韓 社會文化現況 比較, 國土統一院, 1981.
3. 尹東鉉: 北韓共產體制的 特性, 統一研修所, 1980.
4. 李泰永: 東歐共產主義의 變質過程 研究, 國土統一院, 1977.
5. 安秉永: 北韓社會變動에 관한 研究, 國土統一院, 1976.
6. 北韓社會論, 北韓研究所, 1977.
7. 玉城 素: 金日成의 思想と行動, コリア評論社, 日本東京, 1968.
8. 加藤雅彦: 東ヨーロッパ, 日本放送協會, 1977.
9. Nena Vreeland and others: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DA Pam 550~81), FAS of American University, 1976.
10. 北韓刊行資料 ( 천리마, 조선예술, 조선문학, 로동신문, 조선화보 등 )

## 北韓의 社會·文化 (要約)

### 1. 北韓社會의 構造的 特徵

- 가. 金日成의 “主體思想”에 의한 党的 唯一思想體系가 모든 價値를 支配하는 劃一社會
  - 金日成 敎示의 絶對性, 無條件性
- 나. 私有財産을 剝奪한 金日成 專制의 共產獨裁社會
  - 党的 統制強化로 住民을 生産道具化 - 隸屬性 加重
- 다. 集團主義 原則에 立脚한 組織的 統制社會
  - 組織에 묶여져 党的 指令에 따라 行動
- 라. 成分과 党性에 따른 徹底한 階級社會
  - 職業的 “革命分子”로 構成된 勞動党이 支配者集團
- 마.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超軍國主義的 兵營社會
  - 모든 住民을 各種 組織에 從屬시켜 軍隊式 統制 및 動員

### 2. 北韓의 階級政策과 階層構造

北韓 勞動党的 宣傳	北韓의 現實的 矛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既存 社會構造의 階級的 對立 批判</li> <li>○ 理想的 無階級 平等社會 實現</li> <li>* 憲法 6條: 階級的 對立과 人間의 搾取와 壓迫이 永遠히 消滅됐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既存 社會秩序 破壞와 階層構造 造作</li> <li>○ 金日成王朝의 身分階級社會 造成</li> <li>* 絶對的 獨裁集團과 抑壓당하는 獨裁對象 (敵對階層 등) 의 存在</li> </ul>

成分 分類과 差別待遇

核心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革命戰士 遺族</li> <li>○ 黨·政·軍 幹部 家族</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黨·政·軍 幹部 登用</li> <li>○ 社會生活 特惠</li> </ul>
動搖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一般勞動者, 農民 家族</li> <li>○ 事務員 家族</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下級幹部, 技術者 進出</li> <li>* 極少數 核心階層 登用</li> </ul>
敵對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主, 資本家, 日帝時 公職者, 肅清者 등의 家族</li> <li>○ 宗教人, 越南者 등의 家族</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有害 重勞動에 動員</li> <li>○ 制裁, 監視, 包摂 對象으로 分類, 進學 등 封鎖</li> </ul>

3. 北韓의 社會的 統制

組織的 統制	<p>( 勞動黨에 의한 住民統制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根 據: 黨 首領의 敎示와 黨 決定의 超法的 拘束力</li> <li>○ 手 段: 社會團體와 行政機構에 依存</li> <li>○ 方 式: 住民을 住居, 年齡, 職業 등 階層別로 組織化 社會團體 및 行政機構의 指導機關 掌握</li> <li>* 社會團體: 職業總同盟, 農業勤勞者同盟,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女性同盟, 少年團 등</li> </ul>
個人生活統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一切의 生活與件을 黨이 掌握, 階級的 差別待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食糧, 衣類 등 生必需品 配給·住宅分配</li> <li>- 職業選擇 및 職場移動 統制</li> </ul> </li> <li>○ 私生活 干涉 및 統制裝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戶擔當制, 分組擔當制</li> </ul> </li> <li>○ 集團行動으로 私生活 侵害</li> </ul>
查察機構에 의한 統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家保衛部, 社會安全部 등 查察機構 重疊</li> <li>○ 思想檢討로 集團 拷問, 成分調查 反復</li> </ul>

4. 北韓 文化의 特徵

構造的 特徵	○ 集團主義的, 閉鎖的, 劃一的, 他律的
機能的 特徵	○ 金日成體制의 合理化, 革命的 團結을 다지는 結合手段 ○ 生産能力 鼓吹의 觸媒手段, 政策遂行의 教導的 役割

5. 北韓社會·文化의 問題點

— 平和的 統一의 障礙를 造成하는 北韓共產集團의 性向 —

思想의 劃一化	○ 宗教의 抹殺 — “金日成主義” 信奉 強要 ○ 唯一思想體系 確立 — 每日 思想教育 反復 * 對南赤化를 위한 思想武裝 強化
社會의 密閉化	○ 對內的統制: 社會的 移動封鎖, 意思疏通 遮斷 ○ 對外的閉鎖: 內外情報 疏通封鎖, 人的交流 制限 * 金日成 世襲王朝의 永續化 追求
體制의 軍事化	○ 4大軍事路線으로 革命基地 強化 — 軍事目的 最優先, 世界最高比率의 兵力과 軍費負擔 * 北韓 全域을 對南革命戰爭基地로 強化



民族異質化 深化, 不信感 高潮, 軍事的 對立激化



# IV. 北韓의 教育

金 炅 泰

(統一研修所 教授)

## 目 次

1. 序 言 .....	157
2.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教育 .....	158
가. 共產主義的 教育觀 .....	158
나. 類型으로 본 政治教化 .....	159
3. 北韓의 教育理念 및 目標 .....	162
가. 教育理念 및 目標 .....	162
나. 教育理念의 來歷 .....	163
4. 北韓의 教育政策 및 制度 .....	166
가. 教育政策 및 制度上의 一般的 特徵 .....	166
나. 教育行政體系 및 學校教育體系 .....	172
다. 人間改造(政治教化)의 方法 .....	179
5. 北韓 教育의 實相과 虛像-綜合批判 .....	180
가. 基調的 矛盾 .....	180
나. 教育政策 및 制度上의 問題點 .....	181
다. 所謂 「共產主義的 새 型의 人間」의 虛像 .....	182
6. 結 言 .....	184



## 1. 序 言

일찌기 그리스의 哲人 플라톤 ( B.C.427 ~ B.C.347 )은 “어떤 國家를 원하면 그에 알맞는 教育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國家와 教育과의 밀접한 相關關係를 說破한 名言이다. 뒤집어 말하면, 한 社會, 한 나라의 오늘의 教育을 보고, 그 사회, 그 國家의 長래를 豫측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한편, 特定社會의 오늘의 現狀은 어제의 教育이 主軸이 된 그 社會의 文化的 所産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教育은 한 社會·國家의 傳統과 志向을 함께 照鑑할 수 있는 兩面鏡이라 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우리의 對話의 相對가 되고 統一의 客體가 되는 北韓共產集團과 그 成員의 오늘의 價値觀·思考方式과 行動體系는 지난 37年間の 그들의 教育의 所産이며, 그들의 志向은 오늘의 北韓 教育 속에 孕胎되어 있다. 北韓의 實態를 研究함에 있어 그들의 教育을 重要視해야 할 理由가 여기에 있다.

北韓의 教育이 마르크스 (1818 ~ 1883)의 그릇된 世界觀과 歷史觀, 레닌 (1870 ~ 1924)의 實踐的 革命觀, 스탈린 (1879 ~ 1953)의 全體主義的 政治教化 (Politization)에 그 理念的 바탕을 두고, 蘇聯의 教育政策과 制度를 模倣한 反民族的·反文化的·反人道的 政治道具에 불과하지만, 「共產黨宣言」(1848)이 公表된 以來 130餘年間 理論的·實踐的 體系가 形成되고, 北韓에서만도 37年間の 支配手段의 技巧가 蓄積된 實體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北韓 教育의 理念的·體制的 바탕인 共產主義 教育觀과 政治教化 類型을 概觀하고, 그들 教育의 理念과 目標, 政策과 制度를 차례로 살펴 본 다음, 그 實相과 虛像을 糾明·批判하고자 한다. 理解를 돕는 뜻에서 關聯參考資料를 提示하고, 主要部門에서는 우리 教育과 對比하는 圖解와 一

覽表를 많이 利用하였다.

## 2.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教育

### 가. 共產主義的 教育觀

共產主義에 있어서는 教育을 階級鬭爭의 手段 또는 過程으로 보고, 教育者를 職業的 革命家, 階級意志의 代行者 또는 政治的 宣傳煽動要員으로 보며, 學校도 共產主義原則의 先導機關으로 定義하고 있다. 이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自體가 歪曲된 人間觀·世界觀·歷史觀을 바탕으로 한 造作된 反文化的·革命戰略的 政治思想인 바, 이런 思想·運動과 體制를 뒷받침하는 政治手段 또는 政治道具로서 教育을 惡用하려는 共產主義的 教育觀에서 비롯된 것이다.

本是 教育이란 그 語源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各個人의 素質을 啓發하여 向上·發展시키는 것이다. 이런 人本主義的 基礎 위에, 自然의 狀態를 理想의 狀態로 끌어 올리고, 社會와 國家의 發展을 圖謀하는 것이다. 英語의 Education은 라틴語의 Educare에 淵源하고 있는 바, 이는 「끄집어 낸다」는 뜻이다. 곧 素質을 啓發한다는 意味이다. 한편 獨語의 Erziehung은 「끌어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向上·發展을 含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에 있어서는 教育을 革命戰略的 政治이데올로기 具現의 道具로 轉落시켜, 各個人의 素質·創意·個性을 抑壓하여 「共產主義的 새 型의 人間」이라는 定型을 鑄造하려는 것이니 根本的으로 反教育의이다.

南北韓 教育의 本質的 差異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 南北韓 教育의 本質 對比

	韓 國	北 韓
教育 觀	人 本 主 義 (素 質 · 創 意 · 發 展 力)	全 體 主 義 (定 型 鑄 造)
志 向	民 族 主 義	勞 動 階 級 主 義

이와 같은 教育觀의 本質의 差異로 말미암아 南北韓의 教育理念과 目標, 教育政策과 制度에 있어서도 현격한 差異가 나게 마련이지만, 分斷된 祖國과 民族의 平和的 統一을 志向하는 오늘의 時點에서 볼 때, 우리의 民族主體性 教育에 對峙되는 北韓의 勞動階級性 教育은 가장 悲劇的인 斷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나. 類型으로 본 政治敎化

前述한 바와 같이, 國家와 教育은 어느 政治社會體制에 있어서나 밀접한 關聯이 있다. 國家는 그가 志向하는 理念과 目標에 모든 成員이 歸屬 參與·協調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教育에 期待하며, 또 그렇게 作用하려 한다. 그러나 元來 教育體制는 그 나라의 文化體制에 從屬되는 部分概念이며, 教育 그 自體도 그 國家社會의 文化的 所産이다. 그렇기 때문에 自由民主社會에서의 教育은 政治的 中立性이 保障되고, 文化體制가 意圖的이든 無意圖的이든, 直接的이든 間接的이든, 또는 公式的이든 非公式的이든 間에 教育을 統制·調整한다. 國家教育 못지 않게 家庭教育·社會教育·宗教教育 등의 社會文化的 教育機能이 重視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곧 本然의 一般教育(General Education)의 模型이다.

한편, 特定國家의 政治體制는 그들의 政治理念을 具現함에 있어 教育에

作用하려 하는 경우, 通常 法律의 制定과 같은 社會總意 集約過程을 거쳐 公式的·意圖的으로 教育에 干與하게 되는데, 이때도 文化體制를 거치는 外的·間接的 統制機能을 가지는데 不過하다. 이는 自由民主國家에 있어서의 廣義의 政治教育(Political Education)의 模型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 또는 그밖의 全體主義 國家에서는 既存 文化體制나 秩序와 相容될 수 없는 異端的인 政治思想·政治體制를 強要하기 위하여, 文化體制 本然의 內的·無意圖的 教育統制機能을 遮斷·排除하고, 政治體制가 教育體制를 完全 掌握하여 直接 統制한다. 價値觀·慣習·社會關係·文化的 志向 등 既存 傳統文化體制가 異質的인 政治體制的 定着에 妨害가 되고, 또 이에 끈질기게 抵抗하기 때문이다. 이런 全體主義 教育類型을 政治教化(Politization)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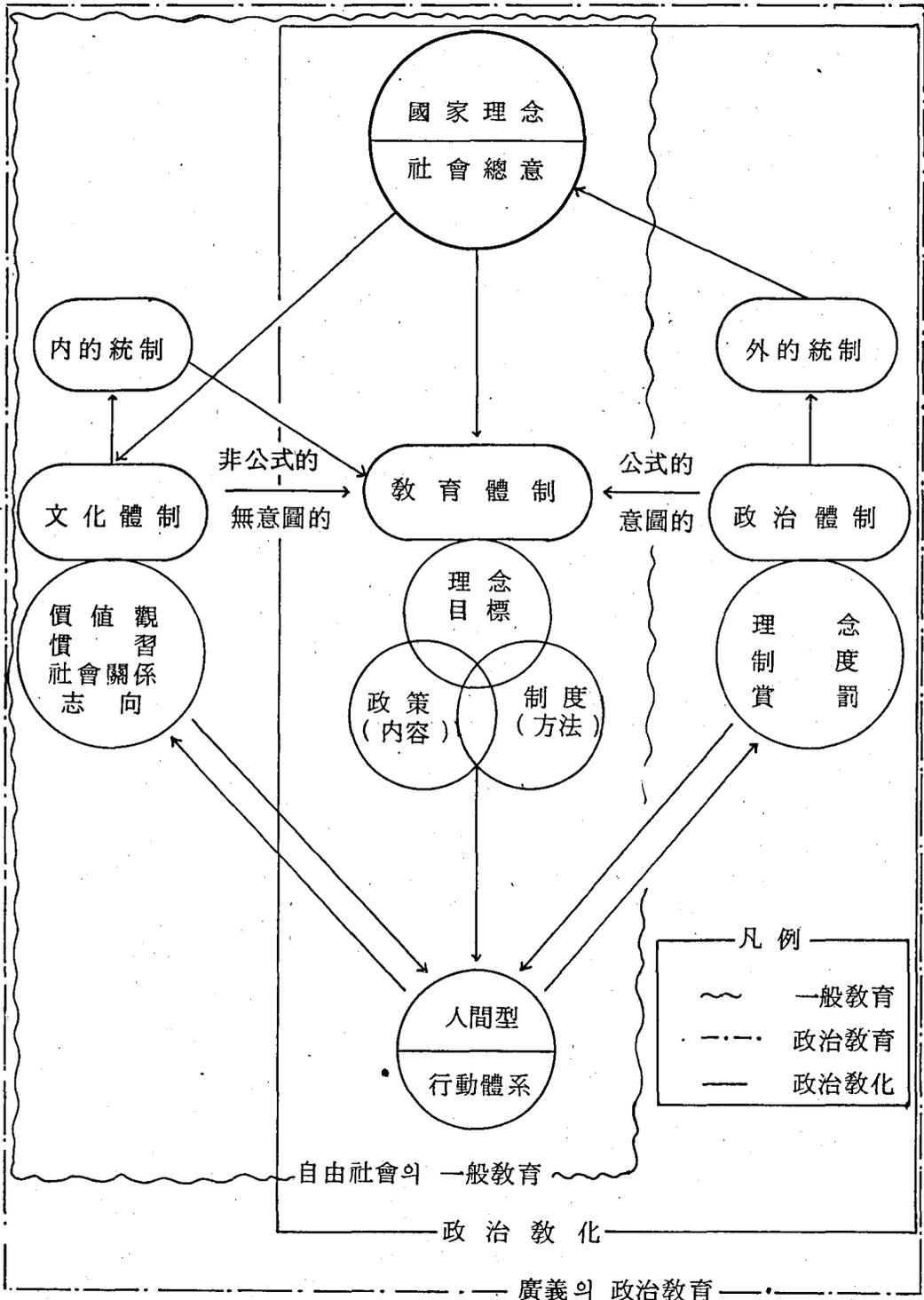
레닌은 “政治에서 分離된 教育은 無用하다”고 하였고, 金日成도 “共產主義 革命思想에 基礎하지 않은 知識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였다.

오늘날 北韓을 包含한 모든 共產體制에서 早期教育·義務教育·集團主義 教育을 擴大·強化하는 것은 眞正한 教育的 見地에서가 아니라, 家庭·社會의 美風良俗 등 傳統文化體制에서 隔離하여 異端的 政治體制內에 收容·統制하려는 反教育的·非人道的 政治教化의 一環策이다.

類型別 教育模型圖는 別表와 같은데, 教育은 養成한 人材를 各界에 輩出하는 循環 및 集積效果를 내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政治教化라 하더라도 여기서 養成(鑄造)된 「새 型의 人間」은 다시 政治·文化·教育體制로 흘러들어가 쌓이기 때문에, 長期間이 경과하면 過去의 政治·文化體制間의 隔差와 異質性이 緩和되고, 이른바 體制內的 同質性이 造成되어 마침내는 政治教化라는 無理한 教育手段을 쓰지 않아도 되는 狀態가 온다.

北韓에서 體制內的 同質化가 形成되면 될수록 우리와의 民族的 異質化는 深化되는 바, 37年間의 政治教化 結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類型別教育模型圖



### 3. 北韓의 教育理念 및 目標

#### 가. 教育理念 및 目標

北韓의 教育理念은 “全面的으로 發達한 共產主義的 새 型의 人間”을 育成하는 데 있고, 그 理念 具現을 위한 教育目標을 ① 全人民의 革命化 ② 全人民의 勞動階級化 ③ 全人民의 共產主義化로 設定하고 있다.

그들의 이른바 「社會主義憲法」에 의하면, “國家는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를 具現하여 後代들로 하여금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鬪爭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새 人間으로 키운다”(第39條)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라는 것은 1968年 金日成이 提示하였고, 그 뒤 同原理를 비롯하여 教育內容·教育方法·教育制度 등 北韓教育의 基本方向을 網羅한 教育綱領이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提제」라는 이름으로 1977年 9月 5日에 公表되었는 바 ① 金日成의 主體思想·唯一思想에 의한 人間改造와 ② 社會主義 高度化 段階에 副應할 專門人力의 確保를 目的으로 한 金日成의 敎示이다.

同「提제」第1章의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에서는 共產主義 革命人材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全人民의 革命化·勞動階級化·共產主義化를 그들의 教育目標로 設定하고 있고, 同第2章의 「社會主義 教育의 內容」에서는 ① 金日成의 主體思想으로 武裝시키는 政治思想教育 ② 黨政策具現과 革命實踐을 위한 科學技術教育, 그리고 ③ 國防 및 勞動·生産을 뒷받침할 體育教育을 規定하여, 이른바 知·德·體 教育이라 일컫고 있다. 同第3章의 「社會主義 教育의 方法」에서는 學習·勞動·實習·組織生活 등의 人間改造 方法을, 同第4章에는 義務教育·成人教育·就學前教育 등의 「社會主義 教

育制度」를, 그리고 同第5章의 「教育機關의 任務와 役割」에서는 敎員과 教育機關의 位置와 任務, 教育에 대한 党的 指導와 統制 등을 規定하였다.

그들은 ① 党唯一思想體系 確立의 原則 ② 党性·勞動階級性的 原則 ③ 主體確立의 原則 ④ 教育과 革命實踐의 統一原則 ⑤ 革命化·勞動階級化의 原則을 「社會主義 教育學의 5大原則」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金日成 1人 獨裁體制 나아가서는 父子世襲體制構築과 共產革命을 위하여 學問의 이름까지 盜用한 同「체제」를 “金日成 首領이 社會主義 教育의 成果와 經驗을 總和하고, 全面的으로 集大成한 不朽의 教育總書”라고 떠받들고 있으니,北韓의 教育과 學問의 存在樣式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教育理念과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強要되고 있는 所謂「共產主義의 새 型의 人間」의 風貌는 ① 權威에 順從하는 無批判的 人間 ② 禁慾的 價値觀을 가지는 刻薄한 人間 ③ 自由主義와 資本主義를 憎惡하는 暴惡한 人間 ④ 革命的 樂觀主義를 표방하는 假飾的 人間 ⑤ 社會主義的 祖國愛를 지닌 反民族的 人間 ⑥ 集團主義에 献身하는 從屬的 人間 ⑦ 國際革命的 團結心을 지닌 뿌리없는 人間이다.

#### 나. 教育理念의 來歷

北韓의 教育理念은 마르크스 以來의 共產主義 教育觀에 바탕을 두고, 특히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 形成된 소비에트教育의 理念體系를 直導入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教育理念을 “知·德·體를 갖춘 全面的으로 發展한 人格의 育成”에 두었는데, 共產革命을 됨(化)의 論理, 必然의 論理로서 把握한 그로서는 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할 필요가 없었으며, 다만 當時 西歐에서 널리 알려졌던 教育學者 페스탈로찌(1746 ~ 1827)의 全人教育論을 援用하

였을 뿐이다. 페스탈로찌는 “教育은 人間의 生來的 根本力인 精神力(Head) · 道德力(Heart) 과 身體力(Hand) 의 3力을 調和的으로 發展시키는 것” 이라 하여 知·德·體의 全人教育의 重要性을 主唱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이를 實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教育理念은 제 1 인터내셔널(1866)의 決議에서도 反映되었는 바, 그중의 「教育의 3大카테고리」에는 ① 知的教育 ② 全面的 技術教育和 ③ 體育 및 軍事訓練을 통한 身體發達을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 有給 生産勞動이 結付되는 것을 所望스런 教育形態로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共產革命을 만듦(造作)의 論理로 본 레닌에 있어서는 共產主義的 教育에 보다 積極的인 關心과 態度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教育의 目標을 “私有財産의 心理와 民族主義的, 宗教的, 기타 낡은 先入見으로부터 解放된 先進的 人間의 養成”에 두었으며, 1919年 3月의 第8次 共產黨大會에서 採擇한 共產黨綱領에서도 學校의 任務를 “勤勞大衆 속의 反 프롤레타리아·非프롤레타리아層에 대한 理念的·組織的·教育的 影響力의 先導者로서 共產主義 社會를 樹立할 수 있는 新世代를 養成하는 일”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들 마르크스·레닌의 教育觀과 教育理念은 스탈린의 執權 28年間(1926 ~ 1953)에 ① 政治面에서의 全體主義的 統制 ② 經濟面에서의 全體主義的 動員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③ 教育面에서의 全體主義的 政治教化로 體制化되었으며, 이 소비에트 教育體制를 그대로 北韓에서 模倣하였다.

그러나 教育理論은 몇 차례의 迂餘曲折 끝에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推移는 다음과 같다.

第1期는 政權樹立時期부터 1950年代까지로서, 스탈린에 의해 體系化된 소비에트 教育學 理論을 直受容한 時期이다. 소비에트 教育學은 마르크스·레닌의 教育觀과 教育理念을 土臺로, 스탈린이 落後된 蘇聯에서 共產獨

裁를 定着시키기 위해 教育의 힘을 빌린 政治敎化의 理論이다.

第2期는 1960年代로서, 時代的으로 보면 復古的인 마르크스·레닌의 教育理論으로 되돌아간 時期이다. 1953年의 스탈린의 死亡, 이어서 벌어진 스탈린 格下運動과 中·蘇 理念紛爭의 渦中에서 困境에 빠진 金日成은 이른바 獨自路線이라는 自救策을 펴지 않을 수 없었으며, 教育理論面에서도 스탈린의 소비에트 教育學을 拋棄하고 共產元祖들의 理論으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時期가 金日成의 永久執權, 곧 世襲體制 形成을 위한 獨自理論을 體系化한 過渡期라고 할 수도 있다.

第3期는 1970年代 以來 오늘에 이르는 所謂「社會主義 教育學」을 適用하는 時期로서 그 內容과 背景은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다.

아뭇든 自我實現을 통한 弘益人間을 教育理念으로 하고, ① 民主市民的 圓滿한 人格의 陶冶 ② 自律的·自治的 社會生活能力의 培養과 ③ 民族國家觀의 確立을 教育目標로 하는 우리의 教育과 北韓의 反民族的 政治敎化는 本質的으로 相反되는 것이다.

南北韓 教育의 理念 및 目標 比較

	韓 國	北 韓
教育 理念	自我實現을 통한 弘益人間	共產主義的 새 型의 人間
教育 目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主市民的 人格完成</li> <li>· 自律的 生活能力 培養</li> <li>· 民族國家觀의 確立</li> </ul>	全人民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革命化</li> <li>勞動階級化</li> <li>共產主義化</li> </ul>

#### 4. 北韓의 教育政策 및 制度

가. 教育政策 및 制度上의 一般的 特徵

教育政策과 教育制度는 教育理念과 教育目標를 具現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이다. 共產主義 教育觀을 바탕으로한 政治教化體制로서의 北韓의 教育 體制는 물론 共產圈 共通의 體制的 特徵도 지니는 것이지만, 北韓教育 特有的 形態로 變貌된 것도 있다. 여기서는 北韓教育의 政策 및 制度上의 一般的 特徵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教育은 勞動黨이 完全 掌握하여 獨裁的인 統制를 하고 있다. 教育은 勞動黨의 政策執行 道具에 不過하다. 勞動黨의 一貫된 政策은 ① 1人 長期執權·世襲獨裁體制 形成을 위한 内部統制關係 ② 韓半島의 赤化를 위한 對南戰略關係 그리고 ③ 國際革命力量의 提高를 노리는 國際關係의 3要素를 主軸으로 하고 있는 바, 그들은 機會있을 때마다 “每時期 提示되는 黨政策을 민감하게 反映할 수 있도록 教育의 內容과 方法을 고쳐야 한다”고 主張하여, 教育의 黨政策 執行手段性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教育政策은 形式上 黨에서 決定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其實은 金日成의 恣意的 敎示로써 이루어진다. 이 敎示를 뒷받침하고 要式化한 것이 黨의 政策이고, 最高人民會議 法令이며, 中央人民委員會의 政令 및 決定 또는 政務院의 決定·指示 등이다.

教育政策뿐만 아니라 教育의 施行過程에서도 中央黨을 비롯한 管轄 地域 黨과 各級學校 初級黨委員會를 통하여 監督과 統制를 받는다. 이 경우 黨의 外廓 團體인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職業總同盟·女性同盟·少年團 등의 各級組織에 의한 二重三重的 監視와 規制가 따르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教育은 政治에 隸屬되고, 教育內容에 있어서도 共產主義 政治思想 教育을 優先하고 있다.

특히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主體思想·唯一思想을 비롯하여, 造作된 革命 傳統의 教養 등 歪曲된 思想教育을 強化하고 있다.

政治思想教育 優先順位 比較 (北韓과 東歐圈)

順位	北 韓	東 歐 圈
1	金日成에의 忠誠	社會主義 建設
2	主體思想 및 唯一思想	反帝國主義
3	革命傳統 教養	社會主義 道德
4	階級教養 (反民族性)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5	反帝國主義	反個人主義
6	共產主義 道德	社會主義 聯邦
7	集團主義 教養	反民族主義
8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反스탈린主義

위의 東歐圈 共產國家와의 政治思想 教育 優先順位 比較에서 보는바와 같이 北韓의 政治思想教育은 金日成과 그 家系の 偶像化와 그들에 대한 忠誠을 至上課題로 하고 있다.

教育을 政治에 隸屬시킨 당연한 歸結이지만, 北韓의 教育은 政治的 宣傳 煽動 및 大衆操作과 密着되어 있다. 教員과 學生을 党的 政治宣傳煽動要員化하고, 大衆操作的 媒體化하고 있다. 教育政策의 最高管掌部署가 初期에는 勞動黨 中央委員會의 「宣傳煽動部」였다는 事實이 這問의 事情을 잘 말해 주고 있다. (現在는 「科學 및 學校教育部」)

그들의 人民保健法 (80.4.2 制定施行)에 의하면 “保健일군은 衛生知識을

普及하며, 사람들의 病을 고치는 醫師 役割을 하는 것과 함께, 人民들을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는 宣傳敎養者의 役割을 하여야 한다”(第41條)고 하였으니, 教育을 政治的 宣傳煽動과 密着시키는 것은 어쩌면 當然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세제, 生産·建設에 動員하기 위한 方便으로 全面的 技術教育의 原理가 適用되고, 勞動의 榨取와 無償義務教育의 基盤을 마련하는 方案으로 學生들에게 生産·勞動을 強要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政權 樹立 以來 學生들의 勞力動員이 強制되어 왔으나, 1959年부터 「學生 社會主義 義務勞動制」가 制度化되어, 다음 表의 規定上 義務勞動時間과는 關係없이, 實際的으로는 大學 및 高等技術專門學校는 年14週間以上, 高等中學校의 高等班이 10~12週間, 中等班과 人民學校에서도 4~6週間을 動員하고 있다. 그 위에 各種 社會主義 競爭運動을 통한 新 Norma 創出過程에서 그 以上の 榨取가 이루어진다. 分析된 바에 의하면 學生들이 義務勞動으로 生産한 生産報酬는 그들이 免除받는 義務教育費의 3倍에 達한다고 하니 얼마나 重勞動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榨取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學生社會義務勞動時間(規定上)

	大 學	高等技校	高中(高)	高中(中)	人民校
工業勞動	4	4	2	2	
建設勞動	4	4	4	2	
農業勞動	2	2	2	2	2
計	10 週	10 週	8 週	6 週	2 週

教育에 있어서의 生産·勞動·實習의 重要性을 主張한 것은 레닌과 그의 妻 크롭스카야 (Krupskaya, 1869~1939)로서 그들은 生産技術教育의 理論을 體系化하였다.

北韓에서는 “國家는 人民教育事業과 民族幹部 養成事業을 다른 모든 事業에 앞세우며, 一般教育和 技術教育, 教育和 生産勞動을 밀접히 結合시킨다” (憲法第 40 條)고 規定하여 勞動力 榨取의 制度的 保障裝置를 하고 있다.

네째, 早期教育和 義務教育의 外形의 擴張을 들 수 있다. 北韓에서는 現在 生後 30 日부터의 託兒所 收容과 滿 4 歲부터의 幼稚園 (낮은 班) 生活이 強要되고 있으며, 就學前 1 年의 幼稚園 (높은 班) 課程부터 高等中學까지의 11 年制 義務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政治思想的 洗腦效果의 提高, 家庭 등 既存 傳統文化體制로부터의 隔離收容, 婦女子의 勞動力 動員, 靑少年의 體制內的 收容統制 및 動員 등, 教育的 次元보다는 政治的 次元에서 內實없는 外形의 擴張을 서둘러왔다. 對南 및 國際的 宣傳效果를 노린 底意도 있다.

그러나 共產圈의 義務教育은 無償教育이라는 側面보다는 體制離脫防止를 위한 收容의 側面に 높은 比重을 두는 制度이다. 北韓의 경우 1956 年에 初等義務教育制를 實施한다고 公表하였으나, 1959 年에 學生社會義務勞動制를 펴고 난 뒤, 같은 해 9 月부터 無料教育制를 實施한다고 宣傳한 것으로도 義務와 無償은 同一概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個人的 生産手段이 剝奪된 社會主義體制에서는 義務教育·無償教育의 질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擴張을 宣傳하는 것은 「税金이 없다」는 宣傳만큼이나 虛構的인 것이다.

다섯째, 個性·素質·創意 등 人間의 本性을 無視·抑制하고, 無分別·無思慮·無條件的 服從型的 機械部品과도 같은 定型을 鑄造하는 集團主義 教

育을 強要하고 있다. 그들의 憲法에서는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  
는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 原則에 基礎한다”  
(第49條)고 하였지만, 그 本領은 前段의 「하나를 全體를 위하여」라는  
全體主義的 集團主義에 있다. 北韓住民이 平生 二重三重의 組織生活속에서  
統制되는 것도 이 集團主義의 實現方法이다.

集團主義教育에는 蘇聯의 마카렌코 (Makarenko:1888 ~ 1939)의 理論  
이 뒷받침되고 있다. 文筆人인 동시에 教育學者였던 그는 浮浪兒收容所 責  
任者로 있을 때의 體驗을 土臺로 導出한 「集團主義教育 3段階 發展過程」  
에서, 第1段階에서는 教師의 確固한 信念과 이에 바탕을 둔 斷乎한 要求  
가 필요하며, 第2段階에서는 周邊의 積極分子를 糾合하여 核을 形成하므  
로서 同調勢力化하여야 하며, 第3段階에서는 全成員의 自己規律化를 圖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金日成은 “組織生活은 思想鍛鍊의 熔鑪이며  
革命的 教養의 學校”라고 하여 團體生活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軍事訓練에 置重하는 好戰性 教育을 特徵으로 한다.

教育用語가 軍事用語化하였고, 學校의 編成·裝備도 常備兵力化하였다.  
이른바 政治·教育·軍事의 一元體制가 이루어졌다.

北韓에서는 4大軍事路線에 의하여 全域이 兵營化·要塞化되었지만, 특히  
靑少年에 대한 軍事訓練을 強化하여 忠誠心·服從心·敵愾心 등 國防思想을  
鼓吹하고, 戰技·戰術을 鍊磨하여 軍幹部化·近衛隊化하고 있다. 특히 高  
等中學 高等班以上の 各級學校 學生을 對象으로 하는 軍事訓練에 있어서는  
正規軍에 못지 않은 教育訓練을 實施한다. 1~2學年은 週當 7~8時間,  
3~4學年은 5~6時間의 校內訓練 以外에, 每學期末에 1~2週의 野外  
訓練과 卒業前 40餘日의 野營訓練이 實施되는 바, 1962年부터 軍事科目  
合格優先主義가 採擇되어 卒業資格의 前提가 된다.

大學의 경우 1959年 8月 1日에 發足한 大學勞農赤衛隊는 1974年에  
教導隊로 改編強化되어, 全大學의 常備戰鬥兵力化가 이루어지고, 卒業과 동  
시에 豫備軍官 資格을 얻는다. 그 編成·軍種 및 兵科에 있어서도 學校軍

位는 聯隊, 學部(全學年)單位는 大隊, 全學年單位는 中隊, 學級單位는 小隊로 編成하고, 그 指揮官은 各級 黨委員長이 맡는다. 各大學別 特性과 專攻에 따라 軍種과 兵科가 부여되는 바, 例를 들면 金日成大學은 步兵, 金策工業大學은 砲兵, 元山水產大學은 海軍 등으로 區分된다.

南北韓 學生軍事教育實態를 比較하면 다음 表와 같다.

南北韓 學生軍事教育實態 比較

	韓 國	北 韓
目 的	自主國防思想 涵養 體力·健全精神 鍊磨	共產主義 革命精神 培養 常備戰鬪兵化·指揮官 養成
指 揮 體 系	文教部管掌(團長=長官) ※ 國防部 學生軍事教育團은 教 育만 實施	勞動黨 軍事部 指揮統制下에 教 育委員會와 人民武力部가 共同 管掌
兵 力 裝 備	學徒護國團 35 萬 個人火器	大學教導隊 17 萬 實戰用 個人 및 共用火器
教 育 時 間	校內訓練 128 時間(2 年間) 現場實習 40 時間( " ) 入營訓練 40 時間( " ) 計 208 時間( " )	校內訓練 960 時間(4 年間) 入營訓練 1,780 時間( " ) 計 2,740 時間( " )
教 育 內 容	一般軍事學(32%) 戰術學(26%) 火器學(18%) 評價·查閱 등(24%)	政治學習(40%) 戰術訓練(30%) 共用火器(20%) 特殊訓練 등(10%)
女學生 軍教	없 음	男學生과 同一한 教導隊 編成訓 練(但 入營集體訓練만 免除)

北韓의 教育

	韓 國	北 韓
兵役上 惠 澤	在學中 訓練時間 相應의 現 役服務 短縮	在學中 現役服務 相應의 軍事教 育 履修 豫備軍官資格 賦與(合格者)
特 徵	校內教育 置重(北의 1/13) 士兵水準의 一般教育	入營集體訓練 置重 初級指揮官 水準의 正規軍 軍事 教育

끝으로, 北韓 教育의 그밖의 特徵으로서 ① 中央集權主義 ② 命令主義 ③ 閉鎖主義 ④ 宗教教育의 禁止 ⑤ 私立學校의 不存在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나. 教育行政體系 및 學校教育體系

(1) 教育行政 및 統制體系

北韓의 教育體制는 勞動黨의 統制下에 있다. 教育政策의 樹立과 總括的 指導·統制는 勞動黨 中央委員會의 「科學 및 學校教育部」에서 管掌하고, 政務院 傘下의 教育委員會가 政策執行과 教育行政을 統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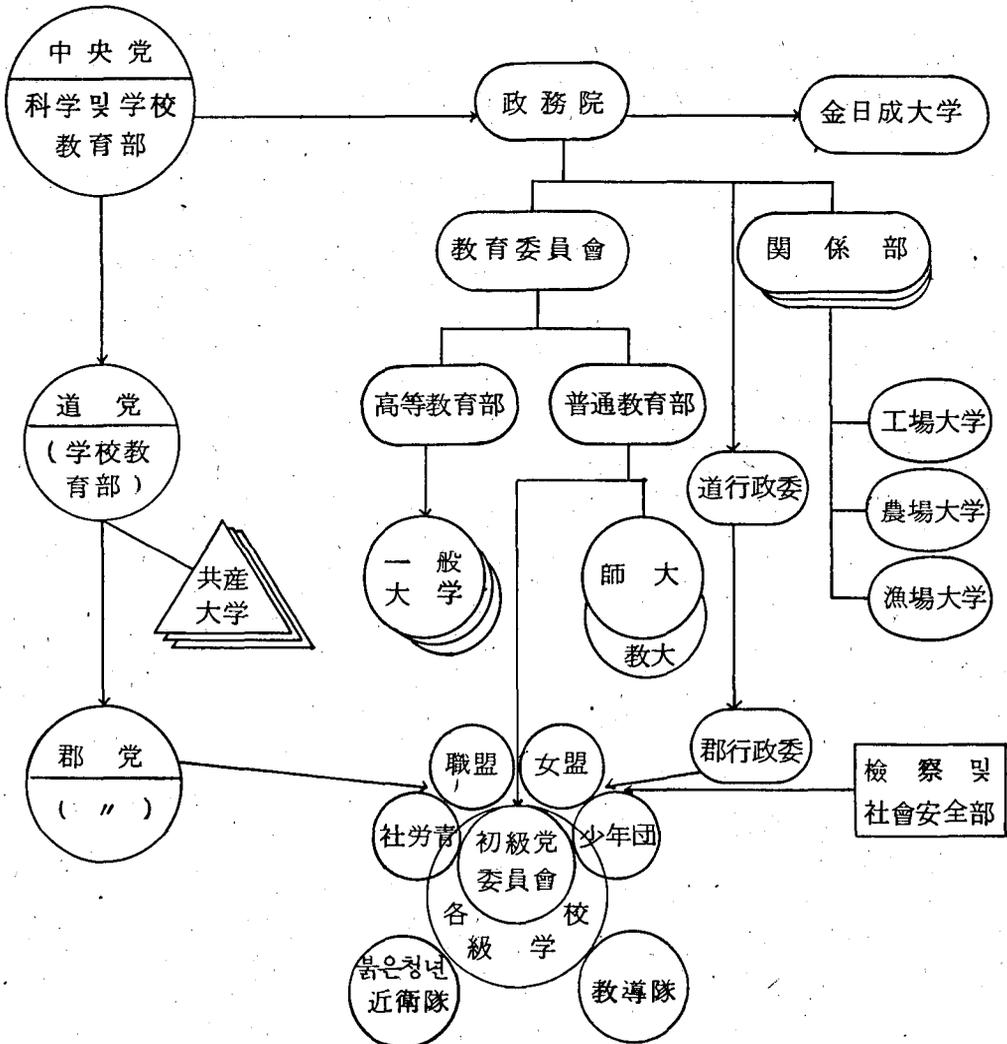
教育委員會 밑에 高等教育部와 普通教育部가 있는 바, 前者는 一般大學을, 後者는 師範大學과 教員大學을 包含하여 그밖의 各級學校를 分掌한다. 北韓에서 唯一한 綜合大學인 金日成大學은 政務院 直屬으로 되어 있다.

北韓에서는 金策工業大學을 비롯한 平壤醫學大學·金亨稷師範大學 등 몇개의 水準級 特殊大學만을 中央(教育委員會)에서 管掌하고 그밖의 많은 大學은 地方級 大學이라 하여 市道單位 行政機關에서 管掌하고 있는 것도 特色中の 하나이다. 入學·卒業者 配置 등 特定問題는 市郡 單位 行政機關에서도 大學에 干與한다.

소위 「일하면서 배우는」 成人教育機關으로 工場大學·農場大學·漁場大學·鉸山大學 등이 있는데, 이들은 政務院 傘下의 關係經濟부가 教育委員會와 協議·運營하도록 되어 있다.

北韓에서는 오늘날 186 個大學이 있다고 宣傳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產業體 附設 成人學校와 輕工業·食料工業·船舶工業 등 우리나라 大學의 專攻學科에 該當하는 單科大學, 그리고 教員大學 등을 包含한 것이다.

教育行政 및 統制體系圖



앞의 教育行政 및 統制體系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線의 各級學校는 各級黨과 外廓團體, 各級行政組織에 의하여 四重五重으로 統制·監視되고 있다. 大學의 最高責任者는 學長이 아니라 이를 監視하는 大學初級黨委員長 (黨責)인 副學長이 實質的 權限을 가지고 있다.

또한 北韓의 檢察은 特定行政機關의 決定과 指示가 上位法規 또는 上級機關의 命令·指示에 違背되는지의 與否까지도 統制할 수 있는 機能을 가지고 있어 教育에 대한 莫強한 統制權을 가지고 있다.

## (2) 學校教育體系 (學制)

北韓의 學校教育體系는 一般學校·特殊學校 및 成人學校로 나눌 수 있다.

一般學校教育에 있어서, 幼稚園은 낮은 班·높은 班 課程으로 나누어, 4歲부터 收容하는 바 높은 班은 義務制이다. 人民學校는 4年制이고, 高等中學校는 中等班 4年과 高等班 2年の 6年制이며, 一般大學(師範大學 包含)은 4~6年制이다. 人民學校 敎員을 養成하는 敎員大學은 3年制이고 高等技術專門學校도 3年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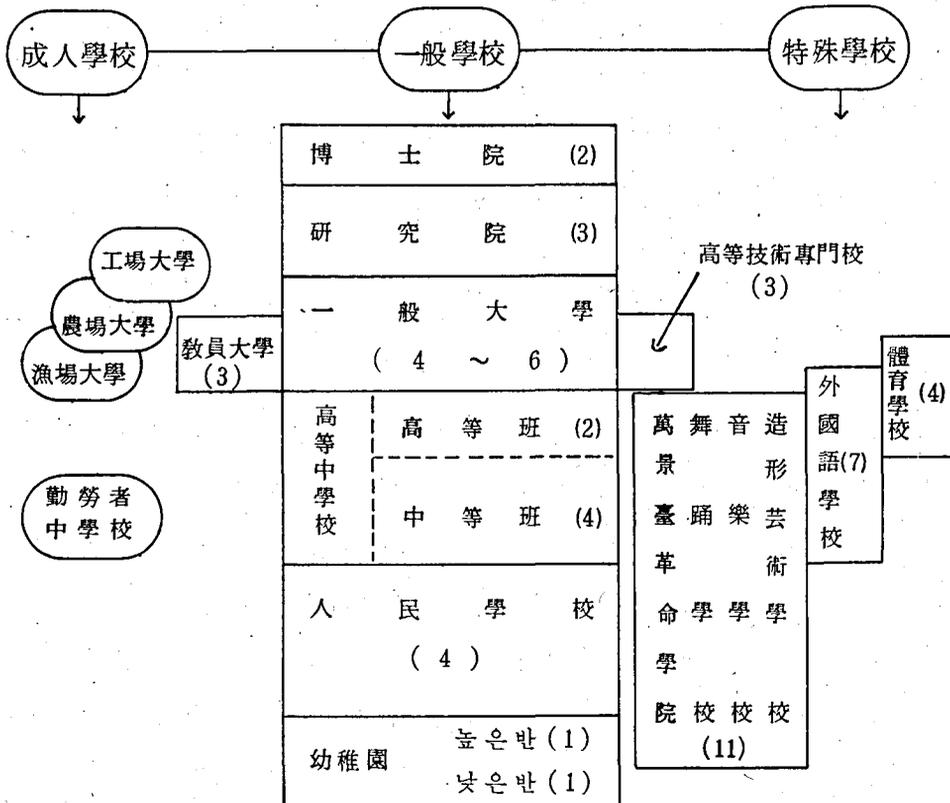
그 위에 우리나라의 大學院 碩士課程에 比할 수 있는 研究院이 3年制이고, 博士課程과 같은 博士院이 2年制이다. 大學 卒業者에게는 敎員·醫師·藥師 등의 該當資格이 주어지거나, 人文社會系에서는 專門家, 理工系에서는 技士資格이 賦與될 뿐 學位制度는 없고, 研究院을 마쳐야 學士學位가 授與된다.

特殊學校로는 萬景臺革命學院과 같은 特權層 子女 教育機關과 舞踊·音樂·造形·美術 등의 藝體能系學校가 있는데, 이들은 거의 幼稚園(높은 班) 課程부터 高等中學 課程까지의 11年制로 되어 있다. 海外宣傳活動을 위해 外國에 내보내야 할 特技者를 養成하는 이들 特殊學校에서는 素質과 함께

出身成分·思想性 등을 重視하여 選拔할 수 있고, 長期間 一貫되게 監護·訓練시킬 수 있는 制度的 利點을 考慮한 것이다. 이밖에 外國語學校와 體育學校도 特殊學校에 屬한다.

成人學校에는 前述한 工場大學·農場大學·漁場大學과 勤勞者中學校가 있는데, 1972年以來 高等中學義務制를 자랑하는 北韓에 아직도 勤勞者中學校가 남아있다는 事實은 그들의 宣傳과 現實과의 隔差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學校教育體系圖



學校教育體系圖는 別表와 같은데, 그밖에 党·政權機關 및 外廓團體의 幹部養成機關으로서 ① 마르크스·레닌主義 學院 ② 金日成 高級党學校 ③ 松都政治經濟大學 ④ 人民經濟大學 ⑤ 康盤石革命學院 ⑥ 市道 共產大學 ⑦ 社勞青大學과 ⑧ 各種 軍官學校도 있다.

그들은 金日成과 그 家系の 偶像化를 위해 學校名稱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를 다음에 紹介한다.

#### 學校名과 偶像化造作例

- 金日成綜合大學 ( 1946.9.1 命名 設立 )
- 金日成高級党學校 ( 1972.4.15 中央党高級學校 改名 )
- 金日成放送大學 ( 1972.4.15 命名 設立 )
- 金亨稷師範大學 ( 1975.3.23 平壤第1師大, 改名 )
- 康盤石革命學院 ( 1975.4.19 南浦革命學院 改名 )
- 金晶淑師範大學 ( 1981.8.17 惠山第2師大 改名 )
- 金晶淑女子高等中學校 ( 1981.8.17 新波女高中 改名 )

北韓의 學校教育에서 看過할 수 없는 悲劇的 現象은 ① 教材의 內容이 眞理를 歪曲하고 反道德的·反情緒的·反教育的이라는 點과 ② 進學 및 就業에 있어서도 學生의 成績보다는 身分性(党性和 出身成分)·勞動性 및 組織生活 評價가 크게 反映되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었다는 點이다.

먼저, 教科內容을 보면, 그 2大本流는 ① 金日成 偶像化와 革命傳統教養을 위주로 하는 政治思想教養과 ② 生産·建設에 活用하기 위한 應用科學 및 技術의 教育인 바, 그 教材의 反教育性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歷史가 捏造되어 있다. 唯物史觀·革命史觀에 따라 世界史가 變造되었고, 金日成과 그 家系の 偶像化를 위해 우리나라 近代史가 捏造되었다.

(2) 自然科學 및 數學에까지도 政治思想性을 注入하여, 金日成의 神格化, 社會主義의 優越性과 勞動階級性 鼓吹, 韓國과 美國에 대한 敵愾心을 높이는 데 利用하고 있다. (別項의 教科書 內容例 參照)

### 教科書 內容(例)

- 偶像化·革命傳統 敎養
  - 泰山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원수님 은덕(人民校4 國語)
  - 해바라기가 太陽을 따르듯 수령님 교시따라(高中3 國語)
  - 首領의 訪問과 밤잠(高中3 國語)
- 社會主義의 優越性 敎養
  - 共和國 英雄이야기책 1日1時間 15分×3日=? (人民4 算數)
  - 南朝鮮 失業者數와 增加率(高中1 代數)
  - 南朝鮮 賣血賣眼球 5+5=? (人民1 算數)
- 階級·革命意識 鼓吹(反資本·反地主)
  - 욕심 많은 개(人民1 國語)
  - 어린이에 대한 地主의 만행(공산주의 도덕)
  - 욕심장이 地主를 人民들이 죽여버렸다( " )
- 勞動의 神聖性 鼓吹
  - 일하지 않는 者는 먹지도 말라.
  - 충성·노동으로 꿀과 젖이 흐르다.(人民3 國語)
- 排外思想(反美 反帝)
  - 명성 아버지 얼굴 흠집은 미국놈이(人民3 國語)
  - 美國놈 탱크 50臺中 인민군이 30臺를 까부셨다. 앞으로 몇 대를 더 까부셔야 하는가?(人民1 算數)

(3) 反教育的 煽動用語가 教材에 쓰이고 모든 用語가 軍事用語化하고 있다. 「놈」·「까부시다」·「죽여버리다」등은 前者의 例이고, 高地·占領·突擊隊·決死隊·主力軍·大部隊·戰鬪·武器·指揮部·參謀部·戰取

物·基地 등은 後者の 例이다.

(4) 이른바 革命的 新語가 새로 만들어지고, 語彙의 概念도 變用·變質되어 가고 있다. 일본새·方式上學·以身作則 등은 前者의 例이고, 討論·團結·合作·招待所·接待婦·民主·民族 등은 後者の 例이다.

言語를 “革命과 建設의 모든 分野에서 大衆을 革命鬪爭으로 불러일으키는 組織動員의 武器이며, 社會主義 文化를 南朝鮮 革命發展段階에 맞추어 浸透시키는 武器” (1956.5 金日成 敎示)라고 定義한 속셈과 無關하지 않다.

다음, 大學進學制度에 있어서는, 高等中學校를 卒業하고 2~5年間 企業所 등의 職場生活이나 軍服務를 마치고, 그동안의 黨 또는 社勞靑 組織生活에서 認定을 받아, 黨이 主管하는 大學推薦委員會의 推薦을 받아야 進學할 수가 있다. 보통 卒業生의 20%는 職場에 配置되고 70%는 軍에 入隊하게 되는데, 約 10%에 該當하는 特權層 子弟는 例外的으로 卒業과 同時에 進學하는 特典이 있다. 萬景臺革命學院 出身은 여기에 該當한다.

1980年度부터 大學入學資格考查制가 實施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出身成分爲主의 大學推薦으로 많은 不滿이 쌓이고, 人力資源管理에도 問題點이 생겼기 때문에 形式的으로 施行하고 있을 뿐, 成分中心의 推薦이 決定的 役割을 하는 點에서는 差이 없다. 資格考查에 合格하고, 黨의 推薦을 받은 者에 대한 選拔基準은 ① 党性을 고려한 出身成分 1/3 ② 政治社會團體 生活 評點 1/3 ③ 入學試驗成績 1/3의 比率로 評定되기 때문이다. 志望에 의한 學科의 選擇은 거의 不可能하고, 오직 黨의 人力養成計劃에 의해 配置될 뿐이다.

卒業後의 職場配置에 있어서도 中央級 大學의 人文系는 中央黨에서, 自然系는 政務院에서 決定하며, 市道級 大學은 市郡人民委員會가 決定하는데, 一般的으로 黨幹部子弟는 統治分野에, 平黨員의 子女는 下級機關 또는 研究機關 등에 配置되고, 그밖의 卒業者는 生産工場에 配置된다.

## 다. 人間改造 (政治教化) 의 方法

이른바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에는 社會主義 教育의 方法(第3章)이 羅列되어 있는데, ① 學習을 통한 人間改造 ② 勞動을 통한 人間改造 ③ 團體生活을 통한 人間改造 ④ 온 社會의 革命化를 통한 人間改造와 ⑤ 平生을 통한 人間改造 등이다. 즉, 一生 언제 어디서나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共產主義의 새 型의 人間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들의 人間改造에는 早期教育에서 平生教育까지, 集團主義에서 反復主義까지의 時空을 超克한 洗腦的·馴致的 手段이 動員된다. 파블로프(Pavlov: 1849 ~ 1936)의 條件反射說이나 마카렌코의 集團主義教育論이 援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1) 學習을 통한 方法

學校의 授業, 日日義務學習, 職場과 地域의 모든 教養活動 등에서 歪曲·捏造된 學習內容으로 政治思想教育이 強要된다. 單純論理의 複雜한 展開形式, 同一內容의 反復 등으로, 틈을 주지 않는 手法을 모두 動員한다.

### (2) 勞動을 통한 方法

勞動은 生産과 建設에 動員하기 위해 重要視할 뿐만 아니라, 勞動階級性을 높이는 人間改造의 方法으로도 強要되고 있다. “勞動階級の 모양대로 닳아가야 한다”는 것을 農民과 勤勞인테리에게 機會있을 때마다 強調하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 (3) 組織生活을 통한 方法

託兒所(生後 30日부터 3歲), 幼稚園(4~5歲), 各級學校, 少年團(8~13歲), 社勞靑(14歲~30歲), 붉은靑年近衛隊(高中 高等班), 教導隊(大學), 勞動黨, 職盟·女盟·農勤盟 등의 外廓團體, 勞農赤衛隊(16

歲~60歲) 등 모든 組織生活이 集團主義的 人間改造의 場이 되어 있으며, 二重三重的 組織生活이 거의 平生동안 強要되고 있다.

#### (4) 軍事訓練을 통한 方法

붉은青年近衛隊, 教導隊, 勞農赤衛隊와 같은 軍事組織뿐만 아니라 모든 團體生活에서 好戰性을 고취하고 革命戰士로서의 訓練을 받는다. 忠誠心·服從心·勇猛性·敵愾心 등을 북돋아 金日成에 忠直한 決死隊·近衛隊를 만들려는 人間改造方法이다.

#### (5) 그밖의 人間改造方法

「은 社會의 革命化와 平生을 통한 人間改造方法」으로서 地域·職場·軍隊를 망라하여 人間改造의 場으로 活用한다. 革命傳統歷史研究室, 金日成革命思想研究室, 革命活動研究모임, 배움의 千里길 行軍運動, 各種 社會主義競爭運動, 國防體育, 3大革命小組運動, 千里馬 學級運動, 80年代 速度創造運動, 革命戰蹟地踏查 등 모든 政治思想的 活動과 施設이 時空을 超越한 狀態에서 人間改造의 手法으로 活用되고 있다.

萬페이지 책읽기운동에 심지어는 키크기운동까지 強要되는 北韓의 人間改造事業은 바로 北韓 教育의 全貌라 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 5. 北韓教育의 實相과 虛像—綜合批判

### 가. 基調的 矛盾

北韓의 教育은 本質的으로 歪曲된 人間觀·歷史觀에 바탕을 둔 共產主義 教育觀을 基調로 하고, 또 그 바탕위에 形成된 蘇聯의 教育政策과 制度

를 그대로 導入·模倣한 反民族·反傳統文化的 教育體制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金日成 1人支配體制 나아가서는 世襲獨裁體制를 구축하기 위하여 教育을 完全히 政治에 隸屬시킨 異端的 政治教化體制이다. 教育內容 및 方法에 있어서의 反眞理·反倫理·反情緒·反審美·反教育·反民族性도 世界에서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異端性을 나타내고 있다. 北韓 教育의 基調的 矛盾이라 할 수 있다.

#### 나. 教育政策 및 制度上的 問題點

위와 같은 基調的 矛盾의 歸結로서 北韓의 教育은 그 政策面에서나 制度面에서 여러가지 問題點을 내보이고 있다.

(1) 教育이 政治에 從屬되고, 黨에 隸屬되기 때문에, 眞正한 意味의 教育 政策은 없다. 오직 金日成의 恣意的 敎示와 勞動黨의 一般政策이 教育政策이라는 이름으로 政治教化에 作用할 뿐이다. 共產主義的 政治綱領이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敍제」라는 이름으로 教育指針書가 되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證明할 수 있다.

(2) 教育制度도 勞動黨의 戰略·戰術的 次元에서 外形的 擴張, 任意的 變革, 急進的 改革을 거듭한 結果, 內實의 缺如, 安定性의 喪失, 劃一化 등 여러가지 虛像과 缺陷을 나타내고 있다. 政策과 制度의 閉鎖性도 發展沮害要因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全體主義의 體制的 缺陷이 北韓의 教育에도 그대로 反映되고 있는 바, 美國의 브레진스키教授는 全體主義의 特徵(6 - Syndromes)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는데, 이에서도 北韓의 典型的 全體主義體制性을 再確認할 수 있다.

##### ① 唯一的 官製 이데올로기

- ② 唯一黨
- ③ 테러에 의한 社會統制
- ④ 言論 自由의 抹殺
- ⑤ 黨에 의한 武裝力 掌握
- ⑥ 中央集權的 計劃과 統制

(3) 北韓의 이른바 知·德·體 教育도 ① 共產主義 理念과 生産技術을 體得케 하여 革命과 建設에 動員하여 政治道具化하려는 意味에서의 知育이요 ② 金日成의 主體思想·唯一思想으로 劃一化하고, 忠直한 革命戰士化하려는 意味에서의 德育이며 ③ 國防體育과 勞動力 再生手段으로서의 體育이다.

北韓은 그들의 「唯一思想口號」대로 “黨과 首領이 생각하는대로 생각하고, 숨쉬고, 말하고, 行動하는 人間” 즉 人間로봇을 鑄造하려는 것이다.

다. 所謂 「共產主義的 새 型의 人間」의 虛像

37年間の 政治教化를 통하여 이른바 「共產主義的 새 型의 人間」으로 養成된 北韓 靑少年들의 意識構造는 어떠한가. 어떤 面에 있어서는 ① 意識과 行動이 規範化되어 있고 ② 價値觀이 單純化되어 있으며 ③ 教條的인 忠誠心 ④ 外形上의 勤儉性 ⑤ 決斷性·勇敢性 등 強點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脆弱點과 虛像을 顯在的·內在的으로 지니고 있다.

(1) 不安·焦燥 등의 被害意識에서 오는 心理的 葛藤속에 살고 있다. 監視·批判·競爭의 生活環境이 주는 壓迫 때문이다.

(2) 義理와 人情이 沒却되어 있다. 이른바 모로조프 (Morozov) 少年型으로 人間改造한 結果이기도 하지만, 前述한 相互監視·相互批判·相互競爭의 副産物이다.

(3) 個性·創意力·比較分析力 및 綜合的 批判能力이 缺如되어 있다. 集團主義教育과 全體主義的 統制下에 受動的·被動的으로 生活하여 온 習性이 낳은 것이다.

(4) 自立心과 自律性이 缺如되고 責任感도 稀薄하다. 위와 같은 理由에서 다.

(5) 視野와 思考領域이 偏狹하고, 多樣性에 대한 危懼心이 크다. 觀의 偏狹性·社會의 密閉性·劃一主義의 必然的 歸結이라 하겠다.

(6) 和合 및 妥協心이 缺如되고, 暴惡과 嫉妬가 強하다. 共產主義의 絕對性理論, 唯物史觀, 革命思想教養 등의 效果이기도 하며 그 副作用이기도 하 다.

(7) 人間本性을 抑壓한 教育과 監視統制下의 日常生活로 말미암아 表裏不 同한 人間性이 形成되고 있는 것도 看過할 수 없는 問題點이다.

以上과 같은 北韓 靑少年의 意識構造와 價値觀의 變質은 우리가 志向하 는 平和統一에 대한 內面的 沮害要因이 되고 있다.

## 6. 結 言

北韓은 社會主義 教育을 빙자하여 政治·軍事·勞動·教育의 一元體制를 形成하였고, 37年間の 政治敎化에 의하여 言語·思想·價值觀·思考方式·行動樣式 등 意識構造와 行動體系까지도 共產主義化하여 우리와의 民族的·文化的 異質性이 深化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人間의 本性과 人類의 歷史發展法則에 逆行하는 理念과 體制가 永久的일 수는 없다. 物理的 힘의 限界성과 眞理 및 本性에의 回歸法則을 믿기 때문이다.

“機會主義者들의 策動이 계속되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은 思想殘滓가 남아 있는 條件에서 思想敎養事業을 寸時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로동신문 社說)거나, “革命傳統을 올바르게 繼承發展시키지 못할 때는 革命的 背信者·變節者들에 의해 革命이 籠絡당하고 黨이 變質되어 피로써 爭取한 革命的 戰取物마저 危險에 빠뜨리게 된다” (中央放送 論說)는 등의 論旨속에서, 저들의 弘報生理에 비추어 볼 때, 37年間の 혹독한 統制와 敎化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北韓體制에서 어떤 現象이 일고 있는가를 넉넉히 헤아릴 수가 있다.

北韓에서는 그동안 1945年 水準에서 外界情報를 遮斷하고, 密閉狀態의 統治로써 住民의 慾求와 比較意識을 抑制하여 왔는데, 科學情報媒體의 發達과 外界接觸機會의 擴大趨勢는 外界情報의 遮斷을 차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獨裁者의 神格化는 「神의 無謬性」에 따른 自己霸束的 屬性과 硬直性때문에, 새로운 狀況에 대한 適應과 調整을 不可能하게 하여 矛盾의 累積에 의한 內部的 崩壞(爆發)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外部에서 들어가는 自由의 물결은 且置하고라도, 忍苦속의 自覺에 바탕을 둔 自由의 샘

(泉)이 안에서 솟지 말라는 法도 없다. 오늘날 北韓의 内部에서는 그런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비록 長期的·巨視的으로는 우리 體制의 優越性を 確信하고 將來를 樂觀하면서도, 短期的·微視的으로는 北韓의 教育이 우리 國家安全保障과 平和統一에 큰 威脅 및 沮害要因이 되고 있음을 警戒해야 한다.

우리는 來日の 國力伸張基盤을 다지기 위해 우리의 民主·民族教育體制를 더욱 補完 發展시키고, 恒時 確固한 安保態勢로, 北韓의 企圖와 挑發을 抑制하면서, 北韓對比 越等한 國力을 培養하여, 우리의 對話 및 平和統一提議에 應해 오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슬기롭게 對處해야 하겠다. 이 길만이 民族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中興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美國의 政治學者 레이·클라인(Ray S. Cline) 教授의 새로운 國力算出 모델을 紹介하는 바, 이 모델에 의하면 아무리 國土가 넓고, 人口와 資源이 豊富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軍事力이 強하다 하더라도 無形的인 政治力이 弱하다면 國力은 보잘 것 없는 結果가 된다.

#### 國力算出 모델

$$\text{國力} = (\text{國土} + \text{人口} + \text{資源} + \text{軍事力}) \times (\text{國家戰略} + \text{國民意志})$$

國家安保는 國力이 뒷받침하는 것이다. 國力에 있어서의 政治力의 重要性, 이를 뒷받침할 國民精神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參 考 文 獻

- 北韓教育論 (朴東雲外), 北韓問題研究所, 1977.
- 北韓教育의 分析 (金桂郁), 大提閣, 1980.
- 北韓의 教育實態 (盧啓鉉), 統一研修所, 1981.
- 北韓의 大學生活實態에 관한 研究 (尹炯憲), 國土統一院, 1981.
- 韓國의 自己發見, 한국정신문화연구원編, 1981.
- 北朝鮮社會의 實態分析 (李瑜煥外), 東京洋洋社, 1982.
- 北韓의 靑少年·大學生 (李恒九), 民統中央協議會, 1982.
- わが體驗的 朝鮮問題 (佐藤勝己), 東洋經濟新報社, 1978.
- 北韓概要, 國土統一院, 1981.
-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김일성),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北韓의 教育 (要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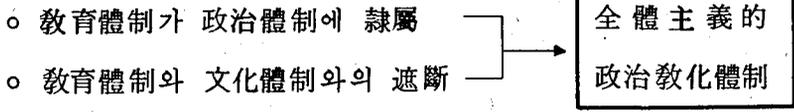
1.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教育의 定義

- 教 育 : 階級鬭爭의 手段·過程
- 教 員 : 政治的 宣傳煽動要員  
(職業的 革命家, 階級意志의 代行者)
- 學 校 : 共產主義 原則의 先導機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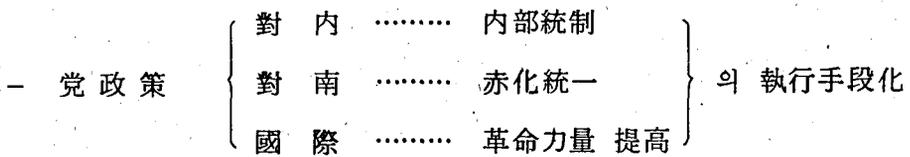
2. 南北韓 教育의 本質 比較

	韓 國	北 韓
教 育 觀	人 本 主 義 (素質, 創意, 發展力)	全 體 主 義 (定 型 鑄 造)
教 育 理 念	自我實現을 통한 弘益人間	共產主義的 새 型의 人間
教 育 目 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主市民的 人格完成</li> <li>○ 自律的·自治的 生活能力의 培養</li> <li>○ 民族國家觀의 確立</li> </ul>	全人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革命化</li> <li>勞動階級化</li> <li>共產主義化</li> </ul>
志 向	民 族 主 義	勞 動 階 級 主 義 (反 民 族 主 義)

3. 北韓教育의 體制的 特徵



(1) 勞動黨에 의한 專橫的 統制



(2) 政治思想教育 偏向

- 唯一思想 · 革命傳統教養을 통한 偶像化

(3) 技術教育과 學生社會義務勞動制

- 生産 · 建設에의 組織的 動員 · 統制

(4) 早期教育 · 義務教育의 外形的 擴張

- 體制內 收容 ( 隔離 ) · 統制 · 動員

(5) 政治的 宣傳煽動 · 大衆操作과 密着

- 政治 · 經濟 · 文化 · 教育의 一元體制化

(6) 軍事教育에 置重

- 好戰性 教育

(7) 集團主義, 劃一主義, 命令主義, 閉鎖主義 등

4. 政治教化 (人間改造)의 方法

- (1) 學習을 통한 政治思想教育 (捏造, 歪曲, 反眞理)
- (2) 組織活動을 통한 集團主義教育  
(託兒所→幼稚園→學校→外廓團體)
- (3) 勞動을 통한 生産·實踐教育 (大學生 年 14 週)
- (4) 軍事訓練을 통한 好戰性教育 (大學生 4 年間 2,740 時間)  
(少年團→붉은靑年近衛隊→教導隊→勞農赤衛隊)
- (5) 그밖의 時空을 넘어선 人間改造運動  
(課外活動, 競爭活動, 小組運動, 千里馬運動 등)

5. 鑄造된 “새 型의 人間像”의 虛像

外見上의 強點	內在的 脆弱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意識·行動의 規範化</li> <li>○ 價値觀의 單純化</li> <li>○ 教條的 忠誠心</li> <li>○ 勤儉·決斷·勇敢性</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心理的 葛藤 (不安·焦燥)</li> <li>(2) 義理·人情의 沒却</li> <li>(3) 個性·創意力·批判力의 缺如</li> <li>(4) 自立·自律·責任性의 缺如</li> <li>(5) 視野·思考領域의 狹小</li> <li>(6) 和合·妥協·協同心의 缺如</li> <li>(7) 表裏不同</li> </ul>

6. 北韓 教育理論의 推移

區 分	教育理論	背 景
第1期 (政權樹立~50年代)	소비에트教育學	스탈린의 教育理論 直導入
第2期 (60年代)	마르크스·레닌의 教育理論	스탈린格下와 關聯 共產主義 元祖 理論으로 復古
第3期 (70年代~現在)	社會主義教育學	模倣, 創出

7. 이른바 “社會主義 教育學”의 反學問性

區 分	內 容
沿 革	○ 金日成 敎示를 바탕으로 勞動黨 第5期 第14次 全員會議 ('77.9.5)에서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테제”를 制定·公表
制 定 目 的	○ 金日成의 主體思想·唯一思想에 의한 人間改造 ○ 社會主義 發展段階에 副應할 專門人力 確保
社會主義 教育學의 5大原則	(1) 黨 唯一思想體系 確立의 原則 (2) 党性·勞動階級性的 原則 (3) 主體確立의 原則 (4) 教育과 革命實踐의 統一原則 (5) 革命化·勞動階級化的 原則
同 테제의 構成	第1章 基本原理 (全人民의 革命化·勞動階級化·共產主義化) 第2章 教育의 內容 (政治思想·科學技術·體育教育) 第3章 教育의 方法 (學習, 勞動, 實習, 組職生活, 平生教育) 第4章 教育制度 (義務·成人·就學前教育) 第5章 教育機關의 任務와 役割 (敎員의 位置, 黨的統制 등)

# V. 北韓의 軍事·外交

尹 炳 益  
(統一研修所 教授)

## 目 次

1. 序 言 .....	193
2. 北韓의 對中·蘇關係와 軍事路線 .....	196
3. 駐韓美軍問題 .....	205
4. 「主體思想」 및 統一方案의 宣傳·煽動 .....	208
5. 經濟外交 .....	212
6. 結 言 .....	216



## 1. 序 言

우리는 通常 「戰爭」과 「平和」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여 왔다. 「戰爭」이 지나가면 「平和」가 오고, 「平和」가 지나가면 「戰爭」이 오는 것으로 「二元論」的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西方側 사람들이 가져 온 國際情勢觀이다. 네덜란드의 國際法學者였던 그로티우스 (Grotius, Hugo ; 1583 ~ 1645)는 일찌기 「戰爭과 平和의 法」이란 유명한 冊을 썼는데 이 책이 바로 現代國際法の 始初가 되었던 바, 現代國際法은 그로티우스의 책이름이 명백히 말해 주듯이 國家間의 關係를 「戰時關係」와 「平時關係」로 나누어 二元論的 立場에서 規範化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西方國際政治學者 가운데는 國際關係現象을 「戰爭」과 「平和」라는 觀點에서 分析해 보려는 사람이 많다.

이상과 같이 「戰爭」과 「平和」의 問題를 二元論的 立場에서 보려는 思考와는 달리 “같은 連續線上的 問題”로 一元論的 立場에서 보려는 思考가 있다. 「戰爭論」( Vom Kriege )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普러시아의 戰略家 크라우제비츠 (Clausewitz, Karl ; 1780 ~ 1831)는 “戰爭은 政治의 다른 手段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 오늘날도 近代戰略理論의 어버이격으로 尊敬받고 있다. 「戰爭」을 「政治」의 連續線위에서 보았다.

그런데 크라우제비츠의 見解를 가장 잘 受容하여 共產主義의 戰略·戰術理論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다름아닌 레닌 (Lenin, Nikolai ; 1870 ~ 1924)이다. 레닌은 크라우제비츠가 「戰爭」을 「政治」의 連續線위에서 본 立場과 똑같이 「暴力을 政治의 手段」으로 삼아 볼세비

키革命을 성공시켰다. 레닌이래 共產主義者들은 「戰爭」과 「平和」의 問題를 西方側의 國際政治學者들과, 같이 二元的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戰略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戰術的인 差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北韓의 軍事와 外交를 한데 묶어 取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은 北韓땅에서 「社會主義革命」을 完成시키고, 이른바 「南半部」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完成한다는 명백한 戰略目標를 갖고 있다. 1972年 12月의 이른바 「社會主義憲法」은 第5條에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規定하고, 1980年 10月 改正된 이른바 「朝鮮勞動黨規約」은 그 前文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상 「社會主義憲法」과 「勞動黨規約」에 明示된 바와 같이 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의 完成, 「南半部」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의 實現 그리고 全韓半島의 이른바 主體思想化와 共產主義社會의 建設이 北韓共產集團의 當面目的이며 最終目的으로서 이를 위하여 北韓에서의 「社會主義革命力量」과 南韓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들 兩革命力量을 支援하는 것이 「國際革命力量」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들 「社會主義革命力量」,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 그리고 「國際革命力量」이 1964年 2月 勞動黨中央委員會는 第4期 第8次 全會員會議와 1965年 4月 金日成이 인도네시아를 訪問하였을 때 알 아르

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演說에서 露骨의으로 밝힌 바 있는 이른바 「3大革命力量」이다.

北韓共產集團은 이들 3大革命力量은 相互 有機的인 聯關關係를 맺고 있다고 보고 있다. 北韓의 「社會主義革命力量」이 強化되려면 「國際革命力量」이 強化되어야 하며, 北韓의 「社會主義革命力量」이 強化되어야 南半部の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이 強化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國際革命力量」의 強化도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의 強化에 중요한 影響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北韓共產集團의 外交는 두말할 必要조차 없이 「國際革命力量」을 強化하기 위한 것이며, 軍事는 이른바 「南朝鮮社會의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이 성숙되어 결정적인 시기가 조성되면 일거에 全韓半島를 共產化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外交」와 「軍事」는 마치 중의의 앞뒤 面과도 같이 不可分의 密接한 關係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은 對南軍事挑發의 誘惑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情勢가 성숙되지 못한 狀況속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에 優先順位를 두고 있다. 따라서 「南半部」를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誘導하기 위하여 有利한 環境을 造成하고, 革命의 國際的 支援勢力을 確保하는 일은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이 추구하고 있는 「外交」의 窮極的인 目標이다. 따라서 北韓共產集團의 外交는 經濟的 利得追求를 主要內容으로 하는 「實利外交」이기보다는 「人民民主主義革命」情勢의 造成과 主動勢力 確保를 目的으로 하는 「名分外交」의 性格이 강하며, 따라서 政治的 宣傳·煽動이 外交의 核心的 內容이 되고 있다. 그리고 黨·政府·人民의 세次元에서 總力戰 概念으로 外交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外交의 對象國家를 1950年의 共產圈中心에서 1960年代의 中立圈 - 이른바 불력不加擔國 - 으로, 그리고 1970年代부터는

自由圈으로까지 多邊化시킨 것도 「南半部の 人民民主主義革命」을 誘導하기 위한 戰略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이상과 같이 分析하여 볼 때 北韓共產集團의 軍事와 外交를 살펴봄에 있어 軍事 따로 外交 따로 각각 說明하는 方法도 있고 外交의 경우도 共產圈, 中立圈, 自由圈 그리고 UN外交 등 圈域別로 각각 說明하는 方法도 있으나, 이곳에서는 軍事와 外交의 有機的 聯關性을 고려하고 北韓共產集團의 戰略·戰術的 目標를 명백히 把握하기 위하여 北韓의 軍事와 外交를 (1) 北韓의 對中·蘇關係와 軍事路線, (2) 駐韓美軍問題, (3) 「主體思想」 및 統一方案의 宣傳·煽動 그리고 (4) 經濟外交 등 4個分野로 나누어 說明하고자 한다. (1)項目에서는 北韓과 中·蘇間의 이른바 北方三角關係의 歷史的 展開過程과 北韓의 對南軍事政策을 說明하고 (2)項과 (3)項은 이른바 「南半部」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을 誘發시키기 위한 情勢造成과 革命의 國際的 支援助勢力을 형성하기 위한 問題를 다루며 (4)項은 「實利外交」로서의 經濟外交를 說明하고자 한다.

## 2. 北韓의 對中·蘇關係와 軍事路線

北韓共產集團은 1950年6月25日, 같은 民族의 가슴에 銃을 쏘아 韓國戰爭을 일으켜 千秋에 씻지 못할 罪를 범하고서도, 오히려 우리 大韓民國이 北侵하였다고 지금까지도 뻔뻔스럽게 떠들어대면서, 오늘날도 機會만 잡으면 第2의 韓國戰爭을 일으켜 보려고 虎視眈眈 血眼이 되어 있다.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나자 蘇聯軍 少佐階級章을 달고 北韓땅에 발을 디딘 金日成은 1948年9月9日, 蘇聯의 脚本에 따라 이른바 朝

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를 樹立하였으며, 역시 蘇聯의 脚本에 따라 韓國 戰爭을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金日成은 蘇聯의 완전한 傀儡로서 당시 蘇聯의 對極東政策을 충실히 遂行하였다. 1945年 8月 蘇聯軍은 38度線以南까지 내려왔으나, 38度線을 軍事分界線으로 하여 그以北地域의 日本軍의 降伏은 蘇聯軍이 접수하고, 그以南地域의 日本軍의 降伏은 美軍이 각각 접수하자는 美國側 提議를 받아들여 38度線으로 退陣하였다. 蘇聯이 美國側 提議에 순순히 應한 것은 日本本土를 美國과 共同分割하는데 參與해 보려는 속셈에서였으나, 그後 美國과의 交渉이 뜻대로 되지 않자 韓半島에서 領土의 補償을 받아 보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1950年 1月 美國이 極東情勢를 誤判하고 韓半島를 美國의 極東防衛線에서 배제시키는 「애치슨宣言」을 發表함으로써 蘇聯은 金日成을 앞세워 韓國戰爭을 일으킨 것이다.

호루시초프回顧錄에 의하면 金日成은 1949年 여러 차례 蘇聯을 訪問하였을 때 스탈린 앞에서 韓國戰爭에서의 勝利를 다짐할 정도로 蘇聯의 충실한 傀儡였다.

한편 蘇聯은 金日成을 앞세워 韓國戰爭을 일으켰으나 美國이 「애치슨宣言」을 뒤엎고 즉각 參戰하였으며, 마침내 戰線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休戰政策을 추구할 수 밖에 없었고, 蘇聯의 微溫的인 戰爭遂行에 불만을 품은 金日成도 1953年 스탈린이 즉각 休戰協定에 署名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韓國戰爭을 계기로 蘇聯과 그의 충실한 走狗인 金日成 사이에 不和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스탈린의 뒤를 이은 호루시초프가 1956年 第20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 (1) 資本主義國家와 共產主義國家 사이에 반드시 戰爭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른바 「戰爭可避論」을 내세워 兩世界 사이의 平和共存 可能性을 提起하면서, (2) “職業革命家에 의한 暴力

革命方式”이 아니고 資本主義社會의 議會民主主義 節次를 통하여 共產黨이 多數議席을 占함으로써 共產政權을 樹立할 수 있다고 표방하면서 스탈린式 共產主義를 攻擊하자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正統性을 主張하는 中共과의 사이에 理念紛爭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中·蘇理念紛爭의 渦中에서 스탈린式 共產主義를 北韓社會에 移植한 金日成은 흐루시초프路線을 追從할 수 없었으며, 共產主義 革命過程이 비슷한 段階에 처해 있기도 한 中共쪽으로 기울게 되었으며, 이를 契機로 北韓共產集團과 蘇聯과의 關係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金日成의 蘇聯에 대한 不信은 1962年 쿠바事態와 中·印國境紛爭을 계기로 더욱 深化되었다. 당시 케네디美國大統領이 쿠바에 蘇聯미사일을 配置하면 쿠바를 海上封鎖하겠다고 壓力을 가하자 蘇聯은 이에 굴복하여 미사일配置를 철회하였으며, 또 蘇聯은 中·印國境紛爭이 일어나자 非共產國家인 印度를 지지하는 立場을 취함으로써 中共을 包圍하려는 戰略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金日成은 1961年 7月 中·蘇 兩國과 각각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 사실상 軍事同盟條約 - 을 이미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獨自의 軍事力을 강화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1962年 12月 勞動黨 第4期5次 全員會議에서 「全民의 武裝化」, 「全國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그리고 「全軍의 現代化」를 內容으로 하는 이른바 「4大軍事路線」을 採擇하고 이를 積極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蘇聯의 傀儡政權으로 出發한 北韓共產政權은 韓國戰爭, 中·蘇理念紛爭 그리고 쿠바事態와 中·印國境紛爭을 거치는 동안 蘇聯과의 關係가 점차 멀어져 간 반면, 中共과의 關係는 점차 가까워졌다. 中共은 中共軍에 편입되어 있던 韓人古兵들을 1948年부터 北

韓에 歸還시키기 시작하여 韓國戰爭 前夜에는 實戰經驗을 쌓은 中共軍出身 北傀軍이 3 할이상을 占하였다. 그리고 毛澤東은 1949年末부터 1950年初에 걸쳐 蘇聯을 訪問하였는바, 당시 蘇聯軍이 進駐하고 있었던 滿洲地域을 返還받는 問題와 蘇聯으로부터 經濟援助를 받는 問題 등을 스탈린과 論議한 바 있는데 이때 毛澤東과 스탈린은 韓國戰爭을 陰謀했을 것이라는 主張이 있기도 하다.

여하튼 中共은 韓國戰爭이 일어나자 北韓共產集團을 전면적으로 支援하였다. 1950年 10月 2日 深夜, 당시 周恩來中共首相은 北京駐在 印度大使 파니카를 外務省으로 불러 “만일 韓國軍이 아니라 유엔軍이 38度線을 넘어 北上하는 경우 中共軍은 戰爭에 介入하지 않을 수 없다”고 事實상 最後通牒을 宣言하였다. 과연 1950年 10月 유엔軍이 38度線을 넘자, 11月 26~27日 第4野戰軍司令官 林彪麾下의 中共軍이 韓國戰線에 나타났으며, 中共은 마침내 韓半島休戰協定の 當事國이 되었다.

그리고 韓國戰爭에 介入한 中共軍은 休戰協定이 締結된 이후에도 계속 北韓에 머물러 있다가 1958年 2月, 平壤을 訪問한 周恩來中共首相과 北韓當局사이에 協議가 成立되어 1958年 4月 30日부터 10月 16日 사이에 北韓에서 撤收하였다. 그러나 中共은 1961年 이래 北韓과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 事實상 軍事同盟條約 - 을 維持하고 있으며, 특히 이 條約은 韓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나면 中共은 “自動 即刻介入” 하겠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北韓과 中共은 韓國戰爭을 계기로 이른바 “血盟의 關係”가 되었다. 毛澤東은 그의 長男(모안영)을 韓國戰線에 派遣하였으며 韓國戰線에서 死亡한 그의 墓는 아직도 北韓에 있어 北韓과 中共사이의 「血盟關係」를 象徴적으로 代辯하고 있다. 지금은 失脚

하였으나 1978年 主席이 되어 첫 外國나들이로 平壤에 온 華國鋒에게 北韓當局은 “北傀人民軍”과 “中共人民支援軍”이 열싸안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銅像을 贈物하였는데 그 銅像에는 “너와 나는 피로 맺은 同志”라는 글귀가 새겨졌다고 한다. 한편 北韓共產集團과 中共은 相互關係를 ‘脣齒關係’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특히 中共은 이른바 「脣亡齒寒」이라고 하여 北韓을 中共安保의 死活的 存在로 規定하고 있다. 오늘날 中共은 北韓地域(나아가서 韓半島)을 자기나라를 防禦하기 위한 같은 安保圈, 혹은 「外境」으로 생각하며, 北韓과 密着關係를 維持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共產集團은 中·蘇紛爭의 틈바귀에서 이른바 “양다리外交”를 해오면서도, 그리고 中·蘇紛爭의 틈바귀에서 시달리다가 1966年頃부터 이른바 「自主路線」을 표방하여 脫出口를 찾으려고 하면서도 사실상 北韓은 中共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왔다.

물론 北韓共產集團과 中共과의 關係가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특히 1960年代 中盤 中共의 이른바 「文化大革命期」동안은 北韓과 中共과의 關係가 아주 험악하였었다. 天安門廣場에 金日成을 비난하는 漫畫가 등장했고, 白頭山領有權紛爭도 절정에 이르렀다. 「文化大革命期」의 中共은 親蘇路線을 따르고 있다고 본 北韓에게 白頭山領有權을 主張함으로써 壓力을 가하였다. 「文化大革命」이 한 고비 지나가고 北韓과 中共과의 關係가 回復되기 시작하자 白頭山領有權紛爭도 일단락되어 이 무렵 「朝鮮中央年鑑」에는 金日成이 白頭山天池 옆에서 있는 寫眞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1980年 10月 中共의 「北京晚報」, 「光明日報」등이 “天池怪物出現說”을 보도하면서 “中國東北方의 海拔 2,700 m에 位置한 朝鮮國境에 가까운 白頭山에 있는 天池”式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러가지 情報에 의하면 北韓과 中共은 「天池」를 東西로 갈라 國境線을 劃定한 듯하다.

한편 北韓은 1970年代 이래 中共이 美·日 兩國과 關係를 正常化시키고 美國의 反蘇戰線에 加擔하게 되자 이와 같은 中共의 自由世界로의 社會開放政策이 北韓體制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封鎖하기 위하여 中共과 미묘한 葛藤關係를 유지하게 된다. 金日成은 1980年10月 「勞動黨 6次全黨大會」에서 “共產主義國家가 帝國主義와 無原則的으로 妥協해서는 안된다”라고 거의 露骨的으로 中共의 對美·日接近政策을 攻撃한 바 있다.

이와 같은 北韓과 中共사이의 미묘한 軋轢關係는 1981年末 趙紫陽 中共首相의 平壤訪問으로 비롯된 兩側 高位層의 一連의 相互訪問으로 무르녹기 시작하여, 1982年4月 金日成의 70回 生日에 鄧小平, 胡耀邦의 極秘裡의 平壤訪問과 1982年9月 金日成의 中共訪問으로 더욱 해소되어 다시 密着化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北韓과 中共의 密着은 相互間 政策路線上的 隔差가 벌어짐으로써 限界點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北韓共產集團은 특히 1980年10月 6次勞動黨大會에서 金日成 - 金正日 世襲體制를 굳힌 이래 教條主義的 政策路線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반하여, 中共은 특히 1982年9月 12次共產黨大會에서 毛澤東式 1人支配體制를 否認하고 經濟에 市場經濟的 要素를 加味하는 등 實用主義的 政策路線으로 體制修正을 하고 있어 兩者間에는 政策路線上的 葛藤이 深化될 것으로 判斷되기 때문이다. 1982年9月 金日成이 中共을 訪問하였을 때 鄧小平은 金日成을 實用主義路線이 實驗되고 있는 四川省으로 안내하였으며, 이곳을 둘러본 다음 金日成은 社會主義現代化路線에 感銘을 받았다고 實吐하면서도,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共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것이 社會主義 現代化路線이라고 解釋을 달면서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한다”고 뼈있는 말을 하였다. 이것은 北韓共產集團과 中共間에 오늘날 深化된 政策路線上의 葛藤을 代辯하고 있다.

한편 北韓共產集團과 蘇聯과의 關係는 대체로 1960年代 以後 계속 冷却狀態를 유지해 왔다. 물론 蘇聯은 韓半島 統一問題에 대하여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고 있고, 北韓의 産業프로젝트에 參與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의 對蘇外債 償還期間을 연기해 주기도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親中共的이며, 스탈린時代를 능가하는 金日成個人崇拜, 그리고 重工業優先政策을 비롯한 獨自的 經濟路線 등등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왔다.

金日成은 이와 같은 蘇聯의 態度에 대해 選擇的으로 對應하면서도 대체로 이른바 「蘇聯의 支配主義」政策에 反對해 왔다. 金日成은 캄보디아의 노로돔 시아누크를 支持하면서 蘇聯의 앞잡이인 베트남의 캄보디아에 대한 軍事·政治的 介入을 반대하고 있으며, 蘇聯軍의 아프가니스탄侵攻直後 蘇聯의 對아프가니스탄政策을 지지하는 共產國家들의 決議에 대해 루마니아와 함께 署名을 拒否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北韓共產集團은 베트남과의 關係를 回復하였는가 하면, 蘇聯의 代理戰爭을 도맡아 하고 있는 쿠바와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쿠바와 비슷하게 蘇聯의 代役을 떠맡고 있다.

그리고 北韓共產集團은 1978年 12月 31日 이른바 「蘇聯船舶의 羅津港 使用에 관한 議定書」에 署名(모스크바放送, 1979.1.4)함으로써 帝政러시아 이래 北太平洋地域에서 不凍港을 確保하려는 蘇聯의 오랜 宿願을 풀어주었다.

이와 같은 狀況속에서 北韓共產集團과 蘇聯과의 關係가 軍事的 密着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念慮된다. 물론 MIG 23을 비롯한 現代의

인 軍裝備에 대한 北韓側 要求를 모스크바가 들어줄 것이라는 確定的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蘇聯으로서는 1972年 美·中共上海共同聲明以來 10年間 造成되어 온 美·日·中共間의 軍事的 紐帶가 심화될 경우 對北韓 軍事密着을 통한 對應措置를 생각할 것이며, 北韓共產集團은 「第2의 韓國戰爭」을 일으킬 경우 蘇聯의 軍事支援을 기대할 것이다.

韓國戰爭이 발발된 지 30餘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韓半島는 世界에서 가장 軍事化된 地域中の 하나로서 北韓共產集團은 軍事力 增強에 血眼이 되어 있다.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은 78萬以上の 正規軍을 維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駐韓美軍의 軍事力を 除外하면 航空機, 潛水艦, 탱크 그리고 몇 가지 地上火器에서 우리보다 優勢한 軍事력을 確保하고 있다.

北韓共產集團은 1961~66年間 軍事費 支出을 全體豫算의 平均 20%線으로 增加시켰고, 1967~1972年間에는 30%線으로 大幅 增加시켰다. 그뒤 南北對話時期부터 豫算上의 軍事費는 다소 減少되었으며, 최근의 北韓側 公式統計에 따르면 1979년에 全體豫算의 15.1%, 1980년에는 14.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專門家들은 軍事費를 人民經濟費 등 他豫算項目속에 僞裝시킨 것으로 分析하고 있다.

北韓共產集團은 近年 一連의 軍事挑發을 감행해 왔다. 1981年 8月 26日 公海上을 날던 美國의 SR 71 高空偵察機에 대해 地對空미사일을 發射하였으며, 1981年 10月 31日 休戰線南方 警備區域에 500餘發의 機關銃集中射擊을 감행한 이래 休戰線一帶에서 類似한 挑發을 빈번히 恣行하고 있다.

北韓共產集團은 金正日後繼體제의 構築과 國內經濟事情의 惡化에 따른 北韓住民의 不滿要因을 對外的으로 發散시키고, 南北韓 사이의 體

制競爭에서 北韓의 열세를 對內外的으로 立證시키는 契機가 될 우리 나라의 '88 올림픽을 霧散시키기 위한 霧圍氣를 만들고, 더우기 南北韓 軍事力競爭에서 優位를 喪失할 것이라는 초조감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설픈 불장난을 일으킬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北韓共產集團은 駐韓美軍이 駐屯하고 있는 狀況속에서도 平元高速道路 등을 利用하여 北韓全域에 分散配置되어 있는 탱크를 비롯한 모든 軍事力까지도 休戰線一帶로 신속히 집결시킨 다음 우리 國軍과 駐韓美軍의 막강한 兵力이 集中配置되어 있는 前方地域을 「땅굴」을 통하여 通過함으로써 우리의 首都圈을 奇襲攻擊할 수 있는 速戰速決을 內容으로 한 이른바 「主體戰略」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韓國戰爭時期부터 우리의 首都圈을 중심으로 한 漢江以北地域만을 軍事占領하면 「全南朝鮮」을 赤化할 수 있다는 作戰概念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의 首都圈이 露出되어 있는 作戰地理的 特殊狀況은 오늘날도 北韓共產集團을 誘惑케 하는 우리의 중요한 脆弱點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 韓半島를 에워싼 전반적인 軍事情勢는 韓國戰爭時期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의 軍事力이 계속 增強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美國의 對韓防衛 公約이 前例없이 強化되고 있다. 北傀軍이 비록 先制攻擊에 성공하여도 北韓全域은 大量軍事報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共產圈情勢도 韓國戰爭時期와 많이 달라졌다. 實用主義路線에 따라 社會主義現代化計劃 추진에 급급한 中共은 美國과 정면으로 軍事對決을 하여야 할 第2의 韓國戰爭을 바랄 까닭이 없다. 다만 蘇聯의 立場이 流動的이나 韓半島에서의 戰爭은 中共과의 軍事衝突로 확산될 可能性이 짙음으로 損益計算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北韓共產集團은 우리 首都圈에 대한 奇襲攻擊과 이를 위한 陽動作戰으로 우리의 後方地域에 대한 게릴라戰 등 軍事的 誘惑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당장은 이른바 “南朝鮮革命”의 誘發이란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에 優先順位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3. 駐韓美軍 問題

北韓共產集團은 駐韓美軍의 存在를 “눈에 가시”格으로 생각하고 있다. 駐韓美軍이 있음으로 이른바 「南朝鮮」을 軍事占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南朝鮮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이 결정적으로 制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共產集團의 最大外交目標은 駐韓美軍을 撤收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모든 外交力量을 집결시키고 있다. 가령 北韓共產集團은 「高麗民主聯邦共和國」樹立 등 統一問題를 말할 때도 반드시 駐韓美軍의 撤收를 「先決條件」으로 要求하고 있는 것을 보면 北韓共產集團이 얼마나 이 問題에 대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물론 北韓共產集團은 駐韓美軍 撤收를 主張하면서 허울좋은 名分을 내걸고 있다. 祖國을 統一하려면 먼저 “南朝鮮이 美帝의 强占으로부터 解放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駐韓美軍이 撤收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당한 主權國家를 植民地로 몰아부치는 점이 바로 北韓外交의 論理的 虛構性임을 立證하고 있다. 두말할 必要조차 없이 駐韓美軍은 1954年 韓·美相互防衛條約에 根據하여 韓半島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의 役割이 끝났다고 判斷될 때 우리나라가 駐韓美軍의 撤收를 要求하면 駐韓美軍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北韓共產集團이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協定」에 응해오고 韓半島의 平

和定着에 적극적으로 나오면 駐韓美軍의 存在를 必要로 하지 않으며 그의 撤收를 즉각 요구할 것이다.

여하튼 北韓共產集團은 駐韓美軍의 撤收問題에 대하여 中·蘇 兩國으로부터 支持를 얻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中·蘇 兩國은 駐韓美軍이 撤收하면 韓半島의 軍事力均衡이 破壞되므로 韓半島의 情勢安定에 逆機能을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中·蘇紛爭 狀況속에서 北韓의 눈치를 보아야 할 처지임으로 北韓共產集團의 駐韓美軍撤收 主張을 競爭的으로 支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北韓共產集團은 1974年3月25日 이른바 最高人民會議 名의로 「美議會 上·下兩院에 보내는 便紙」를 採擇하여 “韓半島 休戰協定の 當事者인 北韓과 美國間에 平和協定을 締結하여 停戰協定을 代置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이른바 越南協商모델에 따른 對美直接協商戰術을 기도하였던바, 이것은 우리 “韓國이 停戰協定當事國이 아니므로 美國이 韓半島 軍事問題의 主人”이라는 臆說을 바닥에 깔고 한 수작이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休戰協定은 韓國戰爭을 休戰시키기 위한 雙方 軍司令官 사이의 協定으로서 당시 유엔軍司令官이 休戰協定에 署名하였다고 하여 美國이 곧 韓半島 軍事問題의 主人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韓半島 軍事問題의 第1次的 當事者는 종든 싫든 우리 韓國과 北韓共產集團이다. 오늘날 우리 民族의 統一問題를 民族自主的으로 解決하자고 외치면서 統一問題의 한 部分인 韓半島軍事問題를 美國하고만 해결해야 한다는 北韓共產集團의 臆說이 야말로 가장 反民族的이며 反統一的인 것이다.

여하튼 美國이 우리 韓國의 參與없는 北韓과의 單獨對話를 단호히 拒否하자, 北韓共產集團은 駐韓美軍 撤收를 유엔決議로 관철시키려고 기도하였으며, 支持票를 動員하기 위하여 非同盟圈 接近工作을 치열히展

開하였다. 특히 北韓共產集團은 1975年 8月 페루의 首都 리마에서 開催된 非同盟外相會議에서 非同盟圈에 單獨으로 加入하는데 成功하였다. 당시 우리 政府도 北韓共產集團이 일방적으로 非同盟圈에 加入됨으로써 야기될 非同盟國의 對韓國關係 惡化를 예방하고, 당장 다가올 第30次 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미칠 影響을 極小化시키기 위하여 非同盟圈에의 南北韓 同時加入을 추진하였으나, 1975年 4月 越南이 共產화된 직후이어서 非同盟圈에 反帝·反植民主義의 熱氣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國際環境의 影響으로 因하여 北韓에게 一방적인 勝利를 안겨 주었었다.

이러한 國際的 霧圍氣의 延長線 위에서 同年 第30次 유엔總會에서는 “모든 直接當事者가 休戰協定 代案 및 恒久的 平和保障을 위한 協商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內容의 西方側 決議案과 “韓國休戰協定の 실제적 當事者(real parties)는 北韓과 美國이기 때문에 韓國을 參與시키지 말고 美·北韓間에 平和協定이 締結되어야 한다”는 內容의 共產側 決議案이 통과됨으로써, 相互 矛盾되고 二律背反的인 案이 同時에 통과된 結果가 되어 韓國問題에 대하여 유엔이 할 수 있는 役割의 限界性을 나타내고 말았다.

北韓共產集團은 1976年에도 駐韓美軍撤收問題를 비롯하여 韓半島問題를 유엔으로 물고 갈려고 하였다. 北韓共產集團은 유엔工作의 前哨戰으로 그해 8月 스리랑카의 首都 콜롬보에서 개최된 第5次 非同盟頂上會議에 金日成이 直接 參與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北韓과 스리랑카는 1971年 콜롬보駐在 北韓大使館員이 反政府暴動을 중용한 혐의로 추방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래 外交關係가 단절된 狀態이어서, 스리랑카의 妨害로 金日成의 非同盟頂上會議 參與計劃이 水泡로 돌아갔고, 이어 板門店 도끼蠻行事件을 유발하여 北韓에 대한 國際輿論이 惡

化됨으로써 유엔總會의 票對決에서 勝算이 없다고 판단한 北韓共產集團은 이미 上程된 共產側 決議案을 철회시켰으며, 이에 韓半島問題의 無謀한 유엔對決을 止揚하고 南北對話를 통한 實質的 解決을 主張해 왔던 우리의 주장에 따라 西方側도 總會에 上程하려던 決議案을 철회시킴으로써 第30次 總會를 마지막으로 오늘날까지 韓半島問題가 유엔에 上程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北韓共產集團은 第30次 유엔總會에서 “美·北韓間에 平和 協定이 締結되어야 한다”는 共產側 決議案만이 可決된 양 僞裝하면서 “美帝는 유엔總會의 決議를 어기고 韓半島에 駐屯하고 있다”고 發狂的인 宣傳을 해오고 있다.

#### 4. 「主體思想」 및 統一方案의 宣傳·煽動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은 北韓政權의 政治的 權威를 格上시키고 「南半部」의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을 強化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主體思想」과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을 對外的으로 宣傳·煽動하기에 血脈이 되어 있다.

원래 「主體思想」은 北韓 國內政治的 側面에서 보면 金日成이 政治的 基盤을 構築하는 과정에서 反對勢力을 主體性이 없는 「宗派分子」로 몰아 肅清하기 위한 政治名分으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은 金正日後繼體制를 構築하는 手段으로까지 동원되고 있으나, 北韓의 對外關係的 側面에서 보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國際主義的 屬性을 앞세운 蘇聯의 影響權 행사에서 벗어나려는 일종의 「獨自路線」으로 發展될 屬性을 지니고 있었다. 1982年3月 이른바 金日成 70回生日記念 全國主體思想討論會에 보낸 「主體思想에 대하여」라는 金正日

論文은 “金日成이 1930年代에 主體思想의 原理를 闡明하였다”라고 主張하고 있으나, 北韓共產集團은 1955年 12月 이른바 黨 宣傳·煽動일꾼들 앞에서 행한 “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體를 確立할 데 대하여”라는 金日成演說을 계기로 「主體思想」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金日成은 이 演說에서 「人民軍·休養所에 걸린 씨비리草原의 그림」, 「地方機關의 宣傳室에 걸린 蘇聯의 5個年 經濟計劃圖表」, 「人民學校에 걸린 마야팜쓰끼와 뿌슈긴寫眞」 등 蘇聯風을 비난하면서, 北韓의 특수한 條件에 알맞는 政權形態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立場이 1972年 12月 改正된 社會主義憲法 第4條에서는 “人民共和國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자기 活動의 지도적 指針으로 삼는다”라고 표현되었다. 그리고 1980年 10月 第6次 黨大會에서 改正된 「朝鮮勞動黨規約」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창조적으로 적용”……云云한 1970年 5次 黨大會規約을 “金日成同志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革命的 마르크스·레닌主義黨”云云으로 改正하였으며, 특히 金日成의 「6次 黨大會事業總和報告」에서는 아예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學論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 北韓共產集團은 “金日成 원수가 창시하신 主體思想”云云하면서 “金日成이 人類歷史上 처음으로 위대한 思想을 창시하였다”라고 공공연히 宣傳하고 있다.

이것은 北韓社會가 狂亂의 地境에 이르렀음을 端的으로 나타내는 것이나, 北韓의 對外路線과 關聯시켜 생각해 볼 때 「主體思想」이 宣傳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反蘇路線」이 밑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反蘇路線은 1978年 9月, 北韓政權樹立 第30周年 記念演說에서 金日成이 “支配主義政策을 追求하는 나라중에는 帝國主義國

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國家도 있다”고 사실상 蘇聯의 膨脹政策을 露骨的으로 非難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와 같은 「主體思想」의 屬性인 反蘇路線은 이른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革命의 實踐에 적용하였다”고 하는 「毛澤東思想」과 論理的 脈絡을 같이 하고 있음을 주목할 必要가 있다. 특히 北韓과 中共의 國際情勢觀은 一脈相通한다. 中共은 「美帝國主義」와 蘇聯의 「霸權主義」를 한데 묶어 「第1世界」로, 아시아·아프리카地域의 發展途上國家를 「第3世界」로, 그리고 이들 兩世界の 中間에 위치한 日本, 西歐 및 東歐를 「第2世界」로 規定하고 스스로 「第3世界」에 屬하고 있음을 자처하면서 第3世界の 反帝·反霸權鬭爭에 기초하는 國際情勢觀을 펴왔다. 이것은 北韓共產集團의 國際情勢觀과 脈絡을 같이 한다. 다만 中共이 「世界の 3分論」에 바탕을 두고 있는 대신 北韓共產集團의 國際情勢觀은 「支配主義 나라」와 「自主性を 擁護하는 나라」로 「世界の 2分論」에 바탕을 두고 있음이 다를 뿐이다.

여하튼 北韓共產集團은 “支配主義로부터 自主性を 擁護하려는 운동이 民族解放運動”이며 이것이 또한 「블럭不加擔運動」이라고 煽動하면서 스스로 「블럭不加擔運動」을 主導하려고 온갖 外交力量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金日成이 「萬病通治藥」처럼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主體思想」이 對外關係에 적용될 경우 終着驛은 「블럭不加擔運動」이며, 따라서 金日成이 對外的으로 「主體思想」을 외쳐대는 속셈은 두 말할 必要조차 없이 第2次 世界大戰後 植民地에서 獨立한 대부분의 아시아·아프리카國家들의 「民族解放」感情을 자극·원승하여 反美·反韓統一戰線을 形成하려는데 있으며, 그러다보니 中共의 國際情勢觀을 모

조하여 反蘇路線으로까지 발전되었다.

한편 金日成이 말끝마다 “統一問題를 民族自主적으로 해결하자”고 떠들면서 항상 統一問題를 나라 밖으로 끌고나가 宣傳物로 만듦으로써 스스로 의친 民族自主論理에 가장 矛盾되는 策動을 감행하고 있는 理由도 우리나라의 統一問題를 「民族解放問題」로 끌고가 역시 反美·反韓統一戰線을 만들려는 속셈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共產集團의 이와 같은 企圖는 1975年 페루의 首都 리마에서 開催된 非同盟外相會議에서 北韓만이 非同盟圈에 單獨 加入된 것이 絶頂이자 내리막길이 되었다.

왜냐하면 北韓共產集團의 企圖가 非同盟運動의 性格變化로 말미암아 먹혀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非同盟國家들은 國家建設(Nation Building)의 初期段階에서는 나라안의 政治的 統合이 急先務였던 것이며, 이 時期에 있어서는 “民族解放感情”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이었던 바 「主體思想」類의 政治名分이 事實상 必要하였다. 그러나 1960年代에 대부분 政治的 獨立을 獲得한 非同盟國家들은 1980年代에 접어들어서 國家建設의 第2段階에 들어섰으며, 어떻게 하면 經濟를 發展시킬 수 있는가에 關心이 집중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非同盟運動의 課題는 「政治問題」로부터 이른바 「南北問題」 등 經濟問題로 比重이 옮겨가고 있다.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은 「自立經濟」云云하면서 「主體思想」이 經濟建設의 妙方이라도 되는 듯이 對內外的인 宣傳·煽動을 감행하고 있으나, 北韓經濟를 經濟建設의 모델로 삼으려는 非同盟國家는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主體思想」의 基本的 限界點이 있다. 다시 말하면 「主體思想」은 기본적으로 金日成獨裁體制를 合理化시키는 政治名分的 機能을 할 뿐이며, 따라서 國民의 比較意識을 말살시

키기 위하여 對外的 閉鎖性을 生命으로 하고 있다. 北韓共產集團이 만일 開放社會體制로 轉換되면 「主體思想」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마치 中共에서 實用主義路線에 따라 對外開放政策을 추진하니 「毛澤東思想」이 批判당하는 原理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 5. 經濟外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른바 「主體思想」과 「高麗民主聯邦共和國」方案의 宣傳·煽動을 중심으로 한 「名分外交」로서의 北韓共產集團의 外交는 限界狀況에 이르렀다. 이제부터 살펴보려는 「實利外交」로서의 經濟外交도 역시 限界狀況에 이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오늘날 北韓經濟의 現實을 經濟外交의 觀點에서 한 마디로 말한다면 “蘇聯과 中共으로부터 얻을 것이 별로 없자 1970年代로부터 西歐, 日本 등 自由世界로 눈을 돌려보았으나 主體思想이란 제 울가미에 묶여 毛澤東式 自力更生路線에서 헤매고 있는 狀態”라고 말할 수 있다.

北韓共產集團은 政權樹立 이전인 1946年 12月 이미 「建國思想總動員運動」을 벌였으며, 1956年 12月 黨全員會議에서는 「千里馬運動」을, 그리고 1975年末부터는 思想·技術·文化의 이른바 「3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을 벌이고 특히 「主體思想」에서 「自立的 經濟」를 내세워 마치 經濟를 外部의 지원없이 獨自적으로 建設하고 있는 듯이 宣傳·煽動하고 있으나, 政權樹立 以後 中·蘇로부터 相當量의 經濟支援을 받아 왔다.

최근 蘇聯의 「타스」通信은 “蘇聯은 그동안 北韓에게 北蒼火力發電所, 勝利化學工場(精油工場), 金策製鐵所 등 大單位工場을 비롯하여

60餘個의 工場建設을 支援하였으며, 數千名의 北韓技術者를 蘇聯에서 訓練시켰다”고 力說하고 있다. 蘇聯은 1979年 11月 極東地域 開發을 위하여 異例적으로 「極東 자바이칼地方建設省」을 新設하였는 바, 앞으로 蘇聯의 極東地域 開發이 進展되면 北韓은 (1) 勞動力을 提供할 可能性이 있고, (2) 極東·시베리아地方의 蘇聯住民에게 野菜 등 食料品을 供給할 可能性이 있으며, (3) 蘇聯의 羅津港使用權 獲得과 淸津 領事館 開設 등으로 咸鏡北道와 蘇聯의 極東地域間에 經濟的 結束이 심화될 것으로 專門家들은 分析하고 있다.

한편 中共의 報道機關들은 그동안 北韓에 대한 經濟援助 및 輸出入現況을 일체 발설하지 않았으나, 1979年 10月 19日 비로소 人民日報는 新華社通信 訪朝代表團의 記事를 빌어 “戰後 30餘年間 中共은 烽火化學工場(精油工場), 平壤地下鐵, 淸川江火力發電所 그리고 興南化學肥料聯合企業所建設 등을 지원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蘇聯의 經濟支援이 咸鏡北道에 집중된 반면 中共은 西部地域에 집중되었으나, 中共의 東北部 黑龍江省 等地的 農産物이 淸津港을 經由하여 日本에 輸出되는 問題가 現實化될 경우 咸鏡北道와 淸津直轄市 周邊에 中·蘇勢力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北韓의 對中·蘇交易은 1970年부터 1979年까지 10年間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交易規模는 中共보다 蘇聯과의 交易量이 약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70年以後 中共과의 交易量이 크게 增加된 데 비해 蘇聯과의 交易量은 그 起伏이 심한 가운데 增加率이 鈍化되고 있다.

그리고 北韓政權樹立 以來 重工業을 중심으로 經濟를 建設하려는 北韓과, 北韓을 코메콘에 加入시켜 北韓經濟를 蘇聯經濟圈속에 편입시키려는 蘇聯과의 사이에 衝突이 불가피하였으며, 따라서 蘇聯의 對

年度別 北韓의 對中·蘇貿易推移

(單位：1百萬달러)

區分	年度 나라	70	75	76	77	78	79
		總額	中 蘇	105.6 373.2	368.6 468.5	258.0 398.5	320.0 446.0
輸入	中 蘇	55.6 230.0	176.5 258.8	152.0 241.1	156.0 223.5	210.0 357.9	? 365.0
	輸出	中 蘇	50.0 143.2	192.1 209.7	106.0 157.4	164.0 222.5	230.0 294.6

北韓 經濟支援은 微微하였다.

北韓共產集團은 이른바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重壓 때문에 1961년부터의 第1次 經濟開發 7個年計劃을 3個年 延長하였으며, 1971년부터의 6個年經濟開發計劃은 1975年 9月 早期完成되었다고 公表까지 하여 놓고, 이른바 「産業間的 緊張을 해소시키기 위한 緩衝期間」으로서 1976~1977年間的 調整期間을 거쳐 1978年에야 비로소 第2次 經濟開發 7個年計劃에 들어가는 喜劇을 演出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經濟開發計劃이 매년 失敗한 重要原因은 中·蘇 兩國으로부터의 經濟支援이 順調롭지 못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1978년부터의 第2次 經濟開發 7個年計劃도 問題러니와, 1980年 10月 第6次 勞動黨大會 黨事業總和報告에서 金日成이 提示한 經濟開發 10大展望 目標은 이른바 「自力更生政策」만으로 해결될 性質의 것이 아니므로 技術과 裝備를 비롯한 對外的 經濟協力이 不透明할 경우 그 展望은 결코 밝지 못하다.

北韓共產集團은 中·蘇로부터의 經濟協力이 不透明해지자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西歐·日本 등 自由世界에 貿易代表部를 設置하고 交易·借款導入 등 經濟關係를 맺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日本과 民間레벨의 貿易關係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北韓經濟가 自由經濟와 接觸해본 決算은 外債의 累積뿐이었으며, 北韓共產集團은 外債償還壓力에 시달리다 못해 外交官에게 國際密輸行爲를 시킴으로써 國際的 亡身을 당하는 추태를 벌였다.

#### 北韓의 對日貿易實績

(單位: 1千달러)

年 度	輸 出	輸 入	收 支
1971	30,059	28,907	1,152
72	38,311	93,443	-55,132
73	72,318	100,160	-27,842
74	108,824	251,914	-143,090
75	64,839	180,629	-115,790
76	71,627	96,056	-24,429
77	66,618	125,097	-58,479
78	106,862	183,347	-76,485
79 (1~8月)	110,498	176,591	-66,093

따라서 北韓經濟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른바 「主體思想」에 바탕을 둔 北韓經濟體制의 構造的 矛盾을 마치 中共이 實用主義路線을 選擇하듯이 과감히 修正하는 길 뿐이다.

## 6. 結 言

이상으로 北韓共產集團의 軍事와 外交를 (1) 對中·蘇關係와 軍事路線, (2) 駐韓美軍問題, (3) 「主體思想」 및 統一方案의 宣傳·煽動 그리고 (4) 經濟外交 등 項目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 보았다. 거듭 말하거니와 軍事와 外交는 우리나라를 赤化하기 위한 戰術的 次元의 것으로서 종이의 앞뒤面과도 같다.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의 軍事와 外交는 한마디로 限界狀況에 부딪치고 있다. 美國이 우리나라에 대한 防衛公約을 강화하고, 社會主義現代化計劃을 추진하고 있는 中共이 韓半島에서의 戰爭을 원하지 않는 등 東北亞情勢의 轉換으로 말미암아 北韓共產集團이 하루아침에 全韓半島를 軍事的으로 占領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으며, 「主體思想」과 「高麗民主聯邦共和國」方案을 앞세운 宣傳·煽動으로 이른바 「國際革命力量」을 강화하여 「南半部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興件을 조성해 보려는 企圖가 특히 非同盟運動의 性格變化로 잘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北韓共產集團은 「朝總聯」을 만들었고, 바야흐로 「美國內의 第2의 朝總聯」을 만들려고 在美同胞에게 치열한 工作을 펴고 있으나, 그들 宣傳·煽動의 欺瞞性和 南北韓 體制의 優劣이 가려지고, 더욱기 우리나라의 民主主義가 定着되어 감으로 인하여 北韓共產集團의 氣勢는 꺾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1982年 1月 22日 우리가 이른바 「高麗民主聯邦共和國」方案을 완전히 理論的으로 壓倒할 수 있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提示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北韓共產集團의 宣傳·煽動外交는 이제 결

정타를 맞은 셈이다. 統一祖國의 憲法을 만들지 못하겠다는 北韓共產集團이야말로 바로 「2個 朝鮮을 造作」하려는 反民族的·反統一的集團이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北韓共產集團의 經濟外交도 限界點에 이르렀다. 社會主義經濟體制의 構造的 矛盾을 그대로 두고 對外的 經濟協력이 순조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南北韓의 經濟力量은 완전히 優劣이 판가름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볼 때 北韓共產集團은 1980年代가 지나는 동안 蘇聯과 손을 잡고 다시 한번 同族相殘의 第2의 韓國戰爭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中共이 「毛澤東思想」을 버리고 實用主義路線을 따르듯이 「主體思想」을 버리고 社會開放을 하면서 經濟發展을 도모할 것이냐의 중대한 政策選擇의 岐路에 부딪칠 것이다. 마침 1982年末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中·蘇接近動向도 北韓共產集團으로 하여금 中·蘇紛爭의 틈바귀에서 누려왔던 「양다리外交」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兩者中 擇一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리고 北韓共產集團은 1980年代中 또 다른 중요한 政策選擇을 하여야 한다. 서울에서 열릴 1986年 아시안게임과 1988年 올림픽에 民族的·良心으로 돌아와 반드시 參與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南北對話에 흔쾌히 應하여야 한다. 이 길만이 統一로 가는 길이요, 우리 民族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 參 考 文 獻

- 北韓軍事論，北韓研究所，1978.
- 北韓外交論，北韓研究所，1978.
- 北韓外交論，慶南大極東問題研究所，1977.
- 北韓概要，國土統一院.
- 北韓의 外交，高秉喆，1968.
- Sino - Soviet dispute and North Korea, 1967. (金應澤)
- Pyongyang between Peking and Moscow, 1978. (鄭鎮洵)

## 北韓의 軍事·外交(要約)

### 1. 序 言

- 北韓共產集團은 “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의 完成, 南半部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의 實現 그리고 全韓半島의 主體思想化와 共產主義 社會의 建設” 이란 明白한 政策目標을 갖고 있음.
- 이를 위하여 北韓共產集團은 社會主義革命力量,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 그리고 國際革命力量 등 3大革命力量의 強化를 企圖하고 있음.

### 2. 北韓의 對中·蘇關係와 軍事路線

- 金日成은 蘇聯의 極東政策에 따라 韓國戰爭을 誘發하였으나, 蘇聯의 微溫的인 戰爭遂行政策에 不滿足하였으며, 그후 中·蘇 理念紛爭, 쿠바事態, 中·印國境紛爭을 契機로 北韓과 蘇聯間의 關係는 점차 이완되었음.
- 한편 北韓과 中共과의 關係는 韓國戰爭을 契機로, 이른바 “血盟의 關係”로 緊密化되기 시작하여, 北韓은 中·蘇 틈바귀에서 “양다리” 外交를 해오면서도 中共의 文化大革命期를 除外하면 사실상 中共과 더욱 密着關係를 維持해 왔음.
- 中共이 美·日과 關係를 正常化시키고 部分的이나마 社會開放政策을 推進하자 北韓과 中共間에는 미묘한 葛藤이 있었으나, 1982年 金日成의 中共訪問을 前後로 相互 政策路線上的 差異를 갖은 채 다시 密着되고 있음.
- 北韓共產集團은 그동안 軍事力을 계속 增強시켜 왔으며, 駐韓美軍이 駐屯하고 있는 狀況속에서도 우리의 首都圈에 대한 奇襲

攻撃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이른바 “主體戰略”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음.

### 3. 駐韓美軍問題

-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의 最大 外交目標中の 하나는 駐韓美軍을 撤收시키는 것임.
- 北韓共產集團은 1974年 3月 25日 이래 韓國을 對象으로 하였던 從來의 立場을 바꾸어 美國과의 사이에 平和協定이 締結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음.
- 北韓共產集團은 駐韓美軍 撤收案을 유엔에서 可決시키려고 非同盟外交를 強化하였으며 마침내 1975年 非同盟圈에의 單獨加入을 實現시켰고, 같은 해 第30次 유엔總會에서 韓半島問題에 관한 東·西方側 決議案을 同時 可決시키는데 成功하였음.

### 4. 「主體思想」 및 統一方案의 宣傳·煽動

-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은 北韓共產體제의 政治的 權威를 格上시키고, “南半部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을 強化시키기 위하여 “主體思想” 및 統一方案의 宣傳·煽動에 血眼이 되어 있음.
- 主體思想의 展開過程을 살펴보면 “反蘇路線”이 밑에 깔려 있으며 이것은 毛澤東思想과도 一脈相通되는 것으로서, 非同盟圈과의 關係를 중요시하는 窮極的인 目的은 反美·反韓 統一戰線의 形成에 있음.
- 그러나 國家의 經濟建設을 중시하는 方向으로 非同盟運動의 性格이 轉換됨에 따라 北韓의 “主體思想” 및 統一方案의 宣傳·煽動도 限界點에 이르고 있음.

5. 經濟外交

- 實利外交로서의 北韓의 經濟外交는 70年代에 이르러 自由世界로까지 多邊化되었으나 北韓經濟體制의 構造的 矛盾으로 인하여 限界狀況에 부딪치고 있음.

6. 結 言

- 韓半島에 대한 美國의 防衛公約의 強化, 中共의 實用主義路線, 非同盟運動의 性格轉換, 그리고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提議 등으로 北韓의 軍事와 外交는 限界狀況에 이르렀음.
- 北韓共產集團은 1980年代가 가기 전에 第2의 韓國戰爭이나, 南北對話냐의 政策 選擇의 重大한 岐路에 直面할 것으로 豫想됨.



〈非賣品〉

# 北韓實態 (I)

1983年 2月 21日 印刷

1983年 2月 22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所



# 北韓政治體系

